

2012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회의 및 정기총회

한·러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협력강화 방안 모색

일시: 2012. 11. 23(금) 09:30~18:30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회의실

주최:  한국슬라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후원:  국민대학교
KOORMIN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GRAM

제1회의실 본부관 311호

10:00~12:00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패널

사 회: 황영삼(한국외대)

러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통성에 관한 연구

-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의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정세진 (한양대)

러시아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란 무엇인가 박영은 (한양대)

포스트소비에트시대의 사회주의 도시연구 기계형 (한양대)

토 론: 양승조 (고려대), 조준래 (한국외대), 이지연 (한양대)

한국슬라브학회 ·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공동기획 패널

13:30~15:30 한러 협력강화방안 모색 1

사 회: 기연수(한러교류협회)

대북, 통일정책 협력방안

장덕준 (국민대)

극동 개발정책 협력방안

엄구호 (한양대)

토 론: 홍현익 (세종연구소), 권세은 (경희대)

한국슬라브학회 ·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공동기획 패널

16:00~18:00 한러 협력강화방안 모색 2: 라운드테이블

사 회: 강윤희(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장)

외교안보분야

우평균 (한양대)

경제통상분야

이종문 (부산외대)

법 률 분 야

배정한 (법무법인 미르)

문 화 분 야

이지연 (한양대)

문 학 분 야

김성일 (청주대)

언 어 학 분 야

전혜진 (중앙대)

제2회의실 본부관 219호

10:00~12:00 대학원생 패널

사 회: 김상원(국민대)

환경NGO 국제협력 추동 요인 분석: 한국과 러시아 비교연구

바딤 슬렙첸코 (국민대)

반정부시위를 바탕으로 본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 가능성 연구

정선아 (한국외대)

러시아 금융산업, 한계에서 기회로: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김유정 (한국외대)

지도/토론: 김상원 (국민대), 현승수 (한양대)

13:30~15:30 자유공모 패널 1, 정치·경제 영역

사 회: 이종문(부산외대)

CIS 경제통합에서 러시아의 역할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구심력

박지원 (한국외대)

사하공화국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의 위기요인들:

기후-환경 위기와 종교-문화-사회 위기를 중심으로

이경완 (서울대)

토 론: 윤성학 (KIEP), 이상준 (국민대)

16:00~18:00 자유공모 패널 2, 역사 영역

사 회: 민경현(고려대)

러시아 내전기(1918~1921) 페트로그라드의 노동 계급과 배급

류한수 (상명대)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

구자정 (대전대)

토 론: 노경덕(국민대), 김태연(광운대)

제3회의실 본부관 306호

동북아역사재단 기획패널 : 한러관계의 재발견

10:00~12:00 다시 보는 사건과 현장

사 회: 한철호(동국대)

러시아문헌으로 본 아관파천과 환궁 **김종헌 (고려대)**
한러관계의 형성 - 19세기 중후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상을
중심으로 - **이재훈 (동국대)**
19세기말 러시아인의 영토 의식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토 론: 장영숙(한양대), 최아영(이화여대), 김성진(덕성여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패널 : 한러관계의 재발견

13:30~15:30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사 회: 이채문(경북대)

소볼호 사건, 조선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 **황성우 (한국외대)**
러시아의 극동첩보조직 창설과 활동(1904-1910)
-상하이 첩보국을 중심으로 -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홍응호 (동국대)**
토 론: 한성민(동국대), 김원수(서울교대), 김선래(한국외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패널 : 한러관계의 재발견

16:00~18:00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사 회: 김경순(국방대)

한국 청년혁명가들의 꿈의 상아탑: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배은경 (한국외대)

스탈린의 한인 숙청과 강제이주

윤상원 (동국대)

군부숙청과 적군(赤軍) 기병

이정하 (서울대)

토 론: 강봉구(한양대), 고가영(이화여대), 황동해(한국교원대)

제4회의실 본부관 401호

18:00~18:30 정기 총회

- 회장 인사말
- 금년도 업무 보고
- 2014년도 회장 선출
- 기타 논의
- 차기 회장 취임사

C O N T E N T S

동북아역사재단 기획패널 : 한러관계의 재발견

다시 보는 사건과 현장

러시아문헌으로 본 아관파천과 환궁 김 종 현 (고려대)	3
한러관계의 형성 - 19세기 중후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상을 중심으로 - 이 재 훈 (동국대)	19
19세기말 러시아인의 영토 의식 김 영 수 (동북아역사재단)	37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소볼호 사건, 조선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 황 성 우 (한국외대)	57
러시아의 극동첩보조직 창설과 활동(1904-1910) -상하이 첩보국을 중심으로 - 최 덕 규 (동북아역사재단)	67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홍 응 호 (동국대)	83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한국 청년혁명가들의 꿈의 상아탑: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배 은 경 (한국외대)	101
스탈린의 한인 숙청과 강제이주 윤 상 원 (동국대)	113
군부숙청과 적군(赤軍) 기병 이 정 하 (서울대)	129

동북아역사재단 기획패널 : 한러관계의 재발견

❑ 다시 보는 사건과 현장

사 회: 한철호(동국대)

❑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사 회: 이채문(경북대)

❑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사 회: 김경순(국방대)

다시 보는 사건과 현장

러시아문헌으로 본 아관파천과 환궁

김종헌 (고려대)



러시아문헌으로 본 아관파천과 환궁

김 종 현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I. 서 론

청일전쟁 이후의 몇 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시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의 중심에는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즉 러시아는 자신을 대표하던 서울주재 러시아대리공사 베베르(Вебер)¹⁾를 통해 위 두 사건의 중심에서 있었다. 따라서 위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문헌, 즉 러시아 사료를 반드시 살펴봐야만 한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료를 이용한 김영수의 연구서가 이미 발표되었다.²⁾ 김영수는 러시아 자료를 충분히 이용한 이 연구서를 통해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는 일본영사관의 와타나베 순사였다고 지시할 만큼 연구를 진행시켰다. 따라서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 언급해야 할 범위도 아니다. 김영수는 이 분야의 뛰어난 전공자답게 아관파천에 대해서도 자신의 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본인은 이번 발표를 통해,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환궁 원인에 대해, 러시아 자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그런 결정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자료가 아직 연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영미자료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자료는 익숙한 편에 든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간의 수교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러시아 자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인 것 같다. 특히 근대시기와 관

1)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서울 주재 러시아 초대 대리공사 겸 총영사. 베베르의 독일식 이름은 카를 프리드리히 테오도르 폰 베베르(Karl Friedrich Theodor von Weber)이다. 1841년 7월 5일 리바바(Либав)에서 유복한 루터교도 집안에서 출생했다. 186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1865년 동양어학부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1882년 천진 주재 러시아 영사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882년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가면서 그의 인생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국식 독음(1908년)’, ‘한국 전체 도시의 실험적 표기(1908년)’ 등을 저술했다 - 역주.

2) 김영수, ‘미쩨의 시기-을미사변과 아관파천,’ 서울, 경인문화사, 2012.

런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 자료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익숙했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사실 러시아 자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시 쓰일 만큼 대단히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³⁾ 따라서 우리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 자료가 지닌 가치는 앞의 경우 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러시아 자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스트렐비츠키의 자료에 기초하여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환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우리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스트렐비츠키의 약력과 아관파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스트렐비츠키가 본 환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스트렐비츠키의 약력

이반 이바노비치 스트렐비츠키(Иван Иванович Стрельбицкий)는 니콜라예프(Николаев) 기병학교를 거쳐, 총참모부 산하의 니콜라예프 학술원을 2등급으로 졸업하여 자카스피스카야(Закаспийская) 주 그리고 제2동시베리아 보병여단 소속으로 시베리아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페르시아(1889년과 1891년), 몽고(1894년), 한국(1894년) 그리고 만주 등지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스트렐비츠키는 1895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즉 서울에 착임하는 그 순간까지 한국과 만주의 국경 지대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했는데, 그에 대한 공적으로 1896년 5월에 대령으로 승진했다. 1896년 7월 27일 35세의 스트렐비츠키는 서울주재 러시아 육군무관 서울에 부임했다.⁴⁾

스트렐비츠키가 서울에서 담당했던 육군무관이라는 직책은 1896년 1월에 고종이 일본인들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려 러시아군 분견대를 자신의 나라로 파견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육군무관이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상대국의 군사력과 그 동태의 파악에 있다. 그러나 이 당시 러시아는 조선의 군사력 파악에 큰 의미를 둔 것 같지 않다. 이는 조선의 군사력이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트렐비츠키에 하달된 임무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조선에서 그리고 크게는 극동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영향력의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3) 이런 면에서 ‘소볼(Соболь) 호 사건’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4) 러시아가 서울주재 육군무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것은 1896년 2월 8일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상대국, 즉 조선에 문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직책을 새로이 만들었다.

그에게 이런 임무가 부여된 것은, 당시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러시아 시베리아 국경의 최동단 측면’이었으며, 동시에 극동지역 군사력을 상대로 한 일본인들의 작전용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역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스트렐비츠키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의 음모를 현지에서 무력화시켜야 했으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러시아 군사전문가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한다고 습관적으로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위정자들에게 국왕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⁶⁾

이런 임무와 동시에 스트렐비츠키는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관찰, 개인적 인맥 또는 조선에 오래 체류한 자들과의 대화 등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 사회의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여기서 인용된 보고서들이 바로 그의 부임 초기에 작성되었던 것들인데,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조선에서 누리고 있는 배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야만 하며, 향후의 병합을 고려하여 조선이 자신의 보호국임을 지체하지 않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스트렐비츠키는 이 경우에 있을 도쿄의 불가피하고도 강력한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가 발송한 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트렐비츠키는 러시아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일본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러시아 육군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스트렐비츠키는 이후 보고서부터 조선의 역사, 국가 기구의 기능, 공력의 도덕과 관습, 조선사회의 재정생활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했다.⁸⁾

III. 아관파천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

을미사변 이후 베베르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일본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의 외교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미우라고로(三浦梧樓)가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실 상 실패로 돌아갔다. 사건의 담당자가 현지를 떠난 이상, 그의 노력은 무의미해 질

5)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353 об. –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С.-Петербург, 6 ноября 1897 г.

6)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21. –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в Военно-ученый комитет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18/30 октября 1896 г. № 82.

7)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102.

8) 스트렐비츠키의 기타 임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удрявцев, “Спецслужбы. Государево око. Тай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 разведка на службе России,” 2002 г. М., Нева, сс.413-414.

수밖에 없었다.⁹⁾

당시 베베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고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민왕후가 사라진 이후 조선의 국왕은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고시켜 줄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이 부임할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훈령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다.¹⁰⁾ 따라서 을미사변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대화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베베르는¹¹⁾ 본국을 상대로 조선의 상황이 비관적임을 꾸준히 알렸다.¹²⁾

고종 역시 자신의 상황을 러시아에 알리려 했다. 그는 베베르에게 서신을 전달하여 “왕비시해 이후... 단 하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으며, 새로운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베베르에게 전권을 하사하시어 군사력으로 과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¹³⁾라고 부탁했다.

베베르와 고종의 의견이 일치된 것인데, 이런 일치가 베베르의 설득 때문인지, 고종의 자의에 따른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확실치 않다.¹⁴⁾ 어찌되었든, 이후부터 베베르는 본국을 상대로 파천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했다.¹⁵⁾

니콜라이 2세의 허락이 있는 후,¹⁶⁾ 1896년 2월 10일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호의 함장 몰라스(Молас) 대령은 100명이 수병을

9)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까지 베베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김종현, “을미사변 이후 아관파천까지 베베르의 활동,” 『사림』 제35호, 2010.

10) 당시 조선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타 열강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베베르에게 하달된 훈령에 나타난 베베르의 임무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평화적 방법으로 수호하는 것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국왕과의 친분을 쌓는 것이었다. 훈령의 전문은 AVПРИ. Ф.150, Оп.493, Д.214, лл.27-52об을 보시오.

11) 위의 논문.

12)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 대한 서구열강의 무관심한 태도를 예상한 일본인들은 이 나라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법률도 꺼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AVПРИ, ф.150, оп.493, д.6, лл.59-65.; “명성왕후가 확실히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서 폐비되었습니다. 국왕이 반역자의 수중에 놓여있는 가운데 대원군의 손자를 후계자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AVПРИ, ф.150, оп.493, д.6, л.98.

13) AVПРИ, Ф.191, Оп.768, Д.25, л.374, 395-396.

14) 1896년 2월 10일 고종은 알렌에게 자신이 러시아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듯 물어보았으며, 이에 알렌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을 보면, 고종의 파천이 전적으로 본인이 뜻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김 Ч.Х.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884-1904 г. М., 2001. с.138.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1979. с.126. 또는 Пак Б.Б.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 1888-1897. М., 2004. с.168-169.

16) 니콜라이 2세는 다음의 전문 위에 “일본인들의 무례함에 실로 우리의 답을 보여줄 때다!”라는 결정을 써 넣었다.; AVПРИ, Фонд 150, Описание 493, Дело 5, Лист 61.; 또한 고종이 파천 의사를 밝힌 문서 위에 제물포로 전함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부기했다.; AVПРИ, Фонд "Канцелярия Мид," 1896 г. Дело 157. Лист 5.

흐멜레프(Хмелрев) 중위의 지휘 하에 서울로 급파했다. 파병의 구실은 공사관 경비의 강화였다.¹⁷⁾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아침 7시 30분 러시아 공사관 내부로 두 채의 여성용 가마가 도착했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여 고종의 아관파천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상당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러시아 문헌에 따르면 파천 이후 초기에는 밖으로 산책하는 것조차 싫어했으며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거의 죄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이런 고종은 상태는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 9등관 슈테인(Штейн)이 작성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매일 방두 칸을 맴돌고 매일 똑같은 공사관 마당에 언제나 한쪽 구석에서 다른 쪽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국왕께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정원에 나가려고 하실 때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산책을 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때로 그가 자신의 연로한 모친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가까운 왕궁으로 왕세자와 같이 갈 때는 공포로 거의 반죽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내 자기 방의 문을 닫고 눈에 띄지 않고 비밀스럽게, 마치 동방의 승려처럼 앉아있었습니다.”¹⁸⁾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내에서 총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진 것으로 아관을 경비하던 모든 병력들과 조선의 경찰들이 진땀을 빼게 만들었으며, 파천 이후에도 암살자가 두려워 아침에야 잠에 들었다고 한다.¹⁹⁾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파천 이전 고종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종이 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파천 이후에도 일본은 고종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압박을 가하려 했다. 하라 다카시(原敬) 조선주재 일본 공사의 경우 조선정부가 러시아 군사교관단을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성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베베르가 조선정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일본공사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었다.²⁰⁾ 또한 고종이 왕비의 능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덕수궁에 행차했을 당시, 국왕을 그곳에 잡아두려 했던 사건도 발생했다.²¹⁾ 이런 모든

17) 원래는 28일에 상륙하여 상경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29일로 연기되었다. РГАВМФ, Фонд 417, Опись 1, Дело 893, Листы 318-320; 한편 일본 외교사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 꼬르닐로프로 (고베를 거쳐 제물포에 입항함)부터 사관 5명, 무장병 107명을 인솔하고 대포 1문, 말 총 37필을 거느리고 지금 육로로 상경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이법진 일파가 춘천 폭도와 백을 통하는 것 같으며... 춘천의 폭도를 진압하지 못하도록 우리(일본)을 억압하기 위하여 우리 수비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제하는 목적”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録』(국역본), 第10卷, 本省來機密公信 (68), 機密送 第96號, 1896년 12월 8일.

18) АВПРИ, ф.150, оп.493, д.7, лл.22-33об.

19) Р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98~146.

20) РГИА, ф.560, оп.28, д.24, лл.54-69.; 당시 일본은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임무가 시위대의 교육에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 임무가 한국의 군제에까지 확대될 수도 있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교관단 문제로 강력하게 항의할 경우 고종이 환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간섭을 자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駐韓日本公使館記録』(국역본), 9卷, (62) 機密 第92號, 1896년 11월 18일.

21) 당시 러시아는 일본이 이 사건을 준비했으며, 실행을 조선인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이 사건의 주모자가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것이다.; РГИА, ф.560, оп.28, д.24, лл.71-75.

것이 파천 이후의 고종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종의 환궁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족의식의 성장이다. 두 번째는 민영환이 특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당시 러시아에 요청했던 것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²²⁾ 셋째, 이권 침탈과 국가의 권위 회복 때문이라고 한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의 경우 동의하기 힘들다. 사실 군사교관단의 경우, 파천한 국왕이 군사를 초청하자 러시아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러시아에 맡긴다.’는 고종의 결심으로 받아들였다.²³⁾ 물론 고종의 입장은 “앞으로 일본의 군사교관단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러시아 교관단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²⁴⁾ 여하튼 죽음의 문턱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환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두 가지이 환궁 이유 모두 적절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의 경우는 아관파천을 하지 않았다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이 이권을 침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말이다. 한편 국권회복이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러시아 육군무관 스트렐비츠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스트렐비츠키는 자신의 12월 13일자 보고서²⁵⁾에서 조선의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조선에는 몇 개의 정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밝힌 후, 각 정파별로 고종의 환궁을 주장한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 정파인 보수파의 경우, 민족주의에 해당되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이 속해있는 본 정파의 과제는 매우 간단해서 “모든 급진적 개혁을 거부한 채 국가 안정의 달성, 민족적인 옛 관습과 제도에 의거한 통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관리들의 수탈 금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원하지 않았던 일본의 계몽활동을 타파하고 순수한 민족적 정책에 의한 지배를 기대하면서, 아관파천이 자신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담보물이라고 판단하여 조선 국왕의 이어를 매우 환영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진보주의적 테러는 중단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적 관습과 삶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트렐비츠키는 민왕후와 민씨 일가가 군림하던 시기에 제정된 과중한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까지 적지 않은 것이 이루어졌음이 사실인데도 국왕이 러시아 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나타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고 있다. 즉 첫째로는 조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수의 책임이 외국인의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백성들이 조선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러시아 육

22) 당시 고종은 러시아에게 교관단의 파견 이외에도, 일본의 돈으로 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싫으니 3백만 엔 규모의 차관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23) РГВИА, ф.448, оп.1, д.9, л.1.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Б.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2004. глава 6.

25) 발송은 1894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다.; Р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98~146.

군무관은 바로 이들이 국왕을 납치하여 강제로 환궁시키고자 모의를 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국왕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 “러시아 국기 아래서 보장된 평온한 삶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환궁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환궁을 늦추는 이유로 서울의 치안이 불안하고, 새로운 궁궐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복상기간 등을 운운했다고 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민족적 정파라고 할 수 있는 보수파의 정치적 강령은 1) 왕비의 장례 2) 탈상 3) 국왕의 환궁 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²⁶⁾

한편 보수파에 속하는 백성들은 “조선이 겪고 있는 현금의 모든 어려움은 나라가 폐쇄적이고 은둔적인 생활에서 분리되어, 문화적으로 이방인의 세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야기된 것인 만큼, 중국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가 최근 반세기를 역사에 있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트렐비츠키는 ‘국왕이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현재 반동의 시기가 도래하고’있으나, 러시아의 영향력은 공적인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실로 거대해졌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과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중국은-역사주)조선 민족의 모든 내면적 세계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양의 정신적 지주로 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는 적들로부터 조선을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강대하고 우호적이지만, 어쨌든 이방인이며 야만적인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현 상황이 러시아가 이런 표면적 보호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스트렐비츠키는 보수파가 조선 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적대적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나, 조선의 국왕과 그 위정자들이 채택한 잘못된 정책을 러시아의 영향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바로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내정에 간섭하면서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보았다. 즉 러시아가 조선민족의 ‘자유와 명예’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파는 ‘민족적이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친미파’다. 이들은 주로 ‘프로테스탄트 선교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스포츠, 상이한 모임들, 정치적 선전 등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기보다는 계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저항의 의식을 가르치며, 정부의 불법적 행동이 저항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았다. 이 개신교도들이 “독립신문(The Independent)”을 창간했으며, 외형적으로는 서재필이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활동 중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발행되는 신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그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무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신문은 영어

26) 위의 문서. 이하 위의 문서에서 인용되었다.

와 조선어 두 가지로 간행되는데, 무지한 일반 대중도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아는 한글 알파벳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조선인의 특성에서 확인되듯 계몽적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들과 서재필은 백성들은 물론 국왕에게서도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만큼은 국왕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의 신의정부와 최고지배층 내에서 다수의 강력한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스트렐비츠키가 강조한 것은 이 친미파와 일본의 결합이었다. 즉 일본 언론과 일본 내 영국 언론은 이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언론과 이 세력이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상대로 투쟁하려 든다는 점이다. 즉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독립협회(Independent Club)”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고, 여기에 이완용, 안경수 장군(협회 대표), 서재필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아직은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한 만큼, 입헌군주제에 대한 호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했으며,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 기공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 외교대표도 그들이 발송한 초대장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일본공사 가토 씨만이 의식의 거행을 위해 참석 중인 일본인들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는데, 조선인은 자신의 독립에 대해 다름 아닌 일본의 노력에 고마워해야만 한다는 식의 미묘하게 비꼬는 축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이런 활동이 러시아가 지지하는 조선에서의 현존 질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조선의 국가적 이상은 물론,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익 및 극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위해서도 해롭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에서 일본세력, 즉 친일파 세력 역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본인들은 초대받지 않은 계몽자들이지만, 일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고, 이른바 ‘뒤에서 힘써 준다는 것,’ 즉 흔히 말하는 인맥이라는 것으로 인해 조선 내에 친일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은 근무, 재산, 무역, 가족적 이익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인과 상당히 밀접해지고 있으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일본인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계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친일파들은 국왕이 세운 현재의 체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국왕에 의해 국내에 확고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한 이들인데,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이른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의 지지자들은 현 체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정파들, 즉 입헌주의 친미파와 민족주의적 보수파를 손에 넣으려 노력하고 있는바, 국왕 납치에 가담했던 보수파의 일부가 이미 일본 공사관과 관계를 갖고 있음이 확실하며, 심지어 국왕의 호위를 일본 경비병에게 넘기겠다는 제의까지 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 친일파의 든든한 지원세력이 바로 일본수비대이다.

스트렐비츠키는 마지막으로 친러세력과 조선 내에서 러시아 영향력의 가장 큰 지지대인

국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민왕후의 낭비벽, 가혹한 세금, 민씨 가문의 수탈로 인해 갑오농민운동이 발생했으며, 전적으로 부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고종은 러시아대표의 조언을 듣지 않고 부인(민왕후)의 조언에 따라 예고도 없이 중국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여 전쟁이 발발했다. 이에 민왕후는 러시아의 동조자가 되었으나 결국 미우라에게 살해되었다고 언급했다. 즉 스트렐비츠키는 국왕의 성격이 ‘매우 수줍음을 타며,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지만 ‘업무상의 그는 유약하고 불안정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서 자신과 정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강력하고 집요한 인성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에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왕비의 암살자들에 대한 복수’라고 했다.

스트렐비츠키는 ‘국왕이 자신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자신의 연약한 통치력, 왕비의 낭비벽, 민씨 가문과 양반 전체의 무절제한 지배, 그 결과로서 증대된 대원군의 영향력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에 의해 극단에까지 치달은 백성들의 감정 등을 고려한 적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일본의 테러가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린 현재, 조선의 국가 체제는 점차 과거의 형태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국왕은 예전과 같이 자신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관매직을 일삼고 있으며, 관찰사들에게는 서신을 발송하여 자신이 지출한 자금을 10배로 보충하도록 독려하고 하고 있다. 이 매관매직이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이를 남용한 박정양이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감스러운 점은 백성들이 러시아 공사관의 사무실과 현재 국왕의 내각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왕을 둘러싸고 있는 친러파라는 관료들 역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친러파 인물들은 새로운 러시아 대표가 오면 러시아의 대조선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국왕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출세를 도모한 이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홍륙(金鴻陸)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홍륙의 이런 행위가 다른 이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국왕을 둘러싸고 간계와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러시아에게 전가하며, 국왕과 정부의 내정 활동이 러시아대표의 압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리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친러파 관료라고 했다.

이렇게 유약하고, 낭비적인 국왕과 협잡꾼에 가까운 친러파 관료들로 인해 조선에서는 러시아 영향력 강화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들에게 절약과 근검을 강조한 베베르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²⁷⁾

27) 앞의 문서. 실제로 군부대신이었던 이창근은 러시아 장교들의 공정한 재정 운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조선인 장교들에게 상대로 하여 러시아 교관들의 권위를 훼손시키려 했다. Афанасьев 1-й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 - 1898 г.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 1898, N 11. Спб.

IV. 환궁 이후 각 정파의 활동

스트렐비츠키는 조선 국왕의 환궁이 보수파의 승리라고 보았다. 고종은 환궁 이후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1년 전 우리가 궁궐을 떠난 이후, 국가의 업무는 쇠락으로 치달았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외국 공관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대신들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경운궁으로 환궁했으니,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 대사가 걱정스런 상황에 처한 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서투른 국정에서 기인한다.”²⁸⁾

의외의 포고문을 접한 스트렐비츠키는 ‘국왕의 아관 체류 당시 불만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반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으며, 백성들은 외국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 그러나 실제로는 양반들 스스로 형성한 무질서를 더 걱정했다’고 지적했다. 스트렐비츠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고종의 환궁 이후 각 정파들은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보수파는 조선에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것들과의 투쟁을 전개하여 질서의 확립, 즉 궁극적으로는 오래된 민족 전통, 법률 그리고 고래의 통치 형태를 확립하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궁을 성공시킨 이들은 한동안 부단히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아관파천에 동조한 이들을 처벌하고, 모든 새로운 법률 규정을 폐지하며 외국 병사들을 추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왕은 국왕대로 환궁 이후 왕실이 세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다양한 개인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국왕은 각 도에 무한전권을 파견하여 감영의 업무를 검열하도록 했으며, 이에 전권들은 금품을 강탈하기 위해 직권을 악용하여 전국에서 상소가 올라왔다고 한다.²⁹⁾

환궁 이후 일본의 태도는 매우 노골적으로 변했다. 1897년 4월 한국에서는 일본공사가 영국공사에게 “베베르가 160명의 러시아 군사교관단 고빙문제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것은... 한국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러시아 공사가 아닌 “군사사절로부터 나온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에 위해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여 영국 공사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는 “영·미가 공동전선을 펴서 러시아인의 고용에 대항하는 영·미인 고용을 제안”할 것을 언급하여 미국과의 공조를 모색하기도 했다.³⁰⁾ 즉 영·미와 공조하여 러시아의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것이었다.

28) Р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13~14об.

29)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매우 다양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곳에서 특사가 상인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직위 매수대금을 노리고 관헌을 경질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가족이 지닌 토지 매매를 강요하여 그 돈으로 그 가족 중에서 체포된 사람의 방면 대금을 지불토록 했다는 것이다. Р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13~14об.

30) 이민원, 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 『군사』 제44제, 2001., 313-314쪽.

또한 일본은 한성각서와 모스크바의정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 러시아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국 내에서 “최악의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³¹⁾는 소문을 유포시켜 여론을 선동했으며, 한국 일부에서는 교관단 초빙을 반대하는 상소가 있기도 했다.³²⁾ 즉 일본의 가토 다카아키는 고종과 한국의 고관들을 상대로 “유럽인에 대응하여 아시아인들이 투쟁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러시아는 조선을 미워하며... 러시아의 철도가 완공되는 날은 조선 자주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³³⁾ 또한 외국인들마저도 ‘역사적 예’를 인용하여, “불가리아로 초빙된 러시아 군사교관들이 처음에는 군사교육에 종사했으나, 중국에 가서는 자신들이 훈련시킨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국왕을 체포하여 압송한 후, 불가리아를 러시아에 종속시켰다.”고 고종에게 고했다. 또한 군사 교관단 업무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어 일본군 경비대 내에서 소요가 일고 있는 중이며, 조선 국왕이 새로운 러시아 교관단을 영입할 경우 일본군이 궁궐을 공격할 결심을 내렸다는 식의 유언비어도 유포시켰다.³⁴⁾ 이런 사실을 언급한 스트렐비츠키는 ‘영국인들의 특성을 새삼 규정할 필요 없이, 미국만을 언급할 경우, 이러한 상황은 최소한 미국인들이 조선에서 더 이상 중립적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³⁵⁾

또한 일본 매체들은 러시아가 조선에서 군사 교관단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의정서의 위반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일본 군대는 겨우 10명의 유럽 군사 교관단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21명의 추가 교관단 초빙이 결국은 조선의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⁶⁾

이 모든 것은 결국 러시아의 영향력 제거를 목표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심지어 1897년 5월초부터는 야간에 협박투의 격문이 각 도시에 게시되었다. 이 격문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취한 모든 행동들을 선행으로 치부하면서, 현재 조선의 불행은 그 모두가 배신자들이 국왕이 일본의 우정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도록 강요한 것 등등의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격문이 결론 부분에서는 정해진 어떤 날에 이 배신자들은 죽음에 처해질 것이니 백성들은 놀라지 말라고 되어 있었다. 스트렐비츠키는 이 격문이 ‘그 언어나 한자의 독특성에 기초하여 따져보면’ 조선인들, 그 중에서도 궁정과 가까운 인물 중의 그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즉 국왕의 공포를 극대화시켜, 왕비 민씨의 장례를 재차 연기시킴으로써 고인의 유골 보호에 배치된 이들, 왕비의 묘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업무와 연관된 이들, 장례절차의 조직에 종사하는 이들 등, 이 모든 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원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더 확보하려 했다

31) 독립신문, 1987년 5월 6일

32) 독립신문, 1987년 5월 27일

33)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1979. с. 147.

34) РГАВМФ, ф.9, оп.1, д.31, лл.13~14об.

35) 위의 문서

36) 위의 문서.

는 것으로 해석했다.³⁷⁾

V. 결 론

스트렐비츠키는 고종의 환궁 원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 그의 보고서를 보면 환궁 이전과 이후 조선 정계 내에서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고종의 환궁 원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각 정파들의 이익이다. 보수파는 유교적 전통에 입각하여 고종의 조속한 환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궁 이후에는 전통사회의 건립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친미파는 독립신문을 통해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과 결탁하여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에 투쟁했다는 것이다. 을미사변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었다면, 아관파천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사건이었다. 청국이 패전한 상태에서 극동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과 손을 잡았다. 특히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것은 바로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이다. 청일전쟁 이후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설립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이 일본 덕분이라는 식의 연설을 했다. 훗날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 9월 13일 서울에서는 전체 외국사절단이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 알현 석상에서 고종의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알현이 끝난 뒤, 오후 3시에 창덕궁에서 가든파티를 주최했다. 파티 테이블의 정 중앙에는 설장으로 만든 ‘독립문’이 있었다. 이 독립문을 가운데 두고 이토의 맞은편에 박제순이 앉았다.³⁸⁾ 이 독립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셋째, 친러파와 고종의 경우다. 이들 모두는 베베르와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깨끗한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부정축재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계파 내에서도 서로 영향력 확보를 위해 투쟁했으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환궁이라는 카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궁 이후 러시아 군사교관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도적인 부정의 흔적이 보였다고 한다. 즉 각 대대에 배치된 장부상의 인원과 실제 인원 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³⁹⁾ 고종 역시 브라운이 제공하는 왕실 경비 50만 달러

37) 위의 문서.

38) 서울주재 러시아 총영사 게로르기 안토노비치 플란손의 일기, 1906년 8월 31일(9월 13일) 참조.; ГАРФ.ф.818,оп.1,д.215,лл.1-169.

39) 이 외에도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 12달러,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군부대신에게 지불해야 했으며, 부자는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만 했다. 만약 부사관을 멀리 내보내야 할 경우, 군부대신은 받은 돈을 전액 되돌려주어야 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군대임무가 원만하게 수행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Афанасьев 1-й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 - 1898 г.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 1898, N 11. Спб.

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종은 파천 중에도 매관매직을 주저하지 않았다. 베베르가 이것을 만류하며 간섭하면서 고종이 불편을 느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고종의 환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일 수는 없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궁궐에서 집무하고 거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당시 러시아의 무관이 작성한 자료인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자료를 통해 이 시기를 살펴본 것은 이를 통해 첫째, 일본의 자료와 교차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영미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해 그가 남긴 글은 우리의 자화상을 밝히는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방인은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모습을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 한국을 둘러싼 각국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되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한국의 내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역사는 꾸며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 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트렐비츠키의 자료에 기초하여 글을 작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부정축재, 비리, 부패, 모략, 음모, 상호비방, 도를 넘은 권력투쟁, 사치, 낭비, 잘못된 출세욕, 책임전가 등이 만연한 사회는 절대로 생존할 수도 따라서 발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다시 보는 사건과 현장

한리관계의 형성

- 19세기 중후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상을 중심으로 -

이재훈 (동국대)



한러관계의 형성

- 19세기 중후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상을 중심으로 -

이 재 훈 (동국대학교)

목차

- I. 서론
- II. '조약'체결 이전의 양국 간 교역
- III. '조약'체결 이후의 양국 간 교역
- V. 결론

I. 서론

1860년 러시아가 중국과의 북경조약을 통해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국경을 접하면서 접경지대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서로의 필요에 의한 교역이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이 같은 비공식교역은 후에 국가 간의 근대 교역체계 수립을 통한 공식교역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1884년의 조러수호통상조약(이하 '조약')과 1888년의 조러육로통상장정(이하 '장정')이 그것이다. 두 조약의 체결로 양국의 교역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비공식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교역이 해당 국가의 보호와 통제를 받는 공식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중후반의 한러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과거에는 주로 양국의 조약 수립과정과 조약의 성격,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동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¹⁾ 따라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정치적 양상에 종속된 부차적이고 제한적인 요소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경제관계의 대부분은 실체가 아닌 조약과 규범을 통해서만 논의되었다. 하지

1) 최문형, 「한러수교의 배경과 경위」,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임계순, 「한러밀약과 그 후의 한러관계(1884-1894)」, 같은 책; 신승권, 「구한말 한러관계의 조망 -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4, 1989 등.

만 근래 들어 해당 시기의 양국 간 경제교류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물들이 생산되면서 개항기를 전후한 한러 경제관계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²⁾

이 글에서는 정치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양국 간 교역의 측면을 고찰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시기 양국 간 경제관계가 정치 혹은 군사관계만큼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한러관계 형성 초기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정치나 군사관계와 연동되어, 혹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면서 정치나 군사적 측면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당시에 전개된 양국 간 교역을 1860-1880년대 한러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수행된 비공식적 국경교역의 동기와 교역 추이, ‘조약’과 ‘장정’ 체결을 기점으로 한 양국 간 교역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실질적 교역 양상을 조망한다.

II. ‘조약’ 체결 이전의 양국 간 국경교역

1. 교역 동기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이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두만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함경도와 연해주 사이에 비공식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두 지역 사이의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역은 당시 양 지역이 각기 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우선 연해주의 상황을 보자. 당시 러시아는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토에 대한 식민화에 고심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연해주까지 확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완전한 장악과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악과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럽지역 러시아와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와 일정한 수의 군대 및 주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지 확보가 선결과제였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유럽지역 러시아로부터의 이주를 통해 아무르 강 유역을 따라 교통로와 식량기지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혹독한 기후, 기대에 못 미치는 이주민 수, 수송상의 어려움, 식량 생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³⁾ 그리고 오랜 기간 연해주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기지의 역할은 한국, 만주, 몽골 등으로 하여금 담당

2) 박노벽, 『한러 경제관계 20년 1884-1903』 (한울, 1994);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28, 2004; 썸비르제바 따찌야나, 「19세기 후반 조러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 - 러시아의 조선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김재호, 「개항기 원격지무역과 ‘회사’ - 대러시아무역과 경성천일회사」, 『경제사학』 27, 1999;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В РАН, 2004) 등.

3)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화정책에 대해서는 A. 말로제모프 저,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12-30쪽 참조.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요컨대 러시아에게 한국은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한 연해주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 중 하나로 인식되다.

한편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된 함경도의 상황을 보자. 함경도는 전 지역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반면, 어업, 수렵, 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농산물 구입을 위한 생산물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한국의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⁵⁾ 이에 더해 함경도는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이래 중국과의 사이에 북관개시가 운영되고 있었다. 성립 초기의 개시는 중국의 요구에 의한 단순한 조공무역의 성격을 가졌지만, 17세기 후반부터 함경도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생활조건이 변하면서 개시는 단순한 조공무역이나 주민들의 생산품 교환을 위한 장소 뿐 아니라 전문적인 무역상들까지 참여하는 공식·비공식 교역의 장으로 변화되었다.⁶⁾ 19세기 후반부터는 교역행위가 개시와는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교역물품도 곡물, 직물 등의 일상용품으로 확대되었다.⁷⁾ 이 같은 공식·비공식 교역의 오랜 경험은 함경도 주민들의 대외통상의식을 일찍부터 고양시켜 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접경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교역상대를 제공하는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높은 대외통상의식을 가지고 있던 국경 인근 지역민들은 중국과의 사적 교역 혹은 밀교역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인들과의 교역을 추진해 나갔을 것이다.

한편 함경도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양국 간의 비공식 국경교역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19세기 후반 함경도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경제위기는 전국적 현상이었다고는 하지만 함경도의 상황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한국인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했다.

사실 한국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양국이 접경하기 이전인 1850년대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주가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된 년도는 1863년이며,⁸⁾ 이후 한국인의 연해주 이주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⁹⁾ 특히 1869년과 1870년에 극심한 재해가 계속되자 함경도 주민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대규모로 집단이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¹⁰⁾ 이렇

4) K. A. Скальковский, *Российская торговля в Тихом Океане* (СПб, 1883), с.65.

5) 조선 후기 함경도의 상업성장에 대해서는 고승희, 「18, 19세기 함경도 지역의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역사학보』, 1996, 151쪽 참조.

6) 북관개시에 대해서는 고승희, 「조선후기 북관개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1997 참조.

7)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육진과 만주지역 교역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003, 182-183쪽.

8) 한국인 이주에 관한 최초의 공식문서는 1863년 11월 30일 노브고로드스키 초소장인 레자노프가 연해주총독 카자케비치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레자노프는 몇 명의 한국인이 찾아와 지신허(地新墟) 강 어귀에 20가구의 한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 보리스 박 저, 이영범, 이명자 공역, 『러시아제국의 한인들(극동기)』 (청주대학교 출판부, 2001), 40쪽.

9) 한국인의 이주가 공식문서로 확인되고 4년이 지난 1867년에 지신허, 연추(延秋), 시지미(紫芝味) 등에 있는 3개의 한인마을에만 1,801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게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이후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한국산 상품의 수요자로, 그리고 양국 간 교역을 담당하는 당사자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양국 간의 비공식 교역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교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행동

애초 러시아정부는 한국과의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교역관계 수립을 추진했었다. 즉 러시아 외무성은 1865년에 중국 주재 공사 블란갈리(Влангали)에게 한국과 교역할 경우의 이해득실과 교역수단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¹¹⁾ 이는 “한국정부가 외국에 [판독불가] 개방하는데 동의한다면, 한국이 시베리아의 교역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¹²⁾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블란갈리는 정부 간 교섭은 중국의 불만을 살 뿐 아니라 유럽 열강들로부터도 견제를 받게 되므로 장래 한국에서 향유할 수 있는 러시아의 통상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의 ‘제한적인 국경교역’만을 제안했다.¹³⁾

사실 러시아에게 있어 한국과의 전면적 통상관계 수립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보다 컸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통상관계 수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여타 열강과의 통상관계 수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며, 러시아는 연해주의 낙후성으로 인해 한국과의 전면적인 통상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반면, 굳게 폐쇄되어 있던 한국의 대문을 여타 국가들에게 열어주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한국정부와의 국가 수준에서의 교섭을 포기하고 대신 국경교역과 관련하여 지방권력인 동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Корсаков)에게 한국 전역이 아닌 양국 접경지역에서의 통상관계를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⁵⁾

이에 1865년 여름 코르사코프는 겔메르센(Гельмерсен)을 경흥으로 파견하여 함경도 감찰사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겔메르센은 수십 명을 대동하고 두만강을 건너와 경흥부사를 통해 함경감영에 공문을 전하러 했으나 경흥부사의

10) 연해주로 건너간 한인은 1869년에만 6,543명이었는데, 도착한 조선인 가구 중 300~400가구만이 가족이나 일정한 식량을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 700가구는 빈손으로 왔다고 한다. : 썸비르제바 따찌야나, 앞의 논문, 36-37쪽 참조.

11) ‘1867년 4월 24일 러시아 관방국 부관방장이 베이징의 블란갈리 소장에게 보내는 왕복문서’, РГИА ДВ, ф.1,оп.1,д.44,лл.5-6об.

12) 위의 문서.

13) Памятники сибирской истории XVIII века. Книга вторая. 1713-1724 (СПБ. 1885), с.384. Б. Д. Пак, 앞의 책, сс.71-72에서 재인용.

14) 당시 러시아정부는 “한국의 쇠국상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 태평양 속령이 발전되지 못했으므로 한국정부로부터 (통상의) 권리를 받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유럽 열강들이 우리 대신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위의 책, с.72.

15) ‘1867년 4월 24일 러시아 관방국 부관방장이 베이징의 블란갈리 소장에게 보내는 왕복문서’, 앞의 문서, лл.5-6об.

거절로 서한의 수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해 11월에 경흥부사를 통해 함경감사에게 서한을 전할 수는 있었다.¹⁶⁾

물론 이 같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 교역 요구 외에도 러시아인이 두만강 국경을 넘어와 통상을 요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예를 들어 앞에 언급한 1865년의 지방권력간 교역 요구가 있기 이전인 1864년에도 러시아인이 경흥까지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고,¹⁷⁾ 1866년에도 “러시아 사람이 말을 타고 경흥부 두만강 변에 와서 교역을 하겠다는 등의 말로 먼저 통지”¹⁸⁾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통상 요구는 한국정부의 거부로 실현될 수 없었다. 당시 한국의 국법은 외국과의 교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고,¹⁹⁾ 한국정부는 이 같은 러시아인들의 교역요구를 국경방비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었다.²⁰⁾ 하지만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일대에 군대와 거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경지역민들에 의한 비공식교역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갔다.

3. 교역 추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교역요구 기록은 1864년에야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 의한 양국 간 국경교역은 최소한 186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1862년 여름 러시아 상인 노스꼬프는 한국인들의 국경교역과 관련하여 “우리과 중국인, 한국인의 관계는 우호적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주로 은을 구입하면서 자기 생상품의 판로를 찾고 있다. 한국 상인들은 나를 만나 러시아인들과 비밀리에 교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와의 교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²¹⁾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이미 중국과의 사적 교역에 종사하던 함경도 상인들이 러시아에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러시아인들과 교역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함경도 주민 중 상당수가 러시아와의 비공식교역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록을 통해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1867년에 “러시아인 5명이 경흥부에 와서 이르기를 경흥부민인 정재육의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저편 사람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찾아와서 돌려준다면서 해당 부사에게 글을 바쳤다”²²⁾고 한다. 이는 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교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이

16)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12쪽 참조.

17)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 5월 15일 참조.

18) 『승정원일기』 고종 3년 병인 12월 12일.

19) 『승정원일기』 고종 3년 병인 12월 13일.

20)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 5월 15일.

21) 『러시아제국의 한인들(극동기)』 앞의 책, 32-33쪽.

22) 『고종실록』 권4, 고종 4년 1월 2일.

다. 그들은 교역이 국법으로 금지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탈과 반환’이라는 사실왜곡을 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 같은 방식은 중국과의 사적 교역에서 자주 보여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1866년 경원 아산진 백안촌 주민이 집단으로 월경한 직후 중국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와 월경한 자들의 가족과 우마, 재산을 약탈해 간 일이 발생했다. 후에 이들이 중국인 복장을 한 월경 한인이었음이 밝혀졌다.²³⁾ 즉 중국 이주 한인들이 새로 개간한 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 두고 간 재산을 찾아가거나 지역민들에게 물자를 구입했으며, 남겨둔 가족이나 친족을 데려가기도 했던 것이다.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탈’의 형식을 취했으나, 이는 사실상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1866년 말에는 경흥에서 위와 유사한 강탈사건이 있었다. 경흥 삼동사 부근에 비적이 난입해 주민과 가축 등을 약탈해 가다가 경흥의 장교, 포수들과 접전을 벌인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접전 끝에 우마 60필, 술 30좌, 수레 20량 및 곡물 등을 압수하고 월경하려던 자들을 체포했다.²⁴⁾ 물론 이 경우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하지만 교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1869년에는 표류 중에 한국 관내에 좌초한 러시아 선박에 실린 물품을 경흥의 관리와 지역민들이 나눠가졌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²⁵⁾ 러시아인이 배를 버리고 떠나자 경흥부사 등이 수색을 하면서 배 안에 있던 물품을 분배했던 것이다. 이는 지역민 뿐 아니라 지방관리들 까지도 참여하는 양국 간의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사건이다. 지방관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적 교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보여진 바 있었다. 일례로 “개시읍의 수령을 비롯하여 병방, 군관, 통사배들이 사사로이 교역하며 개시규정을 어기는 일이 많았고 이 같은 행동이 상인의 활동을 자극하여 개시가 열리기 전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²⁶⁾는 1759년의 기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건은 이 같은 지방관리들의 경험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도 관성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⁷⁾

당시 양국 간에 교역이 이루어진 품목과 수량 통계는 러시아 측 자료를 통해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나타난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대표적인 상품은 소와 곡물이었다. 박 보리스에 의하면 1880년 한국의 가축판매업자들

23) 고승희, 「19세기 후반 함경도 육진과 만주지역 교역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003, 185쪽.

24) 『고종실록』 권4, 고종 4년 1월 13일; 같은 책 1월 14일.

25) 『고종실록』 권6, 고종 6년 9월 26일.

26) 『비변사등록』 137책, 영조35년(1759) 9월 3일.

27) 이외에도 국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교역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878년 경흥 서수라보의 주민들이 비류에게 배를 판매하다가 발각되었다(『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2월 5일). 또한 같은 해에 경흥부의 주민인 최중린 등은 두만강 경계에서 곡물과 서양물품을 거래하다 발각되자 비류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 도망했다(『승정원일기』 2851책, 고종 15년 6월 25일).

이 러시아로 매달 250~300두의 소를 판매했으며, 1881년에는 육로통상 총액 450,000루블 중 절반가량인 202,500루블에 상당하는 4,500두의 소를 러시아에 판매했다고 한다. 또한 1883-1884년에는 한국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의 여러 부락에 56만 루블에 상당하는 17,600두의 소와 2만 8천 루블에 상당하는 귀리 3만 6천 푸드를 판매했다고 한다.²⁸⁾

한국인들이 판매한 소와 곡물의 주요 수요자는 아무르 강 유역 주둔 병력과 이주민들, 그리고 연해주의 국경수비대 등이었다. 하지만 이외에 농지를 개간하거나 경작하는데 소가 필요했던 연해주 이주 한인들도 소를 구매하는 당사자였다. 1867~1869년 우수리지역을 여행했던 러시아 탐험가 프루제발스키는 한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국경지역의 한인 정착촌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런데 초기에 러시아는 이주한 한인들에게 토지개간은 허용했으나 경작에 필요한 소나 쟁기, 종자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개간과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조달하거나 고향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 한인들은 국경교역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수요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상품을 판매한 한국인들은 연해주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판매대금을 사용했다. 연해주에서 한국인들이 구입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통계는 1883~1884년의 것이 유일하다. 대략적인 품목과 가격 총액은 아래 표와 같다.

도표 1. 1883~1884년 한국의 대러수입 품목 및 가격

(단위 : 1,000 루블)

품목	1883년	1884년
옥양목	200,000	276,000
캘리코 직물	15,000	19,000
드렐 직물	35,000	49,000
염색 캘리크 직물 및 여타 면직물	8,000	7,000
머슬린 직물	14,000	11,000
남경 무명	60,000	82,000
무명솜	18,000	28,000
합계	350,000	472,000

출처 : ‘1883년-1884년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간의 교역 관련 자료’, Центрросархив РСФСР ДВ. Томск, ф.702, оп.7, д.5, лл.2-4.

위의 표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주에서 한국인들의 구매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갔

28) Б. Д. Пак, 앞의 책, с.91 참조.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통계는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적이라는 면과 한국인이 구입한 모든 물품을 망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한국인들은 도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물품의 구매를 위해서도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도표에 제시한 직물제품 외에 구리제품과 도자기제품도 이주 한인들이 구매하는 물품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²⁹⁾

한편 도표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여러 품목 중에서 특히 영국산 면직물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물품이 교환되는 장소는 주로 노보키예프스크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들은 1884년 한 해 동안 옥양목 2만 필과 영국산 드렐면직 1,500 필을 포함하여 10만 루블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으며, 러시아산 직물을 구입하는 데는 단지 7,500루블을 사용했다.³⁰⁾ 당시 러시아산 직물이 영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던 이유는 제품의 질 보다는 가격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회사의 직물은 품질이 우수한 반면 한자 당 최하 18코페이카로 판매되었으나, 영국산 직물은 최하 10코페이카라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³¹⁾

이상과 같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공식통상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함경도 북부의 러시아 접경지역에서 양 지역민들 사이에 물물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는 밀무역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지만 연해주나 함경도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금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혹은 이주하고 혹은 교역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호구를 위하거나 이익을 좇는 그들의 행태를 엄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³²⁾ 또한 러시아 역시 교통상 포스예트(Посыет)가 1874년에 작성한 서한에서 “연해주와 아무르 지역은 곡물, 가축, 노동력 등이 부족하므로 이 모두를 갖춘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³³⁾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해주와 아무르 지방에 부족한 곡물, 가축,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교역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밀무역과 인적교류가 계속 이루어졌다.

29) ‘1885년 6월 20일 연해주 주지사에게 보내는 한국과의 교역자료’, Центргосархив РСФСР ДВ. Томск, ф. 702, оп. 7, д. 5, лл. 5-7.

30) 위의 문서 참조.

31) 위의 문서

32)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1월 17일 참조.

33) К. Н. Посыет, "Прекращение ссылки в Сибирь", Российская старина, XLIX(1899), No.7, с.52.

III. 조약 체결 이후의 양국 간 교역

1. 양국 간 해상교역

1876년 한국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도 한국과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1880년 3월에 남우수리 변경 국경위원 마튜닌(Матюнин)을 경흥에 보내 통상조약 체결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한국정부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³⁴⁾ 1882년 한국이 서양국가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는 재차 공식 통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교섭을 재개했다. 애초에 러시아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을 들어 한국이 서양국가들과 체결한 기존의 통상조약들과 달리 육로통상 문제를 주요안건으로 제기했다.³⁵⁾ 하지만 두만강 유역의 3국 접경지대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반대와 한국의 거부로 러시아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³⁶⁾ 이렇듯 육로통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러시아는 일단 해상무역에 관한 조약만을 체결하고 육로통상 문제는 추후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1884년에 양국 간의 해상교역을 규정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해상교역만이 규정된 ‘조약’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일련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 상선대가 없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 그곳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어오거나 나갈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상품의 운송은 외국인들이 장악할 것이다. 한국이 국경을 폐쇄하면 연해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³⁷⁾이라는 동시베리아 총독 아누친(Анучин)의 언급은 ‘조약’에 대한 러시아 측의 비판적 시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어떻든 ‘조약’의 체결로 양국은 개항장을 통한 공식교역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누친의 비판과 같이 연해주의 산업상황이 열악하고 태평양에 상선을 보유하지 못한 러시

34) Б. Д. Пак, 앞의 책, c.93; 『고종실록』, 고종 17년 2월 27일.

35) 일례로 당시 친진 주재 러시아 영사였던 베베르(Вебе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수리 지방은 인구가 적고 농업, 공업 발전이 뒤져있어 이 지역의 인구,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민을 위한 식량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무역 외에 조선과 중국 및 만주국경을 통한 육로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과는 통상조약의 부재로 육로교역이 국경관리들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공공연하게 밀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육류는 조선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과의 조약체결이 필요하며 우수리 지방에 대한 식량 및 육류 공급을 위한 육로교역을 합법화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 박노벽, 앞의 책, 14쪽.

36)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과 러시아 국경은 두만강 하구 일부로서 이를 육로국경으로 보기 어렵고, 회령과 경흥에서 1년 1회 정도의 무역장이 열리기는 하지만 이를 육로통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로통상조약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양국의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이 상호 근접하므로 조선이 타열강과 체결한 바와 같은 해상무역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책, 13쪽.

37) Б. Д. Пак, 앞의 책, c.135 참조.

아의 교역량은 여타 열강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조약’ 체결 이후 한국의 대외(해상)교역액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한국의 해상교역액

(단위 : 달러)

	1891	1892	1893	1894	1895
중국	2,180,913	2,200,715	2,039,783	2,226,821	2,211,324
일본	6,424,172	4,814,414	3,492,157	5,697,633	8,205,166
러시아	17,727	27,095	46,331	218,572	153,531
계	8,622,842	7,042,224	5,578,271	8,142,778	10,570,021

* 출처 : 『朝鮮海關年報 (1885-1893)』, 亞細亞文化社, 1989 참조.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891년부터 1895년까지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1891년과 1892년 사이의 1.5배의 성장을 시작으로 1893년 1.7배, 1894년 4.7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상교역 증가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역량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양국 간 해상교역량은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전 기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전체 해상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1년 0.20%, 1892년 0.38%, 1893년 0.83%, 1894년 2.68%, 1895년 1.45% 등이었다. 한국과 직접적인 해상교통망을 가지고 있던 3개국(중국, 일본, 러시아)³⁸⁾ 중 하나인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 같은 비율의 교역량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극동러시아의 경제상황에서 찾는 것이 옳을 듯하다. 경제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매우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해상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⁹⁾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자국산 물품을 수출하기 보다는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의 제품을 재수출하는 중계항의 역할만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소와 곡물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품목 이외에는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에 더해 1860년대부터 지속

38) 러시아의 경우 1891년 5월부터 셰벨레프(Шевелев) 기선회사 소속 기선들이 한국 개항장들에 정기적으로 운항했다. 셰벨레프 기선회사 소속 선박의 한국 개항장 출입통계는 『朝鮮海關年報 (1885-1893)』, 亞細亞文化社, 1989 참조.

39) 1888년 5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회의에서 아무르주 총독 코르프와 외무성 아시아국장 지노브예프의 견해가 채택되었는데, 회의에서 그들은 “매우 가난한 나라인 조선은 러시아에게 유익한 통상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태평양에 인접한 러시아령에서 ...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입장을 통해 한국과의 통상관계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A. 말로제모프 저, 석화정 역, 앞의 책, 40쪽.

되어온 비공식적 육로통상으로 해상을 통해 교역되어야 할 물품의 상당부분이 흡수되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을 합해도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2. 양국 간 육로교역

국경교역이 차츰 확대되면서 러시아는 양국 간의 공식적인 육로통상 관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지방정부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식적 육로통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노력은 1860년대 중반부터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한국정부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약’ 협상과정에서도 러시아에게 육로통상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러시아는 ‘조약’ 체결 직후부터 공식적인 육로통상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재개한다. 1885년 한국에 부임하는 베베르는 외무성으로부터 한국에서 수행해야 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훈령을 받았다. 이 훈령에서는 베베르에게 양국 간의 여타 정치적 문제 해결 외에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지시하고 있었다.⁴⁰⁾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1885년부터 양국 간에 육로통상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두만강 양안 국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 창설, 관세율 인하, 소의 수출세 면제 등을 요구했으나⁴¹⁾ 중국의 방해, 한국의 회담 기피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는 자신의 요구를 포기했으며, 1888년 양국 간에 ‘장정’이 체결됨으로써 두만강 하류에서 양국 간의 육로를 통한 공식적 통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⁴²⁾

‘장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육로통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 역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연속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양국 간 육로통상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이러한 교역의 많은 부분이 국경관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양국 간 육로교역에 대한 공식통계는 단지 일정한 물품에 대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만이지만 그 외에 교역규모나 경향 등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당시의 교역에 대한 공식기록은 남우수리 변경 국경위원이었던 마튜닌이 입수한 경흥세관의 교역량 통계가 거의 유일하지만, 마튜닌 본인도 인정하듯이 실제 교역량은 경흥세관 통계에 비해 2.5배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튜닌이 입

40) Копия с Высочайше утвержденной в 25 день Апреля 1885 г. секретной инструкции Статскому Советнику Веберу, АВПРИ, ф.150, оп.493, д.49, лл. 5-30 참조.

41) 위의 문서 참조.

42) ‘장정’의 협상 및 체결과정에 대해서는 Б. Д. Пак, 앞의 책, сс.172-182; 씬비르쎄바 따찌아나, 앞의 논문, 65-70쪽 참조.

43) 1893년 한국에 관한 보고서, Центрархив РСФСР ДВ. Томск, ф. 702, оп. 1, д. 1379, лл. 114-117.

수한 경흥세관의 통계와 마튜닌이 한국 상인들과의 문답을 기초로 작성한 통계를 보면 양 통계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3. ‘장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 (경흥세관 제공)

(단위 : 루블)

년도	대러수출	대러수입	합계
1890	61,230	66,697	127,927
1891	63,327	93,200	156,527
1892	59,246	99,874	159,120
1893	58,626	154,492	213,118
1894	49,258	90,789	140,047
1895	140,260	103,995	214,255

* 출처 :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89쪽; 1890년의 수치는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В РАН, 2004), с.185; 1895년 수출액 규모는 『國譯 韓國誌 - 附錄·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148-149쪽.

도표 4. ‘장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 (마튜닌 작성)

(단위 : 루블)

년도	대러수출	대러수입	합계
1894	127,826	210,028	337,584
1895	140,260	252,362	392,622
1896	113,545	148,459	262,004
1897	202,370	132,666	335,036

* 출처 :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89쪽; 1890년의 수치는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В РАН, 2004), с.185.

『國譯 韓國誌』에 의하면 실제조사와 상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마튜닌의 통계가 전자에 비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 그 정확성에서 의심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해상교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양국 간 해상 교역량은 1888년 ‘장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894년부터는 그 증가의 폭이 이전 시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튜닌이 작성한 육로교역량은 공식적인 교역이 실시되기 이전인 1883년과 비교해도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한 것인지 보다 엄밀하게 규명할 필요

가 있다. 물론 ‘장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육로교역량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고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밀의 도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에서 육로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산 소의 러시아 판매가 점차 감소되어 갔다고 한다. 교역 초기와는 달리 만주와 몽고로부터 중국인들이 공급하는 보다 체구가 큰 몽고산 소와의 경쟁에 봉착했고, 동시에 한국 북부에서 사육하는 소의 수가 비합리적인 가축 사육방법으로 인해 눈에 띄게 감소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⁴⁾ 물물교역의 관행 하에서 수출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 수출의 감소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역량에 이종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장정’ 체결 전후 한국의 소 수출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정’ 체결 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한국의 소 수출량이 체결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표 5. ‘장정’ 체결 전후 한국의 대러 육우 수출 현황

(단위 : 마리)

년도	1880	1881	1883	1884	1887	1894	1895	1896
수출량	3,300	4,500	8,800	8,800	9,350	3,700	3,500	4,000
비고	매월 250-300마리		2년간 17,600마리					

* 출처 :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В РАН, 2004), с.91 및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90쪽을 참조하여 재작성.

교역량에 있어 신빙성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 품목에 대해서 마튜닌이 작성한 통계는 당시 양국 간 육로교역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한국 상인들과의 문답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양국 간의 품목별 교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도표 6. 1894-1896년 대러수출 품목 (마튜닌 작성)

(단위 : 루블)

	1894	1895	1896
소	92,500	100,000	87,000
말	2,000	4,500	1,250
곡물류	17,212	20,665	12,400
해산물	4,395	940	45
견포, 아마포	1,400	1,950	1,700

44) 『國譯 韓國誌』, 위의 책, 590쪽.

뚝자리	2,250	4,000	1,000
작은 배	5,000	2,500	2,000
보습	750	1,500	2,000
도끼	740	1,200	1,600
쇠술잔	640	1,400	1,800
종이, 낫, 건초 및 담배 절단기(작두)	289	1,605	2,750
계란	200	-	-
총계	127,376	140,260	113,545

* 출처 :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92쪽.

도표 7. 1894-1896년 대리수입 품목 (마튜닌 작성)

(단위 : 루블)

	1894	1895	1896
각종 직물	179,930	208,100	127,720
옷 및 담요용 솜	16,560	39,950	18,500
아닐린 염료	1,250	800	400
철 및 철제품	1,760	1,300	800
수피 및 여린 가죽	1,528	1,250	625
석유, 초, 실, 바늘 및 성냥	9,000	962	414
총계	210,028	252,362	148,459

* 출처 :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92쪽.

위의 도표를 통해 ‘장정’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였음을 알 수 있다. 소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94년 73%, 1895년 71%, 1896년 77% 등이었다. 이 시기에도 소의 주요 수요자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였다. 함경도 상인들은 이들에게 생우를 공급했고,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들 가운데는 러시아인에게 우육을 공급하는 도축판매업자도 있었다. 청일전쟁 당시 연해주 한인촌을 방문했던 비숍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러시아군대에게 육류를 계약판매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급되는 육류는 대부분 한국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⁴⁵⁾

한국의 수출에서 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곡물류였다. 이 역시 ‘장정’ 체결 이전과 동일하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여타 품목(대체로 이를 공산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을 합한 비율은 14~22%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낮은 산업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45) I. B. 비숍 저,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4, 219쪽 참조.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공산품이 러시아로 수출되어 러시아인에게 판매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제조해서 러시아로 수출한 쇠술잔, 작두, 보습, 도끼, 작은 배 등은 대부분 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구매하여 사용했다.⁴⁶⁾

수입의 측면에서도 직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과거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액에서 각종 직물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894년 86%, 1895년 82%, 1896년 86%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영국산 제품과 러시아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92%와 3%였는데,⁴⁷⁾ 이러한 경향 역시 교류 초기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경쟁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영국산 면직물과 러시아산 면직물의 가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도표 8. 국가별 면직물 가격 비교

상품명	단위	1891년		1892년		1893년	
		수량	루블	수량	루블	수량	루블
면직물(영국제)	자	8,697	23,135	4,093	13,097	6,680	24,739
면직물(러시아제)	자	1,871	12,960	1,875	15,000	352	2,816

* 출처 : 『國譯 韓國誌 - 附錄·索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150쪽 참조.

위의 도표를 통해 영국산 면직물의 경우 자당 가격이 1891년 2.66루블, 1892년 3.2루블, 1893년 3.7루블인 반면, 러시아산 면직물은 1891년 6.93루블, 1892년과 1893년 8루블 등으로 영국산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격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제품이 한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장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양국 국경을 통한 육로교역은 교역량이나 품목 수에 있어서 이전보다 특별히 증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튜닌이 작성한 통계에 의할지라도 ‘장정’ 체결 이전과 비교할 때 교역량은 아예 크게 줄어들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통계작성상의 한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6) 『國譯 韓國誌』, 앞의 책, 1984, 592쪽.

47) 위의 책, 593쪽 참조.

IV. 결론

이상에서 19세기 중후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 양국 간 교역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국경지역의 비공식교류를 시작으로 ‘조약’ 체결에 의한 공식적 해로통상, 그리고 ‘장정’ 체결에 의한 공식적 육로통상으로 교류방식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일본, 중국 등 주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양국 간 교역의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양국 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었다. 연해주가 한국에 바란 것은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극히 적은 수의 연해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일부가 전부였고, 한국이 연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직물류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류방식의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의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비공식교역은 이 글에서 다루는 전 시기에 걸쳐 양국 간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비공식교역의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러시아와 접경한 육로를 통한 교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함경도 연안지역에 위치한 미개항장들과 러시아의 항구들을 잇는 해상교역이었다. 마튜닌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육로를 통한 비공식 교역액은 공식 교역액의 약 1.5배 이상 많았고, 해로를 통한 비공식 교역액도 “육로무역에 뒤지지 않았다.”⁴⁸⁾ 사실 이 같은 비공식교역은 함경도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중국과의 사이에 운영된 북관개시와 이를 둘러싼 비공식교역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러시아와의 접경은 또 하나의 비공식적 판로를 제공받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양국 간 교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들은 한국산 상품의 수요자였을 뿐 아니라(물론 그 양이나 액수는 보잘 것 없었다), 양국 간 교역의 당사자로 활동함으로써 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한 다수의 한인들이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직교역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48) 위의 책, 585쪽.

제3회의실 본부관 306호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19세기말 러시아인의 영토 의식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19세기 말 러시아인의 영토의식 - 안톤 체홉과 사할린섬

김 영 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머리말

체홉은(А.П. Чехов) 1890년 9월 11일 기선 바이칼호에서 언론인 수보린(А.С. Суворин)에게 편지를 보냈다. 체홉은 사할린의 섬에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늦게 누었다. 모든 나날이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이었다”고 기록했다.¹⁾

사할린섬에서 러시아 대문호 체홉을 사로잡은 ‘생각’은 무엇일까?

체홉은 정신세계의 비밀을 찾으려 현실을 파고든 러시아 대문호였다. 체홉은 후대 비평가에게 기이함, 호기심 등의 평가를 받았다. 그 중 ‘체홉의 수수께끼’(Чеховская загадка)라는 표현은 그의 문학작품의 다양한 해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

체홉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 현대작가 아쿠민(Акумин Б)은 2000년 ‘갈매기’라는 소설을 발표하여 러시아 문단에 주목을 받았다. “나는 평생 그의 희곡들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어느 한 작품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방식대로 갈매기를 덧붙여 쓰고 나니 이해할듯하다.”²⁾ 아쿠민은 체홉 갈매기의 기존 작품에 자신의 소설을 추가하는 소설책을 썼다. 그만큼 체홉의 작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고, 쉽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문학과 연극 등에서 체홉 작품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었다. 황혼을 노래한 작가 또는 미래를 꿈꾸는 작가로 해석이 달랐다.³⁾ 또한 인간의 비극적 운명 또는 제정러시아 몰락 이후 희망의 작가로 엇갈렸다. 러시아 문학가 추다코프(А.П. Чудаков)는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 곧 소극과 비극이 결합되어 있다고 평가했다.⁴⁾ 영국의 연극연구자 듀크스(A.

* 대표저서 『미젤의 시기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2012)

А.П. Чехов. Письма(편지).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463

1) Степанов А. Д. Проблемы коммуникации у Чехова. М. 2005. С.9

2) Акумин Б. Чайка: комедия и её пролалжение. М. 2000 : 오종우, 「심상치 않은 일상-체호프와 아쿠민의 희곡 갈매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2008, 41쪽

3) 김혜란, 「1940년 네미로비치-단체코의 세자매 공연과 전후의 낙관적인 체홉 공연들」, 2004, 37쪽

4) Чудаков А.П. поэтика Чехова. М. 1971. С.201 : 오종우, 『체호프 드라마의 웃음세계』, 2000, 연극

Dukes)는 체홉의 희곡을 자연주의로 이해했다. 반면에 스타이언(J.L. Styan)은 사실주의로 그의 연극을 수용했다. 반면에 하우스저(A.G. Hauser)는 체홉 희곡을 인상주의 관점으로 포착했다. 러시아 연극연구자 중 일부는 체홉과 그의 희곡을 사실주의적인 관점으로 설명했다.⁵⁾ 체홉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별 그의 인식과 작품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요구된다.

체홉은 1890년 4월 19일 모스크바를 출발, 4월 29일 예카제린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는 시베리아를 횡단한 뒤 7월 11일 사할린섬에 도착했다. 체홉은 10월 13일 사할린섬을 출발하여 12월 8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체홉은 사할린섬 여행 이후 1893년 10월부터 1894년 7월까지 ‘러시아사상’(Русская мысль)에 『사할린섬』을 연재하였다. 1895년 『사할린섬』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소설가 체홉은 그의 작품 중 소설이 아닌 현장 보고서 『사할린섬』을 썼다. 내용을 살펴보면 390여 쪽인 『사할린섬』은 1장에서 3장까지 도입부였다. 4장에서 13장까지 사할린의 감옥과 정착촌이 소개되었다. 14장에서 23장까지 사할린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⁶⁾

체홉은 사할린섬 여행 이전에 러시아형법, 금고와 유형, 사할린 관련 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는 중앙형무소 당국의 보고서, 통계문헌 해양선집 등을 연구했다.⁷⁾ 체홉은 여행 기간 중 저녁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여행관련 기록도 정리했다.⁸⁾

체홉은 유형수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모든 집을 돌아다니려고 노력했다. 체홉은 집주인 부부, 가족, 동거인, 일꾼 등을 직접 기록했다. 체홉은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 부속 인쇄소의 카드를 사용했다. 체홉은 첫 줄에 초소지 혹은 마을 이름을 기입했다. 다음으로 가옥번호와 기록자의 신분을 기록했다.⁹⁾

체홉은 사할린섬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문헌을 조사했다.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체홉은 사할린 섬에 대한 학술지, 즉 광산저널, 해양총서, 역사통보 등의 다양한 문헌을 활용했다.¹⁰⁾ 또한 체홉은 사할린 농업감독관의 보고서를 열람하며 사할린섬을 저술할 수 있었다. 체홉은 사할린 섬의 자연환경에 대해 정보가 유용하다고 밝혔다.¹¹⁾

과 인간, 13쪽

5) 김규중, 『극작가 체호프의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아사, 2009, 245쪽

6) 오원교, 「체홉의 동양인식」 『체홉탄생 15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 2010, 83쪽. 체홉은 1890년 7월 ‘시베리아에서’를 새시대(Новое время)에 기고했다.

7) 문석우, 『체홉의 소설과 문학세계』, 한국학술정보, 2003, 14쪽. 체홉은 여행 이전 65개의 자료를 모았고, 여행 이후 시베리아와 사할린섬 집필 할 때 179개의 자료를 참고했다.(오원교, 2010, 81쪽)

8) “나는 다시 산처럼 쌓아놓은 이불 위로 올라가 누워 책을 읽다가 다시 내려와 글을 쓰고 있다.”(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3) “저녁 무렵부터 새벽 2시까지 나는 책을 읽거나 세대조사표와 알파벳순 인명부에서 발췌하여 옮겨 적으면서 시간을 보냈다.”(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159)

9)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사할린섬).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70

10)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С.142-143

11)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93. 체홉은 사할린 관련

체홉에 따르면 니콜라이 샤홉스꼬이(Николай Шаховской)는 1878년 연해주 유형징역 관리관으로 임명되어 사할린 문서관리를 시작했다. 체홉은 샤홉스꼬이 재임 시절부터 ‘사할린 섬 조직에 관한 문서’가 남았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그 문서가 1890년 사할린섬 주지사 부속실에 보존되었다고 기록했다.¹²⁾

체홉은 왜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방문했을까? 그의 사할린 방문 이후 그의 작품세계의 변화는 무엇일까? 그동안 체홉 관련 문학가, 극작가, 연출가, 비평가는 이러한 의문을 품었다.

최근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그의 작품 1Q84 체홉의 사할린 여행의 이유를 주목했다. 무라카미는 “그건 홍역 같은 거야. 순수한 의미에서의 호기심”이라고 주장했다. 무라카미는 “체홉이 그 열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무라카미는 체홉은 사할린 여행을 소재로 문학작품을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 환부는 말하자면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며 “그것이 체홉이 원하던 것이었는지도 모르다”고 추측했다.¹³⁾

러시아에서는 체홉의 사할린섬 관련 1000개 정도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거기에는 문학자, 작가, 기자, 철학자, 의사, 역사학자, 지리학자 등이 포함되었다.¹⁴⁾ 그 중 체홉 전문가 문학자 추다꼬프(А.П. Чудаков)에 따르면 기존 연구는 사할린 여행이 “체홉의 사상과 작품에 미친 영향에 결정적 역할이었다”라고 인정하였다. 추다꼬프는 “사할린 여행이 인간 삶과 외부 환경의 역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자유, 육체와 정신의 상호의존성 등에 관한 체홉의 견해를 형성시켰다”고 주장했다.¹⁵⁾

한국의 일부 러시아 문학자도 체홉의 사할린섬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기존 외국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체홉의 사할린섬 여행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문석우에 따르면 체홉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괴롭혀 왔던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의식에 직면했다. 체홉은 사할린을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¹⁶⁾

김성일에 따르면 체홉의 사할린 여행은 개인적으로 어렵고 암울했던 상황, 사랑으로 인한 실망을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 그 근거로 1889년 6월 체홉의 형 니콜라이(Николай Чехов)가 사망했고, 오데사에서 배우 까라뜨기나(К.А. Каратыгина)를 만났다. 또한 체홉은 작가로서 사회적인 책무의 결핍을 반박하기 위한 시도였다.¹⁷⁾

관헌 문헌 「Отчете о состоян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е в 1889 г. фон фрикена, Приказ 349, 1888 г.」까지 검토했다.

12)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С.336-337

13) 村上春樹, 『1Q84』, 1, 문학동네, 2009, 566-547, 548쪽

14) 역사학자 뷔소꼬프는 최근 체홉의 사할린섬 관련 주식집을 출판했다. 그는 체홉 관련 러시아 주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Высоков М.С. Комментарий к книге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ладивосток. 2010. СС.6-7)

15) Чудаков А.П. Мир Чехова : Возникновение и утверждение. М. 1986 : 추다꼬프저, 강명수역, 『체호프와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04, 466쪽

16) 문석우, 2003, 『체홉의 소설과 문학세계』, 한국학술정보, 2003, 13쪽

17) 김성일, 「체홉 문학에 나타난 시베리아 공간 : 유형지에서 중심으로」, 2007, 131쪽. 에른스트 시몬스는 라디아 아빌로바와의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체호프가 여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장한에 따르면 체홉은 사할린 여행 즈음 러시아의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체홉은 1890년대 초부터 사회적 문제 중 권력과 폭력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담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았다.¹⁸⁾

기존연구는 대체로 체홉의 사할린 여행 이유를 개인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 및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에 기초한 결정이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체홉의 작품세계에 대한 변화도 제시했다.

기존연구는 대체로 사할린섬의 다음을 주목했다.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유와 사랑 및 여성과 유형수 등이 인간의 도덕적 기반으로 유지되는가 파괴되는가의 문제였다.¹⁹⁾ 체홉은 유형지에서 강요된 식민지화의 모든 체계를 보여주었다.²⁰⁾ 체홉은 비극적 운명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생명력과 경외감 및 자연의 강렬한 실존주의적 색채를 깨달았다.²¹⁾ 체홉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길락족과 아이누족에 대한 서술에서 인본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인 관찰도 보여주었다.²²⁾

하지만 기존연구는 사할린섬에서 체홉 자신을 변화시킨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여행 중 인간, 권력, 자연 중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체홉을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체홉의 사상을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라고 논쟁을 진행했다. 시베리아와 사할린 여행 중 체홉의 사상적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체홉의 시베리아와 사할린섬 여행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체홉이 바라보았던 자연과 인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체홉이 기록한 러시아의 사할린 개척역사를 추적할 것이다. 여기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한국인을 포함한 사할린에 초기 이주한 민족들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체홉이 사할린을 여행한 이후 그의 세계관의 변화를 주목할 것이다.

1. 시베리아와 사할린섬 여행과정 및 주변환경

1) 시베리아

체홉은 1890년 4월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7월 사할린에 도착했다. 시베리아 철도는 1891년 착공되었기 때문에 체홉은 기선과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다. 체홉은 4월 23일

다.(장한, 『체호프와 자연』, 2008, 한국학술정보, 36쪽) 1889년 1월 페테르부르크에서 유부녀인 여성 작가 리디야 아빌로바와 교류했다.

18) 장한, 『체호프와 자연』, 2008, 한국학술정보, 37쪽

19) Громов М.Н. Чехов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М. 1993. СС.244-245 : 장한, 『체호프와 자연』, 2008, 한국학술정보, 37쪽

20) 문석우, 『체홉의 소설과 문학세계』, 2003, 한국학술정보, 14쪽

21) 장한, 『체호프와 자연』, 2008, 한국학술정보, 37쪽

22) 오원교, 「체홉의 동양인식」 『체홉탄생 15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 2010, 90쪽

기선 알렉산드르 넵스끼(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호를 타고 볼가(Волга) 강을 향해했고, 4월 29일 예카제린부르크(Екатеринбург)에 도착했다.²³⁾

체홉은 5월 6일 중부 시베리아의 튜멘스카야 주 아바뜨스꼬예(Абатское, 튜멘에서 400km 여 동쪽) 마을을 지나갔다.²⁴⁾ 5월 12일 이르띠쉬(Иртыш) 강을 바라보며 “기슭은 높고 가파르며 완전한 황무지다”라고 기록했다. 5월 14일 강기슭에서 비와 진눈깨비가 동시에 내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후 체홉은 마차를 타고 비윤(Вьюн)으로 출발했고, 크라스누이 야르(КрасныйЯр)에서 배를 타고 두부로비노(Дубровино)으로 건너갔다. 그는 두부로비노에서 배를 타고 톰스크로 이동했다.

체홉은 5월 튜멘(Тюмень)에서 톰스크(Томск)까지 지나면서 시베리아 주변환경을 묘사했다. 땅은 갈색이고 숲은 양상하고 호수들은 두툼한 얼음으로 덮여 있고 기슭과 풀밭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다. 체홉에 따르면 튜멘(Тюмень)에서 톰스크(Томск)까지 국도 주변에는 20km에서 40km 간격으로 커다란 마을만 존재한다. 시베리아 길가에서 저택, 공장, 여관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1km 간격의 전신주와 전신선만 바람에 흔들렸다. 체홉은 시베리아 도로가 넓지만 엉망인 길이라고 기록했다. 튜멘부터 톰스크까지 숲이 없으며 아침에 비가 왔다가 저녁이면 벌써 말랐다.

체홉은 시베리아 도로가 1년 내내 통행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봄에는 진흙탕으로 여름에는 구덩이 그리고 보수로, 겨울에는 울퉁불퉁한 노면이었다.” 체홉은 시베리아의 빠른 여행이 썰매를 타게 되는 초겨울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체홉은 꼬줄까(Козулька)를 지나가면서 향후 마차 굴대와 바퀴를 부러뜨리지 않는 도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우랄에서 예니세이(Енисей) 강 직전까지 풍경이 매우 지루하다고 기록했다. “추운 평원, 구불구불한 자작나무, 물웅덩이, 호수, 5월의 눈, 그리고 오비(Оби) 강 지류의 인적도 없고 양상한 기슭. 이것이 첫 2천여 킬로미터에서 남겨진 기억의 전부이다.”

체홉은 시베리아의 자연이 예니세이 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체홉은 볼가(Волга) 강이 애수에 찬 잘 차려입은 ‘미인’이라면, 예니세이 강이 젊음을 주체할 줄 모르는 강력한 사나운 ‘용사’라고 표현했다. “예니세이는 삶이 신음으로 시작하여 꿈에서도 볼 수 없는 무모함으로 끝난다. 나는 험준한 북극해로 무시무시한 속도와 힘으로 달려가는 예니세이의 흐름을 그 광활한 기슭에 서서 바라보았다.”

체홉은 톰스크부터 타이가와 언덕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했다. 톰스크부터 토양이 쉽게 마르지 않았다. 도로의 우회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체홉은 톰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육군중위 2명과 군의관 1명과 함께 동행했다. 체홉은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까지 마차를 타고 가면서 흔들림에 시달려 잠이 부족하였다. 체홉 일행은 매 역참마다 소파에 몸을 내던지며 “이 빌어먹을 형편없는 길이라고!” 분개했다. 체홉은

23) А.П. Чехов. Письма(편지).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С.414-418

24) 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시베리아에서).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11

툼스크에서 이르쿠츠크에 도착하는 6일 동안 우편마차가 쫓아온 적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시베리아의 우편물이 날씨와 도로 사정 때문에 자주 지체되었다.²⁵⁾

1890년 7월 5일 체홉은 기선을 타고 니콜라예스크(Николаевск) 시에 도착했다. 체홉에 따르면 니콜라예스크 시는 1850년 겐나지 네벨스꼬이(Г.И. Невельской)에 의해서 건설되었다. 니콜라예스크 시는 러시아의 극동 거점 중 하나였다. 아무르강은 여기서부터 매우 광활하게 펼쳐지며 바다까지는 27베르스타였다. 이 지역은 광대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체홉은 도시 중 거의 절반의 건물이 내버려져 있는 상태를 목격했다. “창틀도 없는 그 컴컴한 창들이 마치 해골 눈구멍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²⁶⁾

체홉은 니콜라예스크에서 기선 바이칼호를 타고 아무르강을 통해서 사할린으로 출발하였다. 체홉은 바이칼 호수와 아무르 강의 기선이 시설을 잘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체홉에 따르면 기선 바이칼호는 니콜라예스크, 블라디보스톡, 일본의 항구를 운항하였다. 바이칼 호는 우편, 병사, 수감자, 승객, 관용 화물 등을 운반하였다. 바이칼호의 휴게실과 객실은 비좁지만 유럽풍으로 깨끗했다. 승객은 대부분 인텔리겐차였다. 체홉은 비싼 선박 요금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방해된다고 지적했다.

체홉은 아무르강을 향해하면서 유럽지역 러시아와 또 다른 고유한 자연환경을 느꼈다. 체홉은 아무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뿌쉬킨이나 고골을 몰랐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체홉은 아무르 강에서 ‘낯선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체홉은 1890년 7월 8일 니콜라예스크에서 바이칼호가 점심 전에 닷을 올렸고 그 광활한 풍경을 묘사했다. “낮은 고요하고 맑았다. 갑판 위는 뜨겁고 선실 안은 무더웠다. 수온은 섭씨 18도였다. 오른쪽 해안에는 숲이 불타고 있었다. 화재는 엄청났지만 주위는 고요하고 평온했다.”

체홉은 7월 8일 오후 6시 뻘론게 곶(У мыса Пронге 아무르강 하구 맞은편에 위치) 가까이 지나갔다. 체홉은 교차하는 감정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오디세우스의 마음과 비교했다. “아무르 강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곳에서 아시아는 끝난다. 눈앞에는 광활하게 아무르만이 펼쳐진다. 거의 안개 띠처럼 보인다. 이곳이 세상 끝이고 이제 멀리로는 더 항해할 수 없는 듯하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며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리라고 예감하던 그런 마음이 영혼을 사로잡는다.”

2) 사할린섬

체홉은 바이칼호를 타고 7월 9일 오후 2시 사할린 데 까스뜨리(Бузг де-Кастри) 포구에 들어섰다. 포구는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이 폭풍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1년 중 7개월이 얼음으로 덮이고 동쪽 바람을 그다지 막지 못하고 수심이 얇았다. 선박은 해안에서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닷을 내려야만 했다. 체홉은 군함 보브르함(Бобр), 뚝

25) 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26)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43-44

구스함(Тунгус), 어뢰정 두 정을 목격했다.²⁷⁾

바이칼호는 데 까스뜨리에서 하루 정박했다. 바이칼호는 7월 10일 정오 타타르 해협을 가로질러 알렉산드롭스키 초소지가 있는 두이까 강 하구로 출발했다. 체홉은 그 도착과정을 묘사했다. “완전히 거울 같은 수면을 따라 물을 분수처럼 높이 솟아내면서 한 쌍의 고래가 헤엄을 치고 있었다. 8시가 지나서 닻을 내렸다. 해안에는 사할린의 타이가 숲이 커다란 모닥불처럼 타올랐다.”

체홉은 기선 바이칼호를 타고 타타르해협을 지나면서 고래잡이 선원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체홉은 “입담배를 튀기는 고래잡이 선원들을 바이칼 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인텔리켄차들 뿐이었다.”고 기록했다.

사할린섬은 당시 3개 지구 알렉산드롭스키(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окуруг), 락스몹스키(Тымовскийокуруг), 꼬르사콥스키(Корсаковскийокуруг)로 구성되었다. 사할린은 오호츠크해에 소속되었다. 사할린은 1000km 이르는 시베리아 동쪽 해안, 아무르강 하구를 태평양으로부터 가로막았다. 섬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고 ‘철갑상어’를 연상시켰다. 사할린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45도 54분에서 54도 53분까지, 동경 141도 40분에서 144도 53분까지로 규정되었다.

체홉은 7월 11일 새벽 5시 일어났고, 몇 분 뒤 통통배를 탔다. 체홉은 선착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사할리노’(Сахалино)라는 시의 저자 14등관 두친스키(Л.Э. Дучинский)였다.²⁸⁾

알렉산드롭스키 지구(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окуруг)의 기후는 해양성이었다.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이 심했다. 낮은 연평균 기온, 엄청난 강수량, 흐린 날이 고유의 특징이었다. 알렉산드롭스키 연평균 기온은 영상 0.1도였다. 알렉산드롭스키의 겨울은 아르한겔스크보다 더 추웠고, 봄과 여름은 핀란드와 같으며, 가을은 삐제르부르크와 비슷했다.

체홉은 선착장에서 알렉산드롭스키 초소지(Алексадровский пост)까지 2km의 하수도과 가로등까지 갖춘 포장도로를 달렸다. 알렉산드롭스키는 인구가 3천명이었고, 시베리아 풍의 소읍이었다. 이곳은 섬의 행정책임자(резиденция начальника острова)의 소재지로 사할린 문명의 중심이었다. 도로 옆에 감옥이 있으나 병영과 구별되지 않았다. 체홉은 자신이 예상했던 음울한 감옥소의 특징을 전혀 띠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7월 12일 사할린섬 주지사 꼬노노비치(начальник острова В.О. Кононович)를 방문하여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체홉에 따르면 꼬노노비치는 교양이 풍부하고 독서량도 많았다. 그는 사할린에 부임하기 전 18년 동안 카라의 교도소장을 역임했다. 꼬노노비치는 말솜씨도 훌륭하고 필체도 좋았고, 인간적인 열정을 지닌 성실한 인간이라는 인상

27)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54-55

28) 체홉은 그의 이름을 ‘D’라고 기록했다.(사할린섬, 2, 58쪽) 뷔소꼬프는 ‘D’가 두친스키라고 기록했다.(Высоков М.С. Комментарий к книге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ладивосток. 2010. С.80)

을 풍겼다. 꼬노노비치는 사할린의 삶과 일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다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죠. 죄수들도, 주민들도, 관리들도 말이죠. 나는 도망가고 싶지는 않지만 벌써 두 번 노동에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기는 너무 많아요. 특히 일이 너무 산재해 있다는 사실에 더 그렇죠.” 그는 체홉에게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체홉은 7월 22일 연아무르총독(연혹룡총독, Приамурский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 남작 꼬르프(А.Н. Корф)를 만났다. 꼬르프는 7월 19일 군함 보브르호를 타고 사할린에 도착했다. 주지사는 자신의 관사와 교회 사이의 광장에서 꼬르프 환영식을 거행했다.

꼬르프(А.Н. Корф)는 꼬노노비치를 배석시킨 가운데 30분쯤 체홉을 면담했다. 꼬르프는 체홉에게 사할린의 모든 감옥과 유형지의 통행을 허가했다. 꼬르프는 체홉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개방하였다. 하지만 꼬르프는 “정치범과의 접촉을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접근을 금지했다. 7월 23일 꼬르프는 “사할린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러시아와 유럽의 어느 곳보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며 연설했다. 체홉은 “사할린의 기아, 매춘, 차별 등의 현상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청춘이 꼬르프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체홉은 락스키(Тымовский) 지구 데르빈스꼬에(Дербинское)와 도착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세대별 조사를 진행했다.

체홉은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세대조사표와 알파벳순 인명부를 발췌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체홉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의 느낌을 묘사했다. “사각거리는 소리, 속삭임, 두드리는 소리, 빗방울소리,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체홉은 8월 25일 데르빈스꼬에 마을의 교도소의 징역유형수의 작업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실렌코의 지휘아래 이전에 타간로그에서 어부였던 16명의 징역유형수들이 생선에 소금을 뿌리던 창고에 들렸다.

체홉은 8월 27일 데르빈스꼬에 마을을 방문한 주지사 꼬노노비치 장관, 락스키 지구장 부따코프(Дербинское ген. Кононовия, начальник Тымовского округа А.М. бутаков) 등을 만났다. 체홉은 그들이 지성인이자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체홉은 알렉산드롭스키 지구의 기후가 해양성이라면, 락스키 지구의 기후가 대륙성이라고 파악했다. 체홉은 두 지구의 관측소 거리가 70킬로미터에 정도로 가까웠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락스키 지구 뤼콕스꼬에(Рыковское) 마을을 방문했다. 이 마을에는 학교, 전신국, 병원, 갈긴-브라스끼(М.Н. Галкин-Враский)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었다. 체홉에 따르면 기상관측소는 전 해군소위 출신 유형수인 갈긴-브라스끼(М.Н. Галкин-Враский)가 비공식적으로 관리했다. 기상관측소가 세워진지 4년 밖에 안됐다. 하지만 알렉산드롭스키와 락스키의 기후를 비교할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었다.

체홉은 9월 10일 저녁 9시 기선 바이칼호를 타고 남사할린으로 출발했다. 체홉은 사할린 북부에 대해 익숙해져서 새로운 인상을 얻고 싶었다고 출발 이유를 밝혔다. 체홉은 선미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감상을 적었다. “내게서 영원히. 부딪히는 파도 소리 가운데, 미약하고 사악한 우수도 차츰차츰 조용해 졌다. 곧 모든 것은 사라졌고 오로지 어둠과 기

분 나쁜 악몽을 꾸고 난 뒤의 으스스한 기분만 남았다.”²⁹⁾

체홉은 꼬르사콥스키 지구(Корсаковскийокуруг)에 체류하며 현지를 조사했다.³⁰⁾ 체홉은 꼬르사콥스키 초소에서 일본영사 쿠제-산(Кузе-Сан)도 만났다. 체홉은 10월 6일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위해서 빼제르부르크호를 기다렸다.³¹⁾ 체홉은 10월 13일 빼제르부르크호를 타고 사할린을 떠나 일본, 인도, 싱가포르, 실론, 콘스탄티노플, 오데사를 거쳐 12월 8일 모스크바로 돌아왔다.³²⁾ 체홉은 12월 9일 자신의 모스크바 도착 소식을 수보린(А.С. Суворин)에게 알렸다.³³⁾

2. 사할린 개척과정 및 영토의식

1) 사할린 발견과 개척

러시아는 17-18세기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정보를 갖고 있었다. 1700년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레메조프(С.У. Ремезов)는 자신의 시베리아 지도에 쿠릴열도를 표시했다. 1779년 4월 30일 예카제리나 2세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러시아의 신민이 된 쿠릴열도 주민’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³⁴⁾

체홉은 유럽인의 사할린섬에 관한 지도 작성 과정과 명칭 유래를 주목했다.

체홉에 따르면 1787년 프랑스인 라페루즈가 동해를 탐사하면서 사할린을 반도로 착각했다.³⁵⁾ 1786년 영국인 브라우톤도 아무르와 사할린이 반도로 이어진 지도를 만들었다.

1805년 꼬루젠슈페른도 라페루즈의 지도를 이용하여 사할린을 반도로 파악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체홉은 1737년 당빌의 ‘신중국지도’에 그려진 사할린을 주목했다. 그 지도에는 “사할린의 서쪽해안 아무르 하구 맞은편에 ‘Saghalien-angahata’라고 표기되었다.” 체홉은 ‘Saghalien-angahata’의 의미를 몽고어로 ‘검은강의 암벽’이라고 주장했다.³⁶⁾ 체홉에 따르면 여기서 사할린섬의 명칭이 유래되었고 꼬루젠슈페른도 러시아지도에 사할린으로 표기했다.

체홉은 1849년 네벨스꼬이(Г.И. Невельской)가 사할린을 ‘섬’으로 바로잡았다고 파악했다. 체홉에 따르면 네벨스꼬이는 빼제르부르크에 사할린섬이라고 보고했지만 권위자에게 눌러서 그의 발견을 인정받지 못한 채 늙어갔다.

29)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사할린섬).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190

30)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дневника. 1890. 18 сентябрь.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ст. Дапрашивали в полиц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американцев-китобоев, потерпевших крушение.(А.П. Чехов.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563)

31) А.П. Чехов. Письма(편지).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С.466

32) 오원교, 「체홉의 동양인식」 『체홉탄생 15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 2010, 82쪽

33) А.П. Чехов.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С.467

34) Л.Н.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М. 1964. С.302;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 - 1875 гг. М. 1960. СС.35-39

35)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48-49

36) ‘Saghalien-angahata’는 ‘Saghalien-anga-hata’라는 만주어이다. 아무르강 하구의 섬이라는 뜻이다.

체홉은 러시아의 사할린섬 개척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1852년 네벨스꼬이는 해군대위 보쉬냐크(Лейт. Бошняк)와 흐보스또프(Хвостов)를 사할린에 파견시켰다. 네벨스꼬이는 사할린의 석탄층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쉬냐크를 띄미강(река тыми)에 보냈다. 네벨스꼬이는 사할린에 남겨진 러시아인을 조사하도록 흐보스또프를 파견했다. 체홉에 따르면 흐보스또프는 러시아인이 “토마리-아니바(Тома-ни-Анива) 마을에 1805년 8월 17일에 정착했고, 1810년 띄미 강 유역으로 옮겼다”고 조사했다.

러시아는 1853년 남사할린의 로소시만 해안(Бухты Лососей)에 무라비요프 초소지(Муравьевский пост)를 설치하였다. 무라비요프 초소지는 남사할린 러시아의 영향력 확립에 기여했지만 1875년 러일조약에 따라 폐지되었다.

1862년 러시아는 식민의 목적으로 사할린에 러시아인 8명을 보냈다. 그리고 1869년 농업연구소는 사할린섬 자유촌에 설립되었다. 농업연구소는 징역유형수들의 강제 노역을 농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868년 러시아 위원회는 사할린에 대규모 해양교도소로 설립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사할린이 대륙으로부터 거친 바다로 격리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륙과 사할린섬을 갈라놓은 해협은 “겨울철에는 완전히 얼어붙으며 들처럼 평평하고 매끄럽게 되어 원한다면 누구나 걸어서 혹은 개썰매를 타고 건널 수 있었다.”

1868년 동부 시베리아군사총독은 식민을 위해 러시아인 21세대를 남사할린에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신분의 농민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 러시아정부는 2년간 밀가루와 탈곡한 곡물의 무상제공, 농기구·가축·종자·현금의 5년 이후 변제, 향후 20년간 세금과 징집 면제 등을 농민에게 약속했다. 1869년 8월 농민들은 기선 만주호를 타고 무라비요프스크 진에 도착했다. 이주민은 아니바 곶을 돌아 오호츠크 해를 따라 나이불이 진을 거쳐 11월 20일 타코에 계곡에 도착했다. 이주민은 이주여러 차례의 흉작을 겪은 이후 1875년 결정적인 흉수로 농사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다.

그 후 이주민은 아니바 만 연안, 꼬르사콥스끼에서 무라비요프스끼 초소지로 가는 도로의 중간지점에 치비사나라는 이주민촌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10년 동안 단지 사냥과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1886년 우스리스크 지방으로 재이주했다. 체홉은 남사할린 이주의 실패이유에 대해서 “이주민이 농업에 그리 오랜 기간 종사하지 않았다. 대륙으로 이주하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오로지 고기잡이나 사냥으로 생업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체홉은 이주민이 “철갑상어를 잡거나 담비를 사냥하는 일이 밭을 파종하고 양배추를 키우는 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1881년 알렉산드롭스끼 초소지(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пост)가 설치되었다. 러시아는 초소지 설치와 함께 장군을 포함한 새로운 직위도 만들었다. 주변에는 자유촌(Слободка)이 두에(Дуэ)에서 60여 킬로 떨어진 장소에 이미 형성되었다. 감옥으로 두이까(Дуйка) 강변에 자리잡았다. 점차 초소지 주변에 관청가가 발달되었다. 관리들의 주거지, 관청, 교회, 창고,

상점 등이 들어섰다. 오로지 도시의 공기를 호흡하고 오직 도회적인 사무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초소지를 둘러싼 지역은 ‘사할린의 파리’라 불렸다. 자유촌은 술꾼, 도박꾼, 약자 등이 몰려들었다. 취하고 싶거나 흠친 것을 팔고 싶거나 아니면 불순한 것에 영혼을 팔고 싶을 때에 사람들이 자유촌으로 몰려들었다.

1881년 동물학자 뿔랴코프(Поляков)는 두이까강(Река Дуйка, 알렉산드로프강)을 탐사했다. 체홉은 뿔랴코프의 조사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두이까(Дуйка) 계곡에서 칼모양 흑요석 파편, 돌화살촉, 숫돌, 돌도끼 등이 발견되었다. 두개골, 곰과 개의 뼈, 어망추 등도 발견되었다.” 체홉은 사할린에 거주한 사람들이 “토기 제작을 알고 있었고 곰을 사냥하거나 투망으로 고기를 잡았고 개들을 사냥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체홉은 뿔랴코프를 통해서 사할린에 석기시대의 유물이 존재했다고 파악했다.

1886년 나이불이 진(Пост Найбучи)이 건설되었다. 나이불이 진의 미쭈(Мицунь)에는 주거와 비주거용 건물 18동, 작은 예배당, 식료품 상점이 있었다.

체홉은 아이누인과 러시아인의 관계를 기술했다. 아이누인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분포하였다. 아이누인은 홋카이도의 마쓰마이(松前) 섬부터 남사할린의 테르페니에 만까지 거주했다. 러시아인은 아이누인을 쿠릴인이라고 불렀다. 체홉은 아이누인이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쌀 없이는 살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체홉에 따르면 아이누인은 러시아의 남사할린 점령 전까지 일본인의 농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체홉에 따르면 러시아는 1875년 남사할린을 점령한 이후 아이누인을 일본인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하지만 아이누인은 물고기를 잡지도 않았고 생업에 종사하지도 않았다. 아이누인은 일본인을 혐오했지만 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쓰마이로 이주했다. 일본인은 아이누인을 홋카이도와 마쓰마이로부터 쫓아냈다. 길랴크인이 아이누인을 사할린의 타라이카 이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결국 아이누인은 러시아의 남사할린 점령 이후 탈출구 없이 쿠릴열도에 거주하게 되었다.

2) 사할린의 행정구역과 경제활동

체홉은 사할린 행정구역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875년까지 북사할린의 감옥은 두에(Дуэ) 초소지(Пост) 책임자가 관리했고, 그의 상관은 니콜라예스크(Николаевск)에 거주하였다.

1875년부터 사할린은 북사할린과 남사할린 두 지구로 나뉘었다. 두 지구 모두 연해주에 소속되었다. 사할린 주지사(Военныйгубернатор, 군사총독)는 민간부분을, 연해주 군사령관은 군사부분을 총괄했다. 사할린과 연해주 유형 징역 관리관은 두에(Дуэ)에 거주하였고, 북사할린의 지구장을 맡았다. 제4동부시베리아 정규군 대대장이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 초소지에 주둔하였고, 남사할린의 지구장을 맡았다. 지방행정은 군정으로 군사와 민간 모두 지구장(окоужный начальник)에게 집중되었다.³⁷⁾ 1879년 의용함대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점차 유럽출신 러시아인이 사할린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884년 ‘새로운 인간 수송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규가 실시되었다. 새로운 법규에 따르면 사할린의 행정 관할은 연해주 총독에 소속되었다. 장군 중 임명되는 사할린섬 주지사는 지방 행정을 관할한다(местное - начальнику острова, назначаемому из военных генералов).

사할린섬은 세 지구로 분할되었다. 1지구 알렉산드롭스끼(Александровский), 2지구 락스킴스끼(Тымовский, селение Рыковское), 3지구 코르사콥스끼(Корсаковский)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서장을 겸임하는 지구장은 각 지구의 교도소와 마을을 관할하였다. 교도소장은 각 교도소와 마을을 관할하였다. 만일 마을만을 관할하는 특정 관리는 이주감독관이라 불렀다. 이 두 직위는 러시아의 지서장에 해당되었다. 사할린섬 주지사는 부사령관(전속부관, адъютант управления войск) 및 부사령관의 부관 및 군법무관을 휘하에 두었다. 또한 주지사는 부속실장, 회계담당관과 출납관, 농업감독관, 측량기사, 건축기사, 아이누어와 길랴크어 통역관, 중앙창고감독관, 의료부장을 두었다. 그리고 사제 4명, 전신국장과 부국장, 전신직원들 그리고 두 등대의 등대장 등이 사할린에 거주하였다. 사할린섬의 군대는 4개 부대마다 각각 영관장교 1명, 위관장교 2명과 군의관이 소속되었다.

체홉에 따르면 사할린섬 경비대는 알렉산드롭스끼, 두에, 락스킴스끼, 코르사콥스끼의 4개 부대로 구성되었다. 1890년 1월 사할린섬의 전체 하사관은 1548명이었다. 체홉은 병사들이 체력, 성숙도, 규칙과 달리 중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소총중대는 무라비요프스끼 초소지에 주둔했다. 코르사콥스끼에는 4시베리아 대대의 3개 중대와 산악포병 1소대가 주둔하였다. 체홉은 병사들이 삶은 원시적이고 극단적으로 단조롭고 지루했다고 기록했다.

북사할린(Сев. Сахалин)의 제2지구는 락스킴스끼(Тымовский) 지구라고 불렀다. 대다수 마을은 오흐츠크해(Охотское море)로 흘러드는 락스킴강(река Тыми)의 강변에 자리잡았다.

체홉은 사할린의 경제활동 중 탄광과 어업에 주목하였다.

체홉은 민간회사 ‘사할린’(Общества Сазхалин)의 두에 탄광(дуйские копи) 개발을 주목했다. 1875년 민간회사 ‘사할린’의 대표는 러시아정부와 24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회사는 사할린 서해안 지역의 2킬로, 섬 안쪽을 향해 1킬로의 지역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저탄장으로는 연해주내지 그에 부속하는 여러 섬과 어디든 적절한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건설과 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회사의 기술, 경영, 광산 설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운송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해군성은 사할린회사의 석탄을 매입하였다. 징역유형수가 작업노동자로 회사의 관리아래 매일 400명 이상 파견되었다.

체홉은 남사할린의 어업활동을 주목했다.

체홉은 4월 달에는 정어리, 갈매기, 고래, 강치의 무리가 장관을 이룬다고 기록했다. 크루젠슈테른의 배는 아니바 만에서 정어리를 쫓아온 고래에 둘러싸여 조심스럽게 나아가갈

37)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337

수밖에 없었다.

체홉은 러시아가 남사할린을 점령하면서 현재까지 어업이 쇠퇴에 빠졌다고 기록했다. 1880년 데이페르(Л. Дейер)는 “아니누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사업가에게 이익을 제공했던 장소가 지금은 거의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렸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향후 러시아 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티미(Тыми) 강 혹은 뽀로나야(Пороная) 강 하구 가까이로 옮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체홉은 사할린에 서식하는 바다 포유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종류로는 고래(киты), 강치 혹은 바다사자(сивучи, или морские львы), 바다표범(тюлени), 물개(котики) 등이었다. 체홉에 따르면 14년 동안(1861년까지) 오토츠크 해에서 2억 루블어치의 고래 기름과 수염이 반출되었다. 또한 브렘(Брем)의 증언에 따르면 “물개 사냥은 폭력과 고도의 냉혹함이 결합된 철저하고 가차 없는 살육이다.”

무엇보다도 체홉은 남사할린의 포유류 중 강치를 주목했다. 체홉에 따르면 사할린의 서쪽 해안 가까이 바다 위로 암벽이 홀로 솟아 있는데 “위험한 바위(Камнем Опасности)”로 불렸다. 한 목격자는 범선 예르마크(Ермак)를 타고 이 바위를 탐사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바위까지 아직 2.4미터나 남았다. 그런데 바위는 커다란 강치들로 뺨뺨하게 덮여 있었다. 이 무수한 야생의 무리들의 울음소리가 놀라웠다. 이 짐승들은 전설처럼 커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바위처럼 보였다. 강치의 크기는 약 4미터(2 сажен) 정도 혹은 그 이상이었다. 바위에서, 바위 주위의 바다에서 강치 외에도 바다 물개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체홉은 남사할린 꼬르사코프 지구 마우까(Маука 현재 홀름스크시)의 다사마(해조류) 채취 사업에 주목했다. 마우까는 두에 남쪽으로 450킬로미터 지점 북위 47도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기후를 갖고 있었다. 러시아 상인 세묘노프(Семенов)가 다사마사업을 소유하였고, 스코틀랜드인 덴비(Демби)가 다사마사업을 관리하였다. 세묘노프는 다사마채취사업에 한국인(корейцы), 만주인(Манзы), 러시아인을 고용하였다. 1886년부터 러시아 이주 유형수가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위해서 마우까에 진출하였다. 마우까에는 유대인 3명, 러시아 군인 7명, 한국인(Корейцев), 아이누족(Айно), 중국인(китайцев)으로 구성된 700명의 노동자가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사할린에 1880년 전후 한국인 노동자가 상당수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홉은 사할린에서 유형수의 노동은 러시아 자유민, 만주인(манз), 한국인(корейцев)이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체홉은 이주 증대와 산업 발전이 수행되면 사할린에 러시아 유형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홉은 만주인과 한국인의 남사할린 진출을 경계했다.

체홉은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했고, 학술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홉은 사할린섬의 조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체홉은 사할린섬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미지의 땅이라고 판단했다. 체홉은 사할린 관리들이 간수들의 수집 정보만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체홉은 향후 “시베리아 철도와 선박항로 발달로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로 러시아 이주민이 증가하면 “사할린 유형을 금지시키야한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러시아의 이주가 시작되면 사할린의 어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할 것을 예상했다. 체홉은 향후 사할린의 노동이 러시아 이주민, 만주인, 한국인 등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⁸⁾

3) 남사할린 영유권과 ‘동해’ 명칭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한국

체홉은 러시아와 일본의 남사할린 영유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체홉에 따르면 일본은 1613년부터 처음으로 사할린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측량기사 마미야 린조는 1808년에 사할린 서쪽 해안을 따라 여행했고, 처음으로 사할린이 섬이라는 것을 증명했다.³⁹⁾

체홉은 19세기 초 일본인이 남사할린에 등장했다고 기록했다. 흐보스코프에 따르면 1806년 아니바(Анива) 만 연안에 일본인 마을은 하나였고 건축물도 새관자였다. 4월 크루젠슈테른(Крузенштерн)은 아니바 만에 들렀을 때 일본인이 그물이나 어망이 없어서 통으로 물고기를 퍼올리는 것을 목격했다. 최초의 사할린 일본인 이민자는 도망친 범죄자들 아니면 타국을 방문한 탓으로 국외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다.

체홉에 따르면 1853년 부세는 아이누 노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사할린이 아이누의 땅이며 사할린에 일본 땅은 없다”라고 기록했다. 체홉은 네벨스꼬이를 비롯한 러시아인이 남사할린의 일본 영유권에 대해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체홉은 남사할린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일본인도 확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기 일본인은 아니바만(Анива) 연안과 마우까(Маука)에만 공장을 두었다. 그 주요한 거점은 현재 일본 영사가 거주하고 있는 쿠순-꼬탄(Кусун-Котан) 계곡이었다. 그 후 일본인은 아니바 만에서 타코에(Такойская долина) 계곡까지 별목하였다. 지금의 갈끼노-브라스꼬에 마을 근처에 상점도 개설했다. 일본인은 뽀로나에(Поронае) 만에서 산란기의 고기가 잡히는 타라이카까지 왔으며 시스카(Сиска) 마을을 세웠다. 여기서 너이스끼(Ныйский Залив) 만까지도 진출하기도 했다. 1881년 폴랴코프(Поляков)는 트로(Тро)에서 일본배를 목격했다.

1853년 러시아는 무라비요프스끼 초소지(Муравьевский пост)를 설치했다. 그러자 일본도 남사할린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인은 좋은 수입과 무료 노동자를 잃지 않으려고 러시아인의 활동을 감시했다.

일본인은 띄미(Тыми) 하구에서 강에 울타리를 쳐서 막고 물고기를 잡았고, 정크선(Джонк)을 통해서 물고기를 수송했다. 체홉은 일본의 어망에 대해서 “매우 크고 그물코는 작다. 한 어망으로 해안에서 150여 미터의 면적을 차지한다”라며 부세의 수기를 재인용했다. 체

38)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307

39)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52

홉은 정어리의 이동과 일본인들의 정어리 잡이를 부세와 미줄이 상세히 묘사했다고 기록했다.

체홉은 일본인의 남사할린 주요 이권이 어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기사로빠틴(Лопатин)의 말을 인용하였다. “일본인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겨울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 남사할린에 오는 일본인은 단지 어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야영으로 생활했고, 겨울철 최고의 인원만 남긴 채 일본에 귀국했다. 일본인은 채소밭을 일구지 않았으며 가축도 키우지 않았다. 생활필수품을 전부 일본에서 가져왔다. 일본어민을 매료시킨 것은 단하나 물고기였다.”

체홉에 따르면 네벨스꼬이(Г.И. Невельской)는 남사할린의 러시아 소유를 단정했다. 1742년 최초의 기록에 따르면 통구스 민족이 17세기에 사할린을 차지했다. 또한 러시아인이 1806년 사할린 남부도 점거했다.

체홉에 따르면 전권대사 레자노프(Н.П. Резанов)는 1853년 러일 통상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할린 섬의 획득”이 주요 협상 내용이었다. 그런데 체홉은 러시아와 일본도 남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파악했다. 체홉은 ‘기민하고 활동적이며 교묘한’ 일본인이 사할린에 대해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취했다”고 파악했다. 체홉에 따르면 1867년 러시아와 일본은 남사할린에 대한 공동관할권을 합의했다. 그 후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양국의 경계로 확정하는 삿제르부르크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체홉에 따르면 일본인이 사할린을 최초로 탐험했고 처음으로 남사할린을 점령한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체홉은 러시아가 쿠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전부를 일본에게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까운 섬 5-6개 정도가 적당했다고 지적했다. 체홉은 쿠릴열도의 양도 때문에 일본에게 매년 100만 루블의 소득을 넘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체홉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동쪽 바다의 명칭에 대해 다양하게 불렀다. “타타르 해협에 강한 폭풍이 몰아치면 선원들이 중국해나 일본해(в Кита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морях)를 몰아치는 태풍의 여파”⁴⁰⁾, “캄차카 반도를 포함하여 일본해와 오호츠크 해의 모든 섬(через все острова Японского и Охотского морей до Камчатки включительно)”⁴¹⁾, “오호츠크해(Охотское море)의 차가운 물과 6월에도 동쪽 해안(Восточный берег)”⁴²⁾, “북일본해(Северо-Японское море)에서 오호츠크해(Охотское)로 나가는 출구”⁴³⁾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체홉은 동해 바다에 대해 ‘동쪽 해안’, ‘북일본해’, ‘일본해’라는 명칭을 혼용하였다. 체홉은 라페루즈의 탐험기록을 서술할 때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라페루즈의 탐험기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체홉은 자국의

40)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338

41)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381

42)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149-150

43)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48-49. 체홉은 꼬루젠쉬페른의 지도도 참고했다.(А.П. Чехов.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394)

오호츠크해를 설명할 때 ‘동쪽 해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결국 체홉은 한국, 러시아, 일본의 인근 해역을 고려하여 동쪽 해안, 오호츠크해, 북일본해라는 바다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체홉이 한국 동쪽 해역은 ‘동해’, 일본 서쪽 해역은 ‘일본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맺음말

체홉은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를 주목했고, 학술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홉은 사할린섬의 조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체홉은 사할린섬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미지의 땅이라고 판단했다. 체홉은 사할린 관리들이 간수들의 수집 정보만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⁴⁴⁾

체홉은 향후 “시베리아 철도와 선박항로 발달로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로 러시아 이주민이 증가하면 “사할린 유형을 금지시키야한다”고 판단했다. 체홉은 러시아의 이주가 시작되면 사할린의 어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할 것을 예상했다. 체홉은 향후 사할린의 노동이 러시아 이주민, 만주인, 한국인 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⁵⁾

시베리아와 사할린 여행은 체홉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홉은 1892년 3월 모스크바 남쪽에 인접한 멜리호보(Мелихово)에 정착했다. 그는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체홉은 콜레라가 유행할 때 의사로서 일했고, 굶주린 농민을 구제했고, 학교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⁴⁶⁾

체홉은 여행 중 자신의 인상을 담은 구세프(Гусев)를 집필했다. 그밖에 6호실(Палата No.6), 유형지에서(В ссылке), 살인(Убийство), 공포(Страх) 등이 있었다.⁴⁷⁾ 이 작품들은 힘과 위선에 대한 투쟁과 단순함이었다.⁴⁸⁾ 체홉은 일부 관련 작품을 제외하고 사할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답했다. “아, 모든 것이 사할린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소.”⁴⁹⁾

체홉은 왜 시베리아와 사할린섬을 방문했을까?

44)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92

45)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307

46) Цунэко Мотидзуки, 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нтекст путешествия Чехова. М. СС.13-14; 오원교, 「체홉의 동양인식」 『체홉탄생 15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 2010, 82쪽

47) Капустин Д. А.П. Чехов :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Восток. 2005. С.54

48) 장한, 『체호프와 자연』, 2008, 한국학술정보, 39쪽

49) Крестинская Т.П. Сахалинская тема у Чехова//Учен. зап. Новгородского гос. пед. инстит утаж. Новгород. 1967. Т. 20. С. 111; 김성일, 「체홉 문학에 나타난 시베리아 공간 : 유형지에서를 중심으로」, 2007, 137쪽

체홉의 사할린섬과 편지에는 그의 사할린섬 여행 이유를 추정할 단서가 존재했다.

체홉은 1890년 7월 22일 연아무리총독 꼬르프(А.Н. Корф)에게 “공식적인 업무 없이 사할린에 왔다”고 대답했다. 당시 체홉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특과원용 용지가 있었지만 사할린에 관해 신문에 기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체홉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⁵⁰⁾

체홉은 자신의 시베리아 횡단 중 여행을 후회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체홉은 기선 바이칼호로 출발 예정이었지만 커다란 파도에 지연되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스스로 물어본다. 내 여행을 스스로 생각해도 극단적으로 경솔한 것이다.”⁵¹⁾

체홉은 “위안을 얻고자, 이제 봄이 되어 차가운 비도 창을 때리지 않을 거라고 시베리아를 사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홉은 “이 지긋지긋한 권태! ... 촛불은 다 타버렸고 또 들리는 외침소리 ... 되돌아가자니 그렇고.”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⁵²⁾

체홉은 1890년 3월 9일 수보린(А.С. Суворин)에게 사할린 여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할린이 죄수들로 구성된 식민지다. 나는 러시아 사회에서 사할린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⁵³⁾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체홉의 사할린행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체홉은 자신의 여행과정을 신문에 연재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할린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실제 체홉은 1890년 7월 ‘새시대(Новое время)’에 시베리아 여행만 기고했다.

‘위안’을 얻으려고 시베리아와 사할린 여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그 위안은 잠시 시베리아라는 이국적인 자연에서 자신의 현실적 고민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사회에서 사할린섬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체홉은 러시아 식민지의 모습 및 유형수에 대한 관찰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기초한 체홉의 결정이었다.

체홉 삶과 소설의 전환은 사할린 섬이었다.

체홉은 1891년 10월 19일 수보린(А.С. Суворин)에게 편지를 보냈다.

“만일 내가 의사라면, 나한테는 환자와 병원이 필요하고, 만일 내가 작가라면 나는 민중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⁵⁴⁾

체홉은 1896년 「갈매기」의 주인공 중 한명인 작가 뜨리고린의 대사를 통해서 작가의 책임을 서술했다.

“내가 작가라면 민중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 미래에 대해, 학문과 인간의 권리 등에 대해

50)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67-68

51) Чехов А.П.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45

52) Чехов А.П. Из Сибири.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0. М. 1963. С.23

53) Чехов А.П.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399

54) А.П. Чехов. Письм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11. М. 1963. С.509

말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⁵⁵⁾

체홉은 사할린섬에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민중 속에 살아야한다고 결심했다.

55) 체홉저,이주영역, 「갈매기」 2막, 『체호프 희곡 전집 2』, 연극과 인간, 2000, 145쪽

제3회의실 본부관 306호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소볼호 사건, 조선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

황성우 (한국외대)



소볼호 사건, 조선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

황 성 우 (한국외대)

I. 문제제기

소볼(Соболь)호 사건은 1867년 4월 17일 강화도에 상륙한 러시아 군과 조선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 사건을 지칭한다. 조선 땅에서 양측의 교전이 있었고, 조선 측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볼호 사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헌에도 소볼호 사건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도 이 사건이 확대되기를 꺼렸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해 소볼호 사건이 양국의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를 통해 알려진 소볼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강화도에 정박한 러시아군에 조선군이 선제공격을 해 러시아군이 자국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격을 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에 보관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러시아 측 자료에만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발굴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소볼호가 강화도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가 함포 사격을 통해 포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에서 적절하게 응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 측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더욱이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러시아는 소볼호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소볼호 사건을 기록한 러시아 문헌에 나타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볼호 사건을 기록한 러시아 문헌은 주로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서한이다. 조선 측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내 여러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자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II. 소볼호 사건의 진행과정과 의미

소볼호 사건이 발생한 1867년은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즉위해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다. 흥선대원군은 개항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1866년 초에는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프랑스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처형했다. 이때 국내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됐으며, 3명만이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탈출한 선교사 중 한 명인 리델(Ridel)이 중국으로 건너가 주중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사령관 로즈(Roze, P. G)에게 조선에서 발생한 천주교 박해 소식과 프랑스인 선교사 처형 사실을 알렸고, 이에 로즈사령관이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약 한 달간 점령하며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1866년에 발생한 병인양요와 이후 1871년 신미양요를 경험한 흥선대원군은 1871년 4월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워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당시 프랑스가 조선의 강화도를 무력 점령했다는 소문이 러시아 ‘유즈노 우스리스크’(Южно-Уссурийск 주¹⁾)에 퍼지자 동시베리아 총독의 통보를 받은 육군 소장 블랑갈리(Влангали)²⁾는 프랑스 군대가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과 주변의 정황 파악을 위해 즉시 전함을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블랑갈리의 명령에 의해 우소프(Усов) 함장이 지휘하는 소볼호가 조선에 파견됐다. 블랑갈리 소장은 “가능하면 조선의 해안에 정박하지 말고, 현지 주민과 접촉을 피하되, 불가피하게 그들과 접촉할 일이 발생할 경우라도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노력하라”³⁾고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에 따라 강화도에 파견된 우소프 대위는 강화도에 도착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조선군과의 무력 충돌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4월 14일 위도 37도 30분 9.7초에 위치한 섬에 기항했다. 섬 옆에 있는 다른 섬에는 포문이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있었다. 요새에는 약 400명의 수비병이 있었으며, 그들은 대포와 활 같은 것으로 무장했다. 이 요새는 프랑스군의 공격 이후 한강 후미의 강입구에 세워진 전초기지로 보였다.

4월 17일 말초프(Мичман Мальцов) 소위가 병사 1명과 함께 새를 사냥하기 위해 해안에 상륙하자 조선 병사들이 나타나 기습사격을 가했다. 이에 무장보트를 보내 그들을 구

1) 유즈노 우스리스크는 현재 연해주의 일부이다. 우수리스크 주는 우수리(Уссури) 강, 순가치(Сунгачи) 강, 한카(Ханка, 興凱湖)와 타타르 해협(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 사할린과 연해주 사이의 해협)과 동해의 북쪽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약 201,440 평방 베르스타(러시아 단위, 1베르스타는 1.067km)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세베르노 우수리스크(Северно-Уссурийск)가 125,440 평방 베르스타, 유즈노 우수리스크가 76,000 평방 베르스타이다. 남북 우수리스크 주는 올라헤(Улахэ), 레푸딘(Лефудин) 그리고 아바쿠모프카(Авакумовка)를 경계로 구분돼 있다.

2) 알렉산드르 게오르기예비치 블랑갈리(Александр Георгиевич Влангали). 러시아 외교관이며 청나라 및 이탈리아 주재 공사를 역임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그는 청국 주재 특명전권 사절이었다. 1865년에 육군소장으로 진급했다.

3) 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4-7(소볼호에 대한 뷰초프의 보고).

해오라고 명령하는 한편, 사격 중인 조선 병사들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조선 병사 한 명이 말초프에게 접근해 개머리판으로 내려치려 했다. 이에 말초프가 사격을 가했으며, 조선 병사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들은 무사히 구출됐다. 이후 장교 회의에서 요새에 포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밀물이 시작된 후, 요새에서 0.5해리의 거리에서 요새를 향해 포격했다. 요새로부터 응사는 없었다. 간접포격을 했기 때문에 포탄의 명중 여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건물이 불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 4시에 포격을 마친 후 만의 출구로 빠져나왔다.⁴⁾

이것이 소볼호를 지휘했던 함장 우소프 대위의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조선병사들이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방어차원에서 응사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군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서에도 그대로 등장한다.⁵⁾ 러시아 측에서는 최초의 보고서를 따라 이후에도 그 사실을 토대로 작성했을 것이고, 조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러시아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조선군이 선제공격을 한 개연성은 분명하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문서에도 동일한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우소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8일 텐진으로 돌아온 그는 그들이 측량한 조선 남서쪽 해안에 있는 군도를 지나 4월 13일 넓은 만에 닿을 내렸습니다. 지도상으로 강화도와 가까운 곳입니다. 보트를 타고 조사해 보니 만의 깊은 곳에 크지 않은 개천이 있었는데 통역이 없었기에 이 강이 조선의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강인지 아닌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소볼호는 만을 가로질러 숲이 우거진 섬 옆에 닿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좁은 해협이 있었고 그곳 몇 군데에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볼호에는 조선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없었기에 우소프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탐험대가 촬영한 지도에 따르면 요새가 있고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보아 이 섬은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월 17일 아침 말초프 소위(Мальцов)는 병사 한명과 함께 위에 언급한 해안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함선으로 돌아갈 때 해안은 썰물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1.5베르스타 거리에 있는 요새에서 조선인 약 50명이 나오더니 50걸음 정도 거리로 다가와 우리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소프는 해안으로 무장한 배를 보내고 사격을 가한 조선인들에게 대응 사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총격 속에서도 해안으로 갔던 배는 함선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소볼호 함장 우소프 대위가 보낸 보고서에는 총격을 가한 조선인들 중 사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소프는 조선인들이 선제공격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장교들의 의견을 들어

4) 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1-2об(소볼호 관련 우소프 대위의 보고서).

5) ф.1Оп1д.44л.1-12, 19-24об., 28-30об.(러시아 전함 소볼 호와 조선군간의 전투 관련 보고서) 『러시아 國立極東歷史文書保管所 韓人關聯 資料解題集』 고려학술문화재단 (2004), p. 3 ; 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4-7(소볼호에 대한 뷰초프의 보고) ;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52-156 ;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90-192об. ;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76-184об.

요새를 포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 2시 함포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해안선에서 6 카벨 토프(кабельтов, 0.6해리)⁶⁾ 거리에서 15개의 포탄, 10개의 폭탄, 40개의 탄환을 발사했습니다. 성곽 양쪽에 위치한 마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곽을 포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낮 4시에 우소프는 닳을 거두고 만에서 떠났습니다.⁷⁾

여기에는 조선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대응 사격했으며, 후에 65발의 포탄을 발사했음이 기록돼 있다. 자신들은 정당방위로 차원에서 응사했으며, 민가에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요새안의 건물이 불에 타고 있다는 보고도 했지만, 조선 측 사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상황보고는 없었다.

궁금한 것은 조선 측에서 대응하지 못한 점이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러시아군의 함포 사격으로 피해가 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일어난 갑작스런 함포 사격으로 미처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군의 장비가 열악해 0.6해리(약 1,111km) 밖에서 포격하는 러시아 전함을 포격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 의문은 당시 조선 측 군사장비와 수비대의 병력, 포의 성능 등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확보한 후에야 정확하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양측의 교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 측에는 소불호 사건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이다. 이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전무하기 때문에 상상력에 의한 추론만이 가능하다. 즉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쇄국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던 시기에 늦장 보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국 병사가 피해를 입지 않아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군은 강화도에 정박해 있다가 사건 발생 후 함포 사격을 끝내고 과거 병인양요 때의 프랑스군과는 다르게 2시간만에 바로 철수했다. 조선 측 입장에서는 포격은 받았지만 강화도를 실제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요새 주변 마을의 피해도 없었고, 상대적으로 조선 측 사상자가 적었다면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푸타틴(Путятин)이 거문도에 상륙한 사실을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문책을 받았던 조선관리의 예를 떠올려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왜 우소프 대위는 블랑갈리 소장이 지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못했을까? 분명 블랑갈리 소장은 명령을 하달하면서 해안에 정박하지 말고 주민과의 접촉도 피하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블랑갈리 소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소불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박했고, 둘째, 연관(煙管) 청소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며, 셋째, 어두운 밤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암초 지역을 항해하는 것은 불가

6) 닳줄의 길이, 1해리의 10분의 1 (* 1해리는 1,852m).

7) ГАИЮ,ф.24,оп.11/3,д.24,лл.152—156

능했기 때문에 닳을 내려야만 했다고 보고했다. 넷째, 관찰을 하기 위해 해안으로 나간 장교들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나온 주민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섬에서 만난 조선인들은 러시아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분위기가 좋아 배로 초청했음에도 러시아 배에 승선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그들이 거절했다고 적고 있다.⁸⁾

소볼호 장교들이 관측을 하기 위해 강화도에 상륙해 현지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조선 주민들이 러시아 군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단지 조선 주민들은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향후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러시아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함선으로 오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⁹⁾

앞선 우소프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러시아인과 조선인들이 우호적으로 만났다는 내용은 소볼호가 제주도를 떠나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해하던 중 어느 섬에 도착해 그곳 주민과 평화롭게 지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산에 도착해 아침을 먹었고, 말초프와 다른 선원은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레보프 스키와 슈슈코프는 우리가 정박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4 베르스타 떨어진 조선인 마을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그들을 매우 친절히 맞이했고,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유도 했지만 우리 군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섬 정체가 가장 잘 보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올라간 산 옆에도 작은 섬이 있었으며 밀물이 들어와 만조가 되면 섬 주변이 모두 물에 잠깁니다. 우리는 근처 마을에서 온 4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차와 보드카 등을 그들에게 권했으며 그들도 기꺼이 우리의 성의를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그 어떤 물건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¹⁰⁾

따라서 우소프 대위는 우선적으로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¹¹⁾ 도착한 섬이 강화도인지 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¹²⁾ 소볼호의 위치 파악과 섬을 정찰 및 관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섬에 정박한 지 5일째 되던 날에 조선 병사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 소볼호 사건이 발생한 후 러시아는 더 이상 이 일이 확대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타의 사건 보고서에 확전을 주장하는

8) РГИАДВ, ф.1, оп.1, д.44, лл.

9) 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4-7(소볼호에 대한 뷰초프의 보고).

10)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76-184об. (조선 서해안에서 발생한 소볼호 관련내용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

11) ф.10п1д.44л.1-12, 19-24об., 28-30об.(러시아 전함 소볼 호와 조선군간의 전투 관련 보고서) 『러시아 國立極東歷史文書保管所 韓人關聯 資料解題集』 고려학술문화재단 (2004), p. 3

12) РГИАДВ, ф.1, оп.1, д.44, лл. 이점과 관련해 소볼호 함장 우소프 대위는 조선 해안에 대한 관측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내용이 없고, 이 사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만 기록돼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소불호 사건을 기록한 모든 문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 일로 인해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 매우 안타깝다. 우리는 이웃에게 우정 어린 감정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 점을 고려해 우리는 조선 정부에 공한을 발송하고, 이번 사태와 같이 충돌의 원인을 조선이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함선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 된다. 또한 이 공한은 중국 정부의 중재를 받아 발송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공한을 전달하기 위해 소불호를 다시 파견할 경우,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조선 정부에 전달하는 공한은 매우 우호적인 어투로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인들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사태가 더 복잡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중국 정부의 중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이 지나치게 널리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브고로드스키(Новгородский) 만¹³⁾에 있는 러시아 국경관청을 통해 조선 정부와 교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개진했다.¹⁴⁾

이번 충돌은 조선이 우리를 믿지 않고, 다른 외국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 조선이 우리를 공격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는 우리를 적으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¹⁵⁾

우리 함선이 귀국의 해안 다가간 것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국의 백성들이 먼저 우리 함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함장이 자신의 장교와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이므로 저는 그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 이 서신은 귀하께 우리의 친선 관계를 전하며,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유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 드리지만 차후에 우리의 함선이 조선 해안 근처를 항해하더라도 우리 함선은 그 어떤 악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이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친선 관계를 표하며 보냅니다.¹⁶⁾

13) 연해주 내 한반도와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하산(Хасан) 지역에 속하는 만이다.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곳에 있다. 무라비요프 아무르스코보(Н. 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ого)가 탐사하며 노브고로드스키(Новгородский) 만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후에 해군제독 포시예트(К. Н. Посьет, 1819-1899)의 이름을 딴 명칭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4) РГАВМФ, ф.410, оп.2, д.3088, лл.4-7(소불호에 대한 뷰초프의 보고). 예브게니 카를로비치 뷰초프(Евгений Карлович Бюцов, 1837-1904)는 초대 일본주재 러시아 대표였으며, 이후 중국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1858년 아이훈 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 협상단의 일원이었다. 1862년부터 1873년까지 일본주재 러시아 공사관 및 영사관에서 근무했고, 1871년 요코하마 주재 초대 러시아 영사였다. 1873년부터 1883년까지 청국주재 러시아 공사였다. 이 내용은 당시 청국주재 러시아 외교대표였던 뷰초프가 강화도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조선의 무력 충돌 사건, 즉 '소불호 사건'에 관해 외무대신 고르차코프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외교관으로서 뷰초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불신과 적대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52-156 (미하일 세묘노비치에게 보내는 서한)

러시아는 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을까? 선제공격을 빌미로 조선에 대한 강공책을 추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었을까? 러시아가 확전을 방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소불호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은 시기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이다. 물론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육로를 통한 조선과 러시아의 만남은 청나라를 통해 간접적이고 비밀리에 성사됐다. 19세기 후반부터는 해로를 통한 양국의 접촉이 시작됐으며, 이때에는 청국의 중재가 없었다. 조선과 유럽 국가들의 만남이 주로 해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에 비해 러시아와 만남은 육로와 해로 두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¹⁷⁾ 소불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국경을 맞닿고 상거래가 시작되려는 시점이었기에 러시아는 굳이 쇄국정책을 강행하던 조선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앞선 이유와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선의 문호개방을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소불호 사건으로 그 가능성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더욱이 조선과 무역거래를 시작한 다음에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관한 보고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내려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조선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국경무역을 중심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¹⁸⁾

셋째, 당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이른바 거대게임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조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면화, 양모, 피혁 등의 원료를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지 역할을 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크림전쟁으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급속하게 회복시켜줌으로써 러시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흥 지역이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중앙아시아로 선회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러시아의 전략이 이곳에서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이다.¹⁹⁾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약 40만 km²의 영토를 획득했음에도

16)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90—192об. (동시베리아 주 총괄 책임자 카즈나코프(Казнаков) 중장이 조선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신)

17) 송금영,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한반도 정책(1860-1905)』 (서울: 국학자료원, 2005), p. 51.

18) РГИАДВ, ф.1, оп.1, д.44, лл. ; ГАИО, ф.24, оп.11/3, д.24, лл.163—164об. 개항 이전 1866년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함경도 관찰사 김유연(金有淵)이 ‘러시아인이 경원부 두만강변(慶源府豆滿江邊)에 도래해 경계 근처에 집을 짓고 교역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조선의 의정부는 교역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뜻을 알려 퇴출시키고 관리들에게 연강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고종실록』 고종3년 12월 12일·13일·29일. 1870년 조선에서 경흥부사(慶興府使) 이교봉(李敎鳳)을 파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인 14명이 국경을 넘어 물건을 내리려 했는데, 그는 근거가 될 만한 공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조회 공급하고 굴포(屈浦)에 유치된 자들도 기일을 정해 보내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일기』 고종7년 2월 1일·15일; 『고종실록』 고종7년 2월 1일.

19) 김종현, “‘거대게임’과 영국의 극동 탐사활동에 관한 연구,” 사총 69호 (2009.9), p. 166.

불구하고 당시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된 관심은 서유럽과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한 지중해 진출에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부차적인 관심대상이었다. 더욱이 러시아의 행동반경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러시아에 보내는 의혹의 눈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자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²⁰⁾

III. 맺음말

소불호 사건은 조선 영토에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최초의 무력 충돌 사건이다. 일반적인 관측활동도 포함됐지만, 병인양요 이후 프랑스가 강화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도로 급파된 소불호가 강화도에 정박해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조선과 러시아 양측이 충돌한 사건이다.

조선에는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객관적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러시아와 조선 모두 소불호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을 적대국으로 만들지 않고, 국경 무역을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선과 상거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로 소불호 사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었던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 땅에서 러시아와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관련자료를 좀더 발굴 분석해 왜 조선 병사들은 소불호의 포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지, 또한 왜 조선 측에는 소불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는 소불호 사건을 확대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20)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서울: 지식산업사, 2007), p. 115.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러시아의 극동첩보조직 창설과 활동(1904-1910)

-상하이 첩보국을 중심으로 -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의 극동첩보조직 창설과 활동(1904-1910) -상하이 첩보국을 중심으로-

최 덕 규 (동북아역사재단)

I

이 글은 러일개전 이후 동아시아에 설립된 러시아의 첩보조직을 “상하이 첩보국(Шанхайагентура)”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04년 4월 짜르 니콜라이 II세의 칙령에 의해 창설된 이 조직은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는데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를 중심으로 한 극동의 외교관들이 한축을 맡았고, 러청은행 이사이자 상하이 지점장이었던 다비도프를 중심으로 재무성 관리들이 다른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외무성과 재무성 관리들로 이루어진 상하이 첩보국은 부처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전쟁기간 동안 만주군사령부의 군정보부와 협력하여 일본과 한국에서의 정보수집 및 일본군 후방교란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파블로프가 창설한 상하이첩보국 한국분과(Корейская секция)는 고종황제와 러시아정부를 잇는 중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전쟁기간의 공식적인 한러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러시아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분과 첩보요원들이 이후 항일독립전쟁에 투신함으로써 한일간의 독립전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상하이 첩보국에 대한 연구는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극동첩보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항일독립전쟁에서 고종황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박보리스¹⁾, 박종효²⁾의 관련연구들이 발간되었고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 첩보 및 방첩역사 연구의 대가인 파블로프(Д.И.Павлов)에 의해 전문적인 연구 업적³⁾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파블로프의 연구는 방대한 러시아사료들을 활용한 실증적이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1)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зд.2-е.доп.М.: ИВРАН, 2004. С.352-374.

2) *Пак Чон Хё.*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АН, 1997.

3) *Павлов, Д.В.*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Секретные операции на суше и на море. М.: Материк, 2004.; Dmitri B. Pavlov, "The Russian 'Shanghai Service' in Korea, 1904-1905", *EURASIAN REVIEW*, Vol.4, Nov. 2011. pp. 1-9.

연구의 범위가 러일전쟁으로 한정되었고 특히 상하이첩보국의 활동을 파블로프의 본국귀환시기까지로 설정(1906.5.25)함으로써 그 이후 시기의 상하이첩보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겨두고 있다. 둘째, 상하이첩보국의 활동을 만주군사령부 정보부와 연동시켜 고찰함으로써 해군첩보 관련 활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하이 첩보국이 외무성과 재무성의 공동합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블로프를 중심으로 정리한 접근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비도프를 중심으로 한 재무성 관리들의 활동이 일본함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내도를 준비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것은 파블로프가 여건상 육군성 및 외무성 문서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결과 1907년 이후 외교와 더불어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한 고종황제의 항일독립전쟁 관련 자료들과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 극동내도를 준비했던 다비도프의 활동에 대한 자료들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역시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러시아재무성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비도프의 활동을 본격 조명함으로써 상하이첩보국이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내도에 대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했는지 고찰하고 둘째, 1908년부터 구체화된 고종황제의 러시아망명정부 수립구상과 황제의 한러간의 공동첩보망을 구축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합법적인 독립활동 공간을 연해주에서 확보하려는 계획이 러일전쟁기간 상하이첩보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일전쟁기 러시아 첩보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고종황제의 연해주망명정부 수립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러시아 첩보기구의 역사는 나폴레옹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12년 1월 27일 나폴레옹 전쟁 직전에 러시아 최초의 육군첩보 방첩기구 ‘고등군사경찰(вышая военная полиция)’이 창설된 바, 야전군 내부의 방첩임무가 부여되었다. 이 기구는 육군상 바르클라이 드 톨리(М.Б.Барклайде Толли)가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설립되었다. 그러나 고등군사경찰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인적, 조직적 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1815년 해체되고 말았다. 그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러시아의 첩보와 방첩임무는 헌병특무대(Отдельный корпус Жандарм)가 담당했고 이들은 야전군참모본부와 야전헌병감의 지휘를 받았다.⁴⁾ 따라서 나폴레옹전쟁이후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와 외국 스파이간의 첩보전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공식적인 첩보기구의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장교들의 배신이었다.

4) Васили Кашилин, Разведчики Военного Шпионства//Родина, 2008. №12.

바르샤바 군관구 감찰국장을 맡고 있던 참모본부의 그림(А.Н.Гримм) 중령이 수뢰사건에 연루되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첩보조직에 정보를 팔아넘긴 일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었다. 1896년부터 1902년까지 그는 관구참모본부의 작전명령서 및 러시아육군의 전략계획서 등과 같은 비밀서류를 넘겨주었다. 결국 그의 행위는 발각되어 12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나 유배지에서 동료들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러시아정부가 외국첩보기관에 맞설 방첩기구 설립의 당위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903년 1월 20일 육군상 쿠로파트킨 장군이 짜르 니콜라이 II세에게 올린 상주서에서 외국과 첩보전쟁을 담당할 참모본부 산하의 정보국 신설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육군의 군비태세가 매년 향상되고 있고 개전초기 작전계획 또한 잘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대국가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군사적 성격의 범죄들은 대부분 우연하게 발각될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수는 발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이 국가의 안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1월 21일 짜르의 재가를 얻어 극비리에 창설된 러시아 첩보국(Разведочное отделение)은 초대 수장으로 헌병특무대의 대위 라브로프(В.Н.Лавров)가 맡게 되었다.⁵⁾ 그는 조직을 정비한 후, 1903년 6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주재 독일무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무관, 일본무관에 대한 비밀감시망을 구축했고 특히 러일개전에 임박하여 일본무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중령과 그의 접촉인물에 대한 감시가 주요업무가 되었다.

러일개전과 더불어 정세분석 작업은 1890년의 “전시야전규범(Положение о полевоом управлении войск в военное время)”에 따라 만주군사령부 직할의 야전군 군수처(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квартирмейстеров) 소관이 되었다. 군수처는 4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운영, 회계, 지형측량 그리고 정보부가 그것이다. 이에 군수처의 책임범위에는 적국에 대한 정보수집, 정찰과 촬영 그리고 신문사 특과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의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장교들의 경우 적국의 병력배치 이동 및 목표에 관한 정보수집과 현지주민 가운데 정보원과 안내원 포섭, 포로심문, 수집정보의 확인 및 보고서 작성등이 주요업무였다.⁶⁾ 따라서 만주군사령부 정보부가 러일전쟁 당시 대일첩보 및 방첩업무의 주축이었고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의 상하이첩보국(Шанхайская агентура)과 다비도프(Л.Ф.Давыдов) 지점장을 중심으로 한 러청은행 상하이 지점이 그 외연을 이루고 있었다.

상하이첩보국은 1904년 4월초에 창설되었다. 극동총독 알렉세예프가 발의하여 니콜라이 2세가 재가하여 창설된 이 첩보조직은 그 수장으로 알렉세예프 제독의 전폭적인 지원을

5) Греков Н.В. Русская контрразведка в 1905-1917 гг.: Шпиономания и ре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 М., Московский общественный научный фонд, 2000. С. 17-19.

6) Сергеев Е.Ю. Русская разведка в начале войны с Японией 1904-1905 годов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2005, №1, С.62-71.

받고 있던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가 임명되었고 그 본부는 중국 상하이로 정해졌다. 상하이 서비스는 전시에 창설된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구성원 명부는 없었으나, 서울주재러시아공사관 직원들과 재무성 소속의 러청은행 관계자 그리고 서양인 협력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창설목적은 일본과 일본군에 관한 모든 비밀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었고 중국본토, 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가 그 활동범위였다. 그들의 임무는 러시아군의 정규 첩보부대를 대체하기 보다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보완하는데 있었다. 예를 들어 비밀리에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되는 언론들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바, 베텔(Ernest Bethell)이 서울에서 발행했던 대한매일신보(Korea Daily News)의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상하이서비스는 수천만 루블에 달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반일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항일의병활동을 조직적,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일본인들의 압제와 전횡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이 상하이서비스의 첩보영역을 확대하고 지원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상하이첩보국의 수장인 파블로프와 고종황제간의 비밀접촉은 상해에 머물고 있던 황제의 시종무관 이학균과 현상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1904년 2월 파블로프는 서울을 떠나기에 앞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직접 전보를 보내는데 필요한 암호코드를 고종황제에게 전했으나, 이 코드는 1904년 4월 14일 경운궁 화재사건 당시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한국의 전신은 일본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던 바, 러일전쟁 기간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고종황제의 친서들은 거의 다 상하이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군대가 남하하여 일본군대를 축출해줄 것을 기대했던 고종황제와는 달리 러시아군사령부는 한국으로 대규모부대를 파견하기를 원치 않았고 만주군의 전열을 가다듬는데 필요한 한반도 북부에서의 군사조치로 작전을 한정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1905년 3월 요양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러시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의미를 상실한 바, 결국 동년 5월 한국에 대한 첩보망을 축소하는 대신 일본이 상륙하여 포위하려는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남부우수리 지역의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1905년 6월말 아니시모프 장군 휘하에 일본군을 두만강유역에서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한국분견대가 창설됨으로써, 독립적인 한국인 정탐부대를 운영하고자 했던 상하이서비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상하이의 한국섹션은 1904년 4월에 설치되었다. 파블로프가 극동총독에게 보낸 보고에 따르면, 한국섹션의 운영계획은 주한러시아공사관 통역 김마트베이를 한국으로 파견하고, 러시아의 군사학교 및 일반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던 서울주재러시아공사관 부속 관립러시아어학교 졸업생들을 러시아어학교 교사이자 퇴역포병대위 출신의 니콜라이 비류코프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비류코프와 그의 한국인 동창생들은 상하이서비스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타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국 영토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극동총독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김마트베이에게 부여된 임무는 한국북부, 특히 압록강유역에서 러시아분견대와 맞서고 있는 일본군에 관한 정보수

집이었다. 그는 현지 한국인 관리와 한국인요원들과 상시적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현지 한국인들은 사전에 서울에서 고종황제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고종과 친러 적 성향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신하여 만주국경으로 파견될 예정이었다. 1904년 4월말 마트베이 김은 기밀훈령과 비밀암호 및 500루블을 소지한 마트베이 김은 목덴과 라오냥을 거쳐 한국북부로 출발했다. 그러나 1904년 5월 1일 압록강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패배하여 압록강유역에서 퇴각하자, 마트베이 김은 한국의 정탐부대를 계속 조직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프리아무르군관구로 돌아갔다. 이에 한국의 현지 지방관과 비밀연락망을 구축하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왜냐하면 그 후 한국에서의 정탐활동은 비류코프의 제자들인 한국인 동창생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첩보기구에서 활동한 관립노어학교 출신 동창생들은 모두 9명으로 자발적으로 러시아를 떠나 1904년 5월과 7-8월에 사이에 한러 국경지역인 연추(Новокиевское)로 집결하였다. 이곳은 한국국경에 가장 근접한 러시아 주거지로 전신소가 개설되어 있었고 비류코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인 동창생들은 니즈니 노브고로드(Нижнийгородскийкадетскийкорпус) 군사학교의 오운석과 구덕선 추구예프 기병학교(Чугуевскийкавалерия)의 현홍근, 윤일병, 윤세년 쿠르스크 군사아카데미의 김낙운, 강한택, 한기수 및 한명의 학생,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한국어과 강사 김병옥과 카잔신학교의 5명의 졸업생들이 그들이다. 카잔신학교출신의 5명은 목덴 소재 만주군사령부의 통역으로 차출되었다. 당시 러시아군대는 한국영토에서 일시적으로 퇴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1명만 남고 나머지 4명의 졸업생은 해고되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우수리지역의 마을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 동창생 7명은 팀을 이뤄 정찰병으로서 한국으로 출발했고 나머지 둘은 연추에 남아 비류코프의 통역으로 일했다. 추구예프 기병학교 사관후보였던 현홍근은 얼마 후 한국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했다.

고종황제는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외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고 관립노어학교 졸업생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4년 9월 22일 파블로프가 연추에 있던 비류코프에게 “한국 황제가 졸업생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 가운데 누가 귀하와 같이 있는지, 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귀하는 그들과 즐겁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고 계신다”는 내용의 기밀전보를 보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비류코프가 회신한 암호전문에 따르면, “한과 강은 나와 함께 있으며, 오운석은 부령에, 윤은 북청에, 현은 노보키예프스코예(연추)에 구는 종성에” 있었다. 그러나 관립노어학교 졸업생들의 첩보활동은 1904년 늦은 여름부터 러시아군사령부가 이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개별적으로 게릴라부대를 조직하여 러시아군사령부의 허락없이 한국북부의 북청으로 출발한 돌발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소극적인 러시아군사령부와 애국심이 충만하여 러시아군에 자원한 한국인 졸업생들간의 인식차이는 이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상하이서비스가 주한일본주차군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한 또 다른 경로는 주한프랑스 공사관이었다. 주한프랑스 공사관을 지원하는 군함이 매달 2차례 상하이를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주한공사 폰트네와 베르토 영사는 파블로프가 서울에서 재직시 알고있던 외교관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04년 7월 1일 직접 상하이를 방문한 폰트네는 니콜라이 II세에게 전달할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북부철도의 감독인 르페브르 역시 한국주재 일본군의 상황과 한국에서 새로운 철도지선 부설공사의 진척상황, 해안방어 및 항구요새화 상황, 군수창고의 위치와 저장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파블로프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베텔의 대한매일신보의 감독자로 선임한 프랑수아 주교 마르텔(Martel)주교 역시 주요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1905년 3월 목단전투에서 패전한 러시아군은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참모본부의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화물들을 포기하면서 암호와 해외 요원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들이 누설되고 말았다. 이 정보들은 전쟁중에도 손상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고스란히 일본의 수중에 넘어갔다. 그 결과는 중국과 일본내의 러시아첩보망이 일망타진되면서 발트함대의 극동내도를 준비하는데 커다란 재앙이 되고 말았다.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의 군수뇌부와 정치지도자들은 주한 일본군의 규모, 주둔지 및 이동장소, 무장과 훈련 정도, 한반도에서의 군시설 축조(철도, 요새, 군수창고), 일본군의 작전계획, 한일관계 및 한국지배층의 분위기등에 대한 고급정보를 상하이서비스를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러시아만주군사령부의 정보부장 블라디미르 오란노프스키 소장은 러일전쟁기간 러시아군정보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파블로프와 그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무성 관리 다비도프가 제공한 자료들은 그 신빙성과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발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상하이첩보국의 활동이 1904-5년의 공식적인 한러관계를 지속시켰고 항일의병활동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음을 의미했다.⁷⁾

III

파블로프가 지휘한 상하이 첩보국 한국분과가 한국에서의 첩보수집과 항일의병활동에 기여했다면, 해군첩보 활동 및 제2대평양함대의 극동내도를 준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다비도프가 지휘했던 러청은행 상해 및 북경지점이었다. 러시아재무성 관리이자 러청은행 이사이기도 했던 다비도프는 상하이 주재 상무관 고이예르(Л.Ф.фон Гой

7) 파블로프가 상하이에서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블라디보스톡과 하얼빈을 거쳐 본국으로 귀국한 것은 1906년 5월 25일이었다. 그는 현상건이 전달한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있었는데 헤이그평화회의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는데 러시아의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강점하에 있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한 민영익과 이용익이 “예외적인 법적용”을 통해 러시아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다.

er) 및 로스포프(Н.А.Распопов) 그리고 러청은행 여순지점의 알렉산드르 프리드베르그(А.И.Фридберг)와 공조하여 다양한 첩보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상하이주재 상무관 고이예르는 러일전쟁이 종식된 후, 파블로프가 귀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고종황제와 러시아 정부 및 연해주 大韓義軍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담당했고 대한의군의 활동상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청은행 상하이 지점은 한일병합시기까지 한러간의 비공식 외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들은 러시아의 극동해군첩보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종황제의 항일독립전쟁을 이해하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

러일전쟁기간 러시아의 첩보활동 및 첩보기관들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은 이들의 활동과 조직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래의 연구에서 과소평가되었던 이 시기의 첩보조직과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는 러시아 해군장교들이 일본과의 개전을 앞둔 시점에서 독자적인 해군첩보활동 및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개전직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간된 잡지 해군통보(Морскойсборник)는 “해상 첩보활동과 그 조직(해군통보. 1914.№ 1. 1-14쪽)”을 발간한 바, 그 저자는 보리스 돌리보 도브로볼스키였다 [Разведочная служба во флоте и ее организация»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1904. № 1. Неофициальный отдел. С.1-14). Ее автор, лейтенант Борис Доливо-Добровольский]. 이 논문에서 도브로볼스키는 해군첩보의 형태와 조직원칙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그 다양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미국의 뉴포트 해군대학에서 강연한 굳리치의 “첩보선에 관하여”라는 외국전문가의 강연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러일간의 해군력 관계 및 양측의 군함상황은 전시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일본에 대한 해군력 우세를 확보하기 전에는 군대를 전장으로 투입하기 어렵고 향후 육상작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집중적인 해군첩보망(육군또한 마찬가지였음)이 조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정부 및 군부에서는 현상황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채널을 동원하여 일본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개전직전까지 전통적으로 그러한 채널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무관들이 보내온 정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경우, 단지 1명의 해군무관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 높은 첩보자료를 제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벨로제르는 자신의 학위논문 결론에 아래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주2참조).

“해군무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특별하게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은 고려된 바 없었고 무관

8) 예를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시오: Сергеев Е.Ю. Русская разведка в начале войны с Японией1904-1905 годов//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2005.№ 1. С. 60-79. 이 논문의 인터넷 버전은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regiment.ru /Lib/C10.htm>

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사태과악 능력이나 이해정도에 따라 즉흥적으로 자기업무를 수행했다. 게다가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역시 가끔씩 상관들이 망각하기도 하였고 무관들은 첩보 임무와는 동떨어진 과업들을 수행하곤 했다. 한편 해군성의 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외교행랑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도 자주 방기되거나 1891년부터 해군성 학술국 내부에서 시스템화 되지 못했고 전문가의 부족과 학술국의 임무가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첩보를 가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러일전쟁 직전에 명확해졌다”.

도브로볼스키의 기고문에서도, “훌륭한 전함과 대포는 사실상 좋은 무기에 불과하지만 가장 훌륭한 무기도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함대를 조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교육과 정예요원 양성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그는 해군제독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첩보국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바로 지금 창설해야하며 첩보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할 것임을 지적했다. 1) 연안 항구의 신호체계에 대한 정보 2) 별도로 제작된 특별정보선 3) 적국과 인접한 나라의 영사, 외교관 및 특수주재요원 4) 상선들의 보고 5) 적국에 파견된 스파이의 보고서 7) 해군참모본부에 소장된 기록 8) 여타 참조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군무관의 활동은 일본에 상주하는 다른 요원들이 획득한 정보와 단기출장 온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 보완이 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에는 궁정친위부대 프레오브라젠스크 연대의 본랴르랴르스키(아마도 이 사람은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본랴르랴르스키이며 베조브라조프 그룹의 리더로 꼽히고 있는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본랴르랴르스키의 아들 가운데 한명임). 이 보고서는 그가 페테르부르크로 귀국한 이후 1903년 9월 24일 작성되었다(РГИА. Ф.1282. Оп.1. Д.760. Л. 95-98). 본랴르랴르스키의 보고서에는 5개장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정치상황’, ‘정부조직’, ‘사회여론’, ‘언론’, ‘육군과 해군’, ‘재정상황’이 그에 해당하며, 일본과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강경정책을 지지했던 작성자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양보정책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정부구조의 장에서는 본랴르랴르스키는 일본의 각료들은 별로 인기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나 해군상 야마모토는 예외적인 바, 여기서는 “러시아에게 사악한 적”으로 표현되었다. 야마모토와 총사령부의 오야마와 관련하여 본랴르랴르스키는 내각수상 카츠라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군과 해군’에서는 본랴르랴르스키는 일본의 육군과 해군성의 활동이 훨씬 적극적이 되었는데, 해군의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특별한 조치들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었다. 보고자는 그 가운데서 육군의 상륙작전훈련, 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선박장비의 설치준비, 민간 도크가 새로운 주문을 받는 것을 정부가 금지시킨 조치(전시에 조속히 민간도크를 동원하려했음이 분명함), 쓰시마 섬의 강화를 위한 작업의 가속화 및

일본의 민간회사들이 추진한 외국화물선의 용선협상(아마도 자기소유의 선박들은 군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 양도할 준비가 되어있는 민간회사)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랴르랴르스키는 두척의 1,100톤급 및 그 이상의 배수량을 가진 독일화물선을 구입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특히 주목한바, 이 화물선은 한번 출항할 때마다 4,000명의 병사를 수송할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랴르랴르스키는 한국파병을 결정한 일본의 확실한 계획에 따라 원정대 출발지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히로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전쟁준비와 결부시키고 있었다.

본랴르랴르스키가 자신의 보고서에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는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편향성 및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종속성까지 포함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평가한 일본언론의 중요한 기관지 목록을 담고 있다(여기에는 16종의 정간물 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1903년 4월 13일부터 8월9일까지 매일 일본언론의 보도를 짚막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이 첨부되었다. 이 자료는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군사사절단이 첩보수집방식의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랴르랴르스키 자신도 자신의 보고서에서 일본인 대다수의 여론형성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언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자체적으로는 일본현지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개전초기부터 이 업무는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및 중국의 언론과 협력할 가능성 이외에도 상해와 북경 같은 중국의 대도시들은 국제적인 중심도시의 중심이면서도 요원들의 활동과정에서 획득한 첩보자료를 수집할 가능성도 부여했다.

그러한 작업은 재무성의 상무관이자 러청은행 이사회 이사인 레오니드 페드로비치 다비도프가 직접 관장했는데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에는 그가 수집하여 전달한 첩보자료들이 2개의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다. 문서철 “현안들에 대한 주청재무성요원 다비도프의 전문사본(1904년 2월-12월) Копии телеграмм аг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в Китае Давыдова по текущим вопросам”에는 상하이와 북경에서 재무성으로 발송한 상당분량의 전보가 소장되어 있는데, 역내에서 일본 중국 여타국가의 해군 및 수송선의 움직임,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목적지로 한 화물의 선적여부(밀수품도 포함), 수뢰폭발로 인한 일본순양함의 침몰 혹은 러시아수병이 포로로 생포된 경우, 일본군함이 러시아수역에서 어로와 포경을 위해 정박한 건, 일본 함대로부터의 위협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로의 안전수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비도프는 중국인과 일본인들로 구성된 극동의 첩보망 조직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미 1904년 이미 돈에 매수된 일본인 첩보원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들과 북경주재 프랑스공사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요코하마 거주 정보원에 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1904년 7월 10(23)일자 전보에 따르면, 그는 중국신문들을 최대한 폭넓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 러시아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한 사안을 전달하고 둘째, 첩보의 목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비도프는 개전직전

일본이 적절하게 활용한 바 있는 중국신문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바, 이는 동아시아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아마도 다비도프는 외무성 관리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을 떠나 상하이에 터전을 닦은 파블로프 공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나 파블로프는 외무성의 노선을 따라 극동에서 첩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레사르 역시 다비도프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다비도프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활동영역의 확장을 우려하여 이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다비도프의 조직적인 첩보활동에 대해서는 “대일전쟁 기간 이루어진 비밀공작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철에 포함된 일련의 왕복서신들이 정보를 주고 있는데 1904년 8월 28일-1909년 6월1일에 생산된 문서들이 그에 해당된다. 앞의 문서철과는 달리 여기에는 다비도프가 재무성이 아니라 주로 총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들이 수집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쿠로파트킨(А.Н.Куропаткин) 장군에게 그후 그가 퇴임한 1905년 3월 이후에는 린 네비치 장군(Н.П.Линевич) 그리고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제독과 같은 다른 정부요인에게 보낸 보고서들이다.

아울러 총사령관으로부터 첩보망을 구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다비도프는 눈에 띄게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비밀전문을 생산함과 동시에 재무관이 주도하는 첩보활동뿐만 아니라 후방 교란작전까지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이는 흥건적을 포함한 현지중국인의 도움으로 일본의 군수창고의 방화 뿐만 아니라, 일본함대의 주력기지로 변모한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의 절단계획까지 포함했다. 이 계획은 다비도프가 재무성에 보고한 바와 같이, 만주군 총사령관의 승인을 받았고 다비도프가 시간을 벌고 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명분으로 임무를 자신에게 집중시켜줄 것을 요구한바 있었던 파블로프와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비도프가 주도한 이러한 계획들은 국제적인 분규를 우려한 외무성의 의구심을 초래했다. 결국 계획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시간을 허비한 관계로 이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고 처음에는 특수선박 구입과 나중에는 위약금 - 실제로는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1만파운드를 요구한 네덜란드 기사(닐슨)에게 지불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바, 그는 당초 적절한 시기에 배후 파괴공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이었다.

문서철에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해준 점에 대한 감사와 유사한 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만주군총사령부에서 다비도프에게 보낸 전문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철에는 결국 1909년에 이르러 종전 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재무성 여신부 특별관방국 부국장을 거쳐 국장을 역임한 다비도프를 겨냥하여 비밀 첩보활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있다. 이 문서에는 다비도프가 러일전쟁기간 사기와 배임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소문들은 러시아 궁정출신 이민자 그룹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결국 일본의 여순항 포위작전으로 인한 해상보

급과 관련된 일련의 전문들은 다비도프의 첩보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상업적 이해와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토와 멀리 떨어진 극동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는 상황과 일본의 포위를 뚫고 보급품을 전달해야하는 위험부담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첩보활동에 지출한 5천 루블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는 패전과 혁명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제기된 짜르정부의 권력유지 정책의 하나였던 바, 1909년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의 사망과 더불어 패전의 희생양으로 다비도프 역시 배임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1910년 파블로프도 러일전쟁 당시 첩보부 운영자금의 과다지출 혐의를 받고 결국 외무성을 떠나야 했다. 요컨대 다비도프와 파블로프가 상하이첩보국 창설자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오명을 쓰고 퇴진하게 된 배경에는 1909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전직 재부상 비폐와 육군상 쿠로파 트킨간의 러일전쟁 개전책임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IV

우리가 상하이첩보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관이 고종황제의 항일독립전쟁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파블로프가 러일전쟁 기간 상하이첩보부의 활동관련 기록과 생산문서를 가지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고 주서울러시아 총영사로 플란손이 도착했지만 고종황제와 페테르부르크, 고종황제와 연해주를 연결하는 중간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상하이 주재 러시아상무관 고이에르가 맡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러일전쟁 기간 확립된 고종황제의 대외연락망이 전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황제는 통감부를 거쳐 사무를 보았던 플란손보다는 고이에르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헤이그특사파견 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가 강제 폐위된 이후에는, 그의 러시아 망명정부 수립구상과 맞물려 고이에르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해졌다. 따라서 고종의 특사들과 만난 후 작성된 고이에르의 보고서들은 고종황제가 구상한 항일독립전쟁 방식과 방향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상하이 주재 러시아 상무관 고이에르가 작성한 “스티븐스의 암살과 관련한 해외한인정치단체에 대한 보고서(1908.4.21)”에서는 안중근은 하얼빈의거 직전 의열투쟁을 선도한 해외항일단체 대동보국회(Great National Preservation Union)의 핵심인물이었던 정재관(鄭在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07년 7월 서울에서 있었던 일본의 쿠데타(coup detat)직후, 해외거주 모든 한인들은 하나의 비밀정치단체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단체를 설립했고 그 모델은 유명한 중국의 비밀정치결사”라고 밝히고 있다.⁹⁾ 대동보국회는 고종의 폐위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9) РГИА.Ф.560. Оп.28.Д.391. Л.44-49.:Копия Письма Гойера Г.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Пекине, 8

설립되어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에 서명한 한국각료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던 단체였다.¹⁰⁾

고이에르에 따르면, 대동보국회의 “설립목적은 해외에서 항일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황실에 충성을 다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최후까지 투쟁할 준비가 된 한국인들의 중심을 형성”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거의 모든 구한국군 장교들이 이 단체의 회원인데, 정치슬로건은 ‘한국에서 일본을 몰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의 仇敵 스티븐스(D. W. Stevens)를 처단하는 사명이 단체 회원에게 부여된 바 있음을 보고했다.¹¹⁾ 요컨대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이후 항일 의열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대동보국회는 尊王攘夷 성향의 해외 한국인 비밀결사였다. 따라서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가 대동보국회를 배경으로 尊王攘夷를 실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종황제의 구체적인 러시아과천계획이 러시아당국에게 알려진 것도 바로 상하이첩보국 소속의 고이에르 상무관의 보고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10년 6월 중순 전 한국군 대위 현상건이 그 얼마 전 상하이에 도착한 이갑(李甲)을 대동하고 상하이주재 러시아 상무관 고이에르를 방문하여 고종황제의 러시아망명 계획을 통보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1910년 6월 22일 고이에르가 이갑과 면담한 후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 (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ч Н.А.)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일강제병합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고종황제의 외교활동 및 러시아과천계획 그리고 러시아 극동군과 한국의병과의 한러 연합작전 계획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¹²⁾ 보고서에서는 고종황제가 특별히 이갑에게 두 가지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그 하나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Ⅱ세(НиколайⅡ)에게 보내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친필서신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령지역 한인들이 한반도 북부의 일본인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일에 있어 연해주 경비군 참모부에 협력하는 문제였다. 고종황제의 친서는

марта 1908 г. О 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обществах. 중국의 비밀정치 결사는 청대말기 유신과의 정치단체인 保國會를 지칭한다. 이는 대동보국회라는 명칭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고이에르의 보고서에서는 이 단체의 명칭을 “Правовым Союзом”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한국어 번역으로는 “정의동맹”에 가깝지만 국민회에 관한 상기 포드스타빈의 보고서(1911.12.26)와 비교할 경우 대동보국회가 확실하다.

1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фонд 600. Опись 1. Дело 886. Лист 4. Записка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профессора Г.В.Подставина, 13 декабря 1911 г. 대동보국회는 정미7조약에 서명한 정부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상하이에 지부를 설치했다. 이에 블라디보스톡 동방대학의 포드스타빈(Подставин Г.В.) 교수는 대동보국회를 극단적인 항일투쟁단체(ультра-японофобская боевая организация)라 명명하고 있다.

11) Там же. 고이에르는 대동보국회의 조직에 대해 보고한 바, 이 단체가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세계적 규모의 항일 의열 조직임을 알려준다. 고이에르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의 중앙위원회가 서울에 설치되었고 각 지방 특히 함경도와 강원도에 지부들이 설립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중국과 연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특히 회원들이 많았다. 상하이 지부는 그곳에 거주하는 한국인 23명 모두 회원이며, 현상건이 지부장이었다.

12) Донесение Аг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в Шахае Гойера послу в Токио от 9 июня 1910 г., Корея глазами Россиянин(1895-1945). М., 2008. С.119-223.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몽골과 한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지 말아줄 것을 짜르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다.¹³⁾

고종황제가 이갑에게 부여한 두 번째 임무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일병합 직전의 동아시아정책 수립과정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최대의 현안이 되었다. 당시 이갑은 한반도 북부의 일본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러시아의 연해주 군당국과 협력하여 대일첩보 및 방첩망을 구축할 것을 고종황제로부터 지시받고,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면서 이를 준비해왔다. 그 결과 1910년 중반부터 러시아 육군성을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위를 위해 연해주 이주한인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3) Там же.

제3회의실 본부관 306호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진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홍응호 (동국대)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홍 응 호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1. 머리말
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설립과 민족정책
3. 1920년대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4. 1930년대 스탈린과 민족정책의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러시아의 한인과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앞서 러시아의 한인(그들은 스스로를 고려인 또는 고려 사람이라 불렀다)들을 생각하면 감성적인 먹먹함이 더 먼저 다가온다.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원하던 원치 않던 조상이 살던 땅을 떠나 낫설고 물선,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서러움과 슬픔을 머리카락 속으로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한다. 그러나 차마 말로 표현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먹고 살기 위해 떠나온 고향 땅과 조국이 식민지로 되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살고 있는 땅에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강제로 떠나야만 했던 소수민족으로서의 그 한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 땅을 떠나야 했던 우리들의 조상과 지금도 그곳에서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애뜻함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과 그 변화를 추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앞선 연구들에서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과 그 변화가 고려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주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편이다. 물론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

과 그 변화에 대해서도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이 연구 결과물들은 러시아와 유럽, 또는 러시아와 그 내부, 특히 사회주의 시기 독자적인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던 민족들과의 관계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의 변화는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의 삶에 소비에트 시기는 물론 오늘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비에트러시아체제가 성립된 후 고려인들과 연해주로 망명한 혁명가들은 일제식민지 조선의 해방에 부푼 꿈을 기대했다.

소비에트러시아 체제가 성립된 이후, 민족정책은 시기적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혁명 직후 이상의 실현을 꿈꾸던 시기, 이를 조직화시키고, 소수민족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통합하던 시도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스탈린 주도의 민족정책은 이전과 단절하면서 비러시아인 소수민족들, 특히 러시아영역 밖에 주권국가를 지닌 ‘디아스포라민족’은 이전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인 전면적이고 집단적인 강제이주를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를 밝히는데 있다. 러시아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한인들의 삶과 역사는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소비에트러시아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지방당국의 조치에 자의적인 선택권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려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련의 대부분 비러시아인 소수민족들도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했다. 따라서 고려인들의 삶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과 그 변화과정을 추적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어떤 민족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 시기별로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설립과 민족정책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0월 혁명 직후부터 1920년대 초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설립된 시기, 둘째, 1920년대 민족토착화시기, 셋째, 1930년대 중반 이후 스탈린의 민족정책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탈린 이후 시

1)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서규환, 이완중,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슬라브연구』 23권 1호, 2007; 민경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 10월 혁명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사총』 54, 2001;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12; 심현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중소연구』 24권 4호, 2000; 전병국, 『소련의 민족 정책과 고려인 강제 이주』, 『일본연구』 제15집, 2011; 심현용,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김남섭,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불세비즘’적 역사교육과 소수민족의 통합』,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2008; 류한수, 『소비에트러시아 초기의 민족정책과 역사서술』,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

기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10월 혁명 직후부터 스탈린의 민족정책 시기까지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민족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 요인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민족정책과 관련한 고민은 대상설정, 민족자결권의 내용, 그리고 형식(국가 또는 민족들의 조직체의 결합 방법)이었다.

소비에트 러시아가 자신들의 최초의 민족정책을 표명한 것은 10월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3일²⁾에 ‘러시아 민족들의 권리선언’을 통해서였다. 이 선언에서 소비에트 정권은 차리즘과 2월 혁명 후 임시정부의 민족정책을 비판하고 ‘모든 민족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동맹정책, 모든 민족의 완전한 상호신뢰를 가져올 개방적이고 성실한 정책’을 주창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활동의 기초로서 ‘1. 러시아 모든 민족의 평등과 주권, 2. 분리와 독립국가 형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자유로운 자결권, 3. 온갖 민족적·종교적 특권과 제한의 폐지, 4. 러시아영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과 인류학적 집단의 자유로운 발전’ 등의 4원칙을 제기했다.³⁾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소수민족 문제와 연방제가 그것이다. 소수민족 문제는 큰 틀에서 민족 문제에 연관되어 있지만, 연방제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관된다. 즉 연방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을 맺을 때, 소수민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소수민족에게 어떤 수준까지 자치를 허용할 것인지, 그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 공화국만이 아니라 여타 공화국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지, 무엇보다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 중에서 해당 민족 구성원이 자신들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 살지 않고 타 국가에 살고 있을 경우 이들은 어떤 대상이 되며, 이들도 독자적인 자치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소수민족의 개념과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은 흔히 비러시아인 일반 또는 ‘흠어져 있는 민족’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 개념은 좀 더 역사적이고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의 개념은 혁명 직후부터 1920년대 초반 시기에 생겨났다. 소수민족이란 러시아(소련 형성 후에는 소련) 영내에 자신의 민족국가(형성체)를 지니지 않은, 또는 자신의 민족국가(형성체)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켰고, 그들의 민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내용은 민족자결권으로 표현되고, 이를

2)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그 동안 사용되던 구력(그레고리력)을 폐지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율리우스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구력은 율리우스력에 비해 13일 늦다. 따라서 이 날짜는 11월 16일이다.

3) Образование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1972. М., Наука. сс.21-22.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개념과 정책의 비교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12. 190쪽에서 재인용.

주도한 지도자는 레닌과 스탈린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 바깥에 동포를 지닌 독일인이나 중국인, 고려인과 같은 ‘디아스포라 민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그때까지의 ‘보호’와 ‘배려’ 대신에 ‘경계’와 ‘감시’의 대상으로서의 위치 변화가 있었다. 다만 이 개념 변화는 공포되지 않고 또 종래의 소수민족 정책도 동시에 종식되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라는 말은 사회의 전면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그 후 소수민족 개념은 페레스트로이카기에 부활했다. 이 시기 소수민족은 ‘디아스포라 민족’을 가리켰는데, 1930년대의 ‘배제’와 ‘격리’ 대상에서 ‘배려’의 대상으로 위치가 다시 변화했다. 이 개념은 소련체제 후에도 한동안은 존속했지만 연방 해체 후의 여러 상황을 반영해 실제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소수민족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⁴⁾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때, ‘러시아 민족들의 권리선언’에 언급된 소수민족이나 분리와 독립국가의 대상이 어디이고 어떤 민족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단지 소수민족 모두가 인류학적 집단 그 자체가 주권과 분리권이 부여된 대상이 아니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수준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1918년 1월의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초 헌법에서 드러난다.

‘근로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에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기본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여기에서는 “러시아-소비에트 공화국은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의 연방으로서 자유로운 여러 민족의 자유로운 연합의 기초 위에 건설된다”고 해서, 새로운 국가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비러시아 민족 공화국을 포함하는 연방이 될 것이라 선언되었다. 이 선언에서 자신의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는 대상은 민족의 평등과 주권을 가지면, 분리와 독립국가 형성을 포함한 민족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소수민족은 자신의 작은 국가를 만들 수 없는 모든 민족이나 자신의 국가 형성 후에도 그 국가 밖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로,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평등과 주권 그리고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⁵⁾ 그러나 여기에서도 연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공화국 안에 여러 민족국가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독립공화국들이 결합된 공화국 연방이 될 것인지의 방안은 명확치 않다.

민족문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스탈린은 1918년 4월 소비에트 러시아의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준비위원회에서 자신의 민족 이론과 민족정책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법무인민

4)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189쪽.

5) 1918년 7월 10일 채택된 ‘러시아-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서는, ‘소수민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문을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은 시민의 인종이나 소속 민족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어떤 특권 또는 특혜를 설정하는 일,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수민족을 억압하거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공화국의 기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선언한다(제23조). Образование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с.46.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192쪽에서 재인용.

위원회 위원장인 레이스네르는 영토적 특성을 기초로 구획된 주가 국가건설의 기본단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민족자결권의 존중은 ‘고유의 생활관습 및 민족구성으로 구별되는 역사적으로 분리된 일정 지역들의 동맹’이라는 뜻에서의 연방제 국가 형태, 즉 다민족국가를 소비에트 연방 형태로 건설함에 있어서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단위인 주로 설정하는 이른바 민족-영토원칙에 따라 국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이 스탈린의 이론이 헌법안으로 채택되었다.

1918년 7월 볼셰비키 정권은 헌법을 공포하고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РСФСР)의 수립을 선언했다. ‘독특한 생활습관과 민족구성원들로써 상호 구별되는’ 각 지역의 소비에트들이 자발적 지역 결합의 방법으로 자치공화국이나 자치주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러시아공화국에는 8개의 자치공화국과 13개의 자치주가 포함되었다.

스탈린이 큰 틀에서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러시아공화국을 구성했지만 이는 슬라브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해당되었다. 제정러시아 시기 영토를 팽창해 식민지로 개척했던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다. 내전과 외국간섭군과의 전쟁 과정에서 민족 단위의 개별 독립국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독립국가들을 연방국가의 단일한 틀 안으로 체계화하는, 즉 단일한 국가 구조 속에 동맹국가간의 통합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⁷⁾

내전이 끝나고 제정러시아의 영역에 있던 지역에서는 6개의 소비에트사회주의국가, 즉 러시아공화국, 우크라이나공화국, 벨로루시공화국,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그리고 그루지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 국가들은 독립국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공화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한 이들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자치, 즉 연방제를 민족정책으로 내세우던 스탈린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922년 8월 ‘연방결성에 관한 연구위원회’에서 개별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자치권한만을 가진 채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 귀속되는 방안이었다. 이는 자치화 방안으로 5개 소비에트 공화국이 자치공화국의 지위로 러시아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했다.⁸⁾ 결국, 스탈린은 러시아공화국의 주도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틀 속에서 민족자결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인 지역적 자치(연방제)라는 1913년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에서 제시한 민족정책에 관한 관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탈린의 자치화 방안을 접한 레닌은 이를 거부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제에

6) И.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т.4. с.69. 155. 심현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중소연구』 24권 4호, 2000, 119쪽.

7) 심현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120쪽.

8) 스탈린의 자치화 방안은 혁명과 그 직후의 경험에서 나왔다. 스탈린에 따르면, 혁명과 내전에서 중앙러시아와 변방 간의 상호지원 없이는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러시아의 해방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변방의 분리 요구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중앙과 변방 간 연방 확립이라는 문제설정 자체에 모순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앙과 변방의 인민대중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И.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т.4. сс.351-352.

긍정적이지 않았던 레닌은 1917년 혁명 이후 민족자결권을 구체화 시킬 방법으로 연방제의 혁명적 요소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레닌의 견해는 다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진실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립파’에게 논거를 주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독립을 파괴해서도 안 된다. 평등한 권리를 갖는 공화국 연방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단계를 창조해야 한다.9)

그러나 레닌은 연방제에서 강대국주의적 국수주의의 위험성은 철저히 경계해야함을 강조했다. 5개 소비에트공화국들이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가입’이 아니라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연방으로의 정식 통합’되어야 하며, 대러시아 쇼비니즘은 생사를 걸고 ‘우리가 반드시 타파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10)

스탈린이 처음 기획한 자치화 방안이 대러시아 쇼비니즘을 용인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레닌은 그것이 야기할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레닌은 러시아공화국이 다른 공화국들과 같은 지위로 그들과 함께 새 연방에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공화국의 지위를 격하시킴으로써 각 민족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각 민족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이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을 전개하는데 있어 구실이 되는 대러시아 쇼비니즘의 진원지를 억제하고 대신 새 연방을 창설함으로써 레닌은 사회주의 권력에서 러시아의 민족 색채를 지운 채 자신이 지향하는 민주집중제를 더 넓고 깊게 실현할 수 있었다.11)

레닌의 제안에 따라 연방조약안의 제1조 규정은 “각 공화국에 연방탈퇴권을 부여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자카프카즈연방,12)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간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으로의 통합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수정되었다.13) 그리고 소연방헌법은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연방소비에트대회에서 비준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스탈린안에 따른 러시아연방사회주의공화국(РСФСР) 대신에 연방 가입 각 공화국의 권한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레닌의 연방안에 따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СССР)으로 구성되었다.

스탈린은 레닌의 입장이 ‘민족적 자유주의’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실현될 세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본보기”14)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는 스탈린이 이 선언을 진정성을 담아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9) Ленин, П.С.С., т.45. сс.211-212.

10) Ленин, П.С.С., т.45. с.214.

11) 서규환, 이완중,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16쪽.

12) 1922년 3월 레닌의 지시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통합되어 자카프카즈연방이 수립되었다. 이 연방은 1922년 12월 자카프카즈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명되었다.

13) http://constitution.garant.ru/history/ussr-rsfsr/1924/red_1924/185480/chapter/1/#100(검색일 : 2012년 8월 24일).

14) И.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т.5. с.158.

3. 1920년대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1920년대 소비에트러시아가 취한 민족정책의 핵심은 ‘코레니자치야(коренизация)’, 즉 토착화 정책이었다.¹⁵⁾ 이 정책은 1921년 제10차 당대회에서 그 개념과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민족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에서의 ‘행정권 및 간부의 토착화’로 표현되었다. 이 정책은 비러시아인들의 경제적·문화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민족단위의 정치구성체들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광범위한 자치를 구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토착화정책에 의해 해당 지역의 언어나 관습, 생활방식에 익숙한 지역 인민들이 소비에트 행정지역을 맡아서 그들 토착 민족의 정치적 참여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토착화 정책은 비교적 규모가 커서 자신들의 민족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 자치주 등의 민족자치영역을 부여받아 그 영역 내에서 자신들의 언어 등 해당 민족 고유의 요소를 활용해 운영할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소수민족¹⁶⁾에게도 집주 규모에 따라 민족지구, 민족구, 민족촌 소비에트 등의 특별지구로 규정해 ‘작은 자치’로 실현되었다.¹⁶⁾

이 작업은 자치주 등의 건설이 일단 끝난 1925년경부터 본격화해 1920년대에 8개 민족지구(район)가 설정되었고, 러시아 이외의 다른 연방구성 공화국에 설립된 것을 포함해 1930년대 중반까지 그 수는 270개에 이르렀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시베리아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그 일부는 1930년대 초에 자치주 등으로 격상, 개편되었다.

소수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것으로 최초로 취해진 정책은 자신들의 교육권과 민족어에 의한 교육 보장이었다. 1918년 10월에 ‘소수민족학교에 관한 교육인민위원회 결정’은 이 시책의 틀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1.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은 민족어로 교육을 조직할 권리를 지니며, 2. 해당 민족 학생 수가 충분한 곳에서는 소수민족 학교가 개설될 수 있다.’¹⁷⁾

그러나 민족학교의 설치나 운영은 내전과 민족어 교육 교사와 교재, 재원의 부족, 그리고 소수민족의 교육 자체에 대한 지방당국이나 다민족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쉽게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민족교육은 실시되기 시작했다.¹⁸⁾ 레닌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한 소비에트 인민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는 알파벳이 없는 민족에게 자신의 말을 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문자화 작업을 실시했으며, 몽골어와 투르크계 언어 혹은 이란계 타지크어 대신에 러시아를 차용한 알파벳을

15) 서규환, 이완중, 「사회주의와 민족문제」, 17쪽.

16)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194-195쪽.

17) Жизнь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23. октября 1919.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193쪽에서 재인용.

18) 예를 들면 1927-1928년 우크라이나에서는 학교의 81.5%가 우크라이나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했다. 보흐단 나할일로·빅토르 스보보다 공저, 정옥경 역,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신아사, 2002. 95쪽.

도입했다.¹⁹⁾

민족 정책에 근거한 소수민족 공산주의대학이 1921년 모스크바에 동방근로자 공산주의 대학을 필두로 차례로 설립되었다. 1924년에 이르러 10개 학교가 개교했는데 그 중 5개 학교가 민족계였다. 동방근로자 공산주의자대학은 73개 민족에 이르는 다민족 학생들을 받아들였다.²⁰⁾

민족지구나 특정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구의 중심지에는 사범학교 등의 상급학교 이외에 도서관, 극장, 신문사, 잡지사 등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설은 민족어에 의한 출판물을 간행하고 민족 언어나 민족문화의 유지·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²¹⁾

그러나 토착화정책이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소수민족들은 특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에 걸쳐 산재하기도 했다. 또한 한 지역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 민족이나 언어, 문화, 생활관습, 종교적 특성에 따라 대표적인 민족의 지역적 자치 원칙을 설정했다.

그러나 작은 자치지구의 건설을 위해 실시된 다양한 대책이 초래한 알력도 있었다. 민족 지구의 설립 즈음 그 대상이 된 민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구로부터 해당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는 반대로 해당지구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강제조치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당사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 서로 다른 민족의 거주지구가 겹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마찰도 있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이외의 모든 공화국에서 러시아인을 ‘소수민족’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비러시아인 측의 당혹감과 쌍방의 불만이 있었다.

이것과는 반대로 러시아 등에서는 우크라이나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의 압력이 늘 존재해, 소수민족으로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정되고 민족촌 소비에트의 건설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²²⁾ 그 가운데 민족촌 등은 만들어졌지만 당초에 기대되던 민족어에 의한 행정 등은 실시되지 않는 경우나 민족학교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지만 독자적인 교실은 마련되지 않아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민족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²³⁾

19) 전병국, 「소련의 민족 정책과 고려인 강제 이주」, 『일본연구』 제15집, 2011. 594쪽.

20) 그러나 민족정책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대학들은 차례로 폐교되었다.

21) 그러나 이 내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연해주와 고려인 거주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토착화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한인들의 학교와 한글신문, 한글잡지 한인들의 단체들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러시아와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자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극동에서 한인들의 자치공화국 건설 시도(명칭은 ‘고려공화국’)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수 편역, 『소련 韓族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와다 하루키,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서대숙 역음, 『소비에트 한인백년사』, 도서출판 태암, 1989. 39-81쪽과 한인들의 문화자치운동에 대해서는 심현용,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53-82쪽 등을 참조하시오.

23)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200쪽.

또한 연방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러시아의 중앙정부와 민족공화국들이 행정적 편의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즉 행정-영토적 특성에 따라 연방 구성 단위체의 자치적 지위는 물론 지방 단위체의 자치적 지위가 변경되기도 했다. 이럴 경우 민족-영토적 원칙은 빈번히 무시되었다.²⁴⁾

한편, 토착화정책에서 제정러시아시기에 소위 ‘이족인(инородец)’이라 불렀고, 소비에트러시아시기에 북방나로드노스치(народность, 북방소수민족)²⁵⁾에 대해 소비에트러시아가 취한 정책은 흥미롭다. 이들은 별도의 관리 대상이었다. 1924년에 소련공산당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 ‘북부변경 나로드노스치 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시베리아의 여러 민족과, 산지나 스텝 지역의 유목민 등으로 대표되는 북방나로드노스치의 민족생활을 원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을 통해 생업관련 물자와 생활필수품의 공급, 수송망의 정비 및 확보가 꾀해지고, 이동진료반 조직과 문화기지, 기숙사 학교의 창설, 나아가서는 각 언어 표기법을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되었다. 이 소수민족들은 납세나 병역에서 다양한 보호와 면역, 나아가 생업과 관련한 영역의 보전, 전통적 질서에 의한 자치의 실시 등의 배려를 받았다. 문화적으로 뒤쳐진 그들을 서서히 문명화해가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이는 전체적으로 격리와 억압을 통해 이질성을 배제하고 ‘러시아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소비에트러시아의 토착화정책도 그 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적용되던 원칙과 내용은 달랐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앞 장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민족문제는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이후에는 소비에트 민주집중제의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4. 1930년대 스탈린과 민족정책의 변화

1920년대 후반부터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변화 조짐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던 소비에트러시아는 ‘노동자들에게 조국은 없다’는 공산당 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족문제 보다는 계급문제에 중시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유일

24) 심현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123쪽.

25) 나로드노스치란 국민국가의 주체가 되는 민족인 나치야(нация)에 대비되는 말로, 발전단계가 낮아 국가를 지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민족(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들에는 연방구성공화국이나 자치공화국 등의 국가는 부여되지 않고, 자치주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치영역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다. 유효종,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 197쪽.

26) 이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1936년경부터 1950년대 초까지 있었던 ‘최소 악’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최소 악 이론은 비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편입되는 것이 진보적이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러시아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1927년 영국과의 국교단절,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실패에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화의 여파로 등장한 독일 히틀러의 나치의 등장 등으로 국제정세는 자본주의 열강 간의 전쟁의 암운은 물론 소비에트러시아에게도 생존을 모색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1년 제10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신경제정책(НЭП)을 계기로 뿌떠부르주아 층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특히 농촌에서는 임노동제를 허용하고, 지대를 납부하고 남은 초과 생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면서 농민분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사회주의 사회로 재편해야 하는 소비에트당국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농민들의 절대 다수가 비러시아인으로, 농민문제는 민족문제와 직결되는 복잡함을 띠고 있었다. 1926년 가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식량조달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인, 마치 내전기에 취해졌었던 강제적인 곡물징발은 농민들의 불만을 한층 고조시켜서 당국과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에서 소비에트러시아 당국의 강압적 정책이 취해졌다. 이는 강제적인 농업집단화와 공업화,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으로 상징되는 ‘민족 볼셰비즘(национал-большевизм)’²⁷⁾을 통한 러시아화였다.

민족정책의 변화 조짐은 이미 1920년대 중반에 나타났다. 스탈린은 1925년에 “농민문제는 민족문제의 기초이고 본질이다. 이것은 농민이 민족운동의 모체라는 사실이 설명하고 있다”²⁸⁾고 강조했다. 스탈린의 이 주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이 소비에트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농업집단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집단화 실시는 곧바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업집단화는 신경제정책 시기에 농촌에서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였던 농민들의 계급분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선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면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던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분산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적 관점에서 풀려는 계산이 스탈린을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부에는 있었다.

먼저, 스탈린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1929년 말부터 강제적이고 전면적인 집단화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상은 비러시아인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이었다. 이곳에서 집단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은 쿨락(부농)이자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27) 민족볼셰비즘은 이미 1920년 스탈린이 트로츠키와 권력투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대해 부하린의 일국사회주의 이론을 수용, 이를 기반으로 소비에트러시아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공식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소련의 건설과 스탈린의 권력 장악이었다. <http://www.historica.ru/index.php?showtopic=642>(검색일 : 2012년 8월 29일).

28) И.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т.7. с.71.

간주되어 계급의 적으로서 절멸대상이 되었다. 국경 밖에 자신의 동족을 지닌 이른바 ‘디아스포라 민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욱더 강압적이었다. 결국 1932년 말에 농민 대부분이 집단농장에 어쩔 수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집단화와 쿨락 제거 정책의 결과 죽은 농민들은 약 650만 명, 카자흐스탄의 대학살 사망자 100만 여명, 1931-1932년 기근과 스탈린의 의도적인 곡물배급 방해로 약 700만 명(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500만 명, 북카프카즈에서 100만 명, 기타 100만 명), 1930-1937년 동안에 죽은 농민은 1,100만 명에 달한다고 스탈린의 농촌 테러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 로버트 콘퀘스트는 주장했다.²⁹⁾ 콘퀘스트가 서구의 반소비에트 연구자라는 측면에서 집단화과정에서 희생당한 농민들의 숫자가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 특히 비러시아계 농민들이 희생당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³⁰⁾

또한 1920년대 토착화 정책을 통해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 장려, 모국어교육 정책이 1930년대 들어 폐지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의 신지식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작가, 학교 교사, 기사, 고등 육기관의 교수와 강사, 학자, 농업기사, 기술자 등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들은 문화의식의 담당자로 취급되어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낙인찍혔다. 이 과정에서 대량 테러가 발생했는데 디아스포라 민족의 희생자 규모는 토착민족보다 훨씬 컸다. 디아스포라 민족 희생자는 희생자 전체 비율에서나 각 민족 인구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월등히 높았다.

이제 비러시아계 민족들에 대한 토착화 정책은 포기되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모든 공공업무에서 러시아가 공용어가 되었다. 러시아어로의 교육이 증가했다. 비러시아 모국어로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해야 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보호하던 정책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1937년 12월 17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당 중앙위원회, 극동,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지방위원회 등에 민족지구와 민족촌 소비에트를 일반 지구와 일반 촌 소비에트로 개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이들 민족지구 등이 인위적으로 설립되어 주민의 민족적 구성과 합치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인민의 적’이 방해 목적으로 설립해 주민 사이에서 반소비에트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을 금지한 점”이라고 되어 있었다.³¹⁾

이 정책은 국경의 소수민족을 집단적으로 강제이주시키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29) Robert Conquest, *The Harvest of Sorrow: Soviet Collectivization and the Terror-Famine*, London, 1986. Chapter 16.

30) 소비에트 농민정책 연구의 권위자인 로체 레빈은 1,0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강제이주 당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음에 틀림없다고 밝혔다(M. Lewin, *Russian Peasants and Soviet Power: A Study of Collectivization*, New York, 1975, p.508). 스탈린의 대테러 연구의 전문가인 로이 메드베데프는 스탈린의 집단화와 테러 과정에서 소련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3,800만 명이 고통을 받았고, 적어도 1,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Roy Medvedev, “The Suit Against Stalin”, *Moscow News*, No.48, 1988, p.9).

31)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200-201쪽.

다. 소련 중앙정부가 국경 안전을 위해 취한 예방적 조치로서 국경의 소수민족을 이주시킨다는 정책적 조치들은 이전에도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1936년을 거쳐 1937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강제 이주된 민족은 거의가 국경 밖에 자신의 동족을 지닌 이른바 ‘디아스포라 민족’이었다.

1936년 4월 28일 소련 국경의 공고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공화국의 국경지대에서 폴란드민족을 전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켰다. 이 지역은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경 800m 이내의 폴란드민족에 대한 “불온 분자” 제거 작업은 당시 양 공화국 서부지역 주민의 10% (35,820명)에 해당된 인구수가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1937년 7월 17일 국경지대를 특별금지지대로 설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단시일 내에 수만 명의 시민이 국경에서 소거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로 소련 남부 국경지대에 - 즉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 적용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 관구에 살고 있는 약 6만 명의 쿠르드인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으로 강제로 이주되었고, 관구는 폐지되었다.³²⁾ 체첸과 잉구세치야 공화국에서도 1만 4천 명을 체포해서 일부를 처형하고 남은 대부분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제 남은 곳은 시베리아 동쪽의 중국인과 고려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고려인들은 1937년 9월부터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공화국으로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는 민족이 통째로 강제 이주된 최초의 사례였는데,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에 걸쳐서는 서쪽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역시 거의 통째로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³³⁾

소비에트러시아 정권이 디아스포라 민족에게 토착화 정책을 취한 것은 디아스포라 민족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경 너머에 있는 그들 동족에게 보여줌으로써 소련에 대한 동경이나 호감을 이끌어내려던 의도였다. 동시에 국경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련이 제정기 이래 품고 있던 외국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버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비에트 러시아당국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 민족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는 서쪽에서의 나치의 등장과 동쪽에서의 일본의 위협의 증대였다.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국경너머 자신들의 민족에 협조할 경우 소비에트러시아의 안위는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도 있었다.

또한 나치의 생물학적 또는 혈통주의적 민족관이나 민족정책은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각 고유의 문화나 개성을 살릴 것을 전제로 하는 소비에트 민족관이나 민족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안티테제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공동생활을 통해 혈통과 계

32) 심현용,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고려인 강제 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2007, 29쪽.

33) 예를 들어, 체첸과 잉구세치야 자치공화국의 소수민족들은 1944년 2월에 집단적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은 1945년 5월 16일 독일군이 철수하고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크림리아의 타타르인들의 희생자는 전체 인구의 46%에 달했다.

보의 근원을 모두 없애고 접근과 융합을 성취해 더 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형태로 통합하는 과정을 가속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로서 민족 수가 되도록 빨리 줄어들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더는 소수민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1937년의 정치국 결정 등은 이런 정책전환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 수를 줄이려는 과제의 추구는 1936년에 스탈린에 의해 제시된 소비에트 민족 수를 60으로 줄이라는 지시로 구체화되었다.³⁴⁾

위와 같은 정책은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구체화되었다.

1931년 2월 4일 스탈린은 전체 사회주의적 생산 노동자대회에서 ‘생산담당자들의 과제’에 대해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전에 우리에게 조국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권력을 우리 인민들이 장악한 이제는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우리는 그 독립을 지켜야 한다.”³⁵⁾

이 연설에서 드러나듯이 스탈린을 비롯한 소비에트 정권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에게 계급이나 인종, 민족보다는 ‘사회주의 조국’, 즉 소비에트 애국주의라는 새로운 관념을 고취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는 소련의 주요 언론을 통해 널리 선전되었다.

소비에트 애국주의는 불타오르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고 모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며 모국의 운명과 방어에 대한 깊은 책임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저 깊은 곳에서 강한 샘물처럼 힘차게 솟아오른다.³⁶⁾

그리고 1936년 12월 초, ‘스탈린 헌법’이라 불리는 소연방 헌법의 제1조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고 선언했다.³⁷⁾

소비에트애국주의에 근거한 민족 불세비즘은 1936년경부터 1950년대 초까지 ‘최소 악’ 이론으로, 1950년대 초 이후에는 ‘절대 선’ 이론으로 발전해 갔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제정러시아가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전제국가이며, 소수민족을 합병한 것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다.³⁸⁾ ‘최소 악’ 이론은 이 합병을 새롭게 평가했다. 즉 비러시아

34) 유효중, 「러시아-소련에서의 ‘소수민족’-개념 변천의 정치사회사」, 202쪽.

35) И.В.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т.13. с.39.

36) Советский патриотизм, Правда, 1935. март. 19. 김남섭,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불세비즘’적 역사교육과 소수민족의 통합」,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동북아역사재단, 2008, 64쪽에서 재인용.

37) <http://www.hist.msu.ru/ER/Etext/cnst1936.htm>(검색일 : 2012년 8월 28일).

38) 이는 불세비키의 기본적 역사인식이었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구체화시킨 역사학자는 소비에트 시기에 활동하다가 1934년에 사망한 포크롭스키(М. Покровский)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섭,

소수민족이 러시아제국에 합병된 것은 러시아 외의 다른 어느 국가에 합병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절대 선’ 이론은 1952년 10월 제9차 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최소 악’ 이론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기에 제시된 이론은 “많은 민족들이 영국·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진적인 투르크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노예화되고 절멸될 위험에 처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는 합병만이 유일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래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주었다”³⁹⁾는 것이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비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편입되는 것이 진보적이며 유리한 것이라 선전되었고, 이는 러시아 중심주의라는 민족적 관점이 궁극적으로 승리했음을 의미했다.

소비에트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⁴⁰⁾ 승리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소련 인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고취하고자 한 애국주의는 실제로는 러시아 민족 정체성을 소비에트 국민들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러시아 중심주의의 형태를 띠었다. 전쟁에서 러시아인들의 군사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계급과 계급의식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소연방을 구성하는 다른 비러시아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중심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기 위한 슬로건이었고, 전쟁의 종결과 함께 러시아인들의 인종적 위대함이 무조건적으로 찬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은 1936년 소위 ‘스탈린헌법’을 공포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이곳의 소수민족이 민족의 경계나 구분들을 넘어선 소련으로 통합될 것으로 당시에 인식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5. 맺음말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소비에트러시아에서 민족정책은 이념과 이상을 넘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였다.

소비에트러시아체제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레닌이나 스탈린은 민족문제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해결 될 것으로 보았다. 단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스탈린은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불세비즘’적 역사교육과 소수민족의 통합」, 48-101쪽을 참조하십시오.
39) Lowell Tillett, *The Great Friendship : Soviet Historians on the Non-Russian Nationaliti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p.165; 김남섭,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불세비즘’적 역사교육과 소수민족의 통합」, 90쪽에서 재인용.
40)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대조국방어전쟁이라 부르며, 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베테랑으로 칭송하며 영웅 대접을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승기념일인 매년 5월 9일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참전용사들은 그들이 받은 훈장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치렁치렁 달고 다닌다.

문화적 자치주의에 반대하고 지역적 자치를 통해 소수민족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여기에 덧붙여 소수민족의 독립과 분리권을 허용하고 이들을 사회주의체제라는 거대한 틀 속에 통합하고자 했다.

소비에트러시아 체제가 성립된 이후, 민족정책의 근간인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실제 정책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17년 이후 1920년대에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비러시아인들, 특히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연방제를 통해 구현된다. 소비에트러시아정부는 이들 민족의 언어와 문화, 모국어를 통한 교육정책 실시 등을 통해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성숙한 문화민족으로 만들어 사회주의의 시민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의 조직이 생겨나고 모국어를 교육하는 학교가 생겨났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소수민족의 문화는 상당히 발전해나갔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전쟁의 암운이 깃들기 시작한 국제정세와 소비에트러시아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스탈린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의 판단은 민족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스탈린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강제적이고 전면적인 농업집단화와 급속한 공업화정책이 ‘사회주의조국’ 보호와 모든 소수민족의 ‘러시아화’라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농업집단화를 반발하는 농민들, 특히 비러시아인 소수민족 농민들을 사회주의의 적인 쿨락이라 규정하여 제거하고, 민족 색채를 탈색한 소비에트인민, 즉 러시아화된 인민으로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조국 러시아라는 민족 볼셰비즘 이데올로기가 활용되었다. 더 나아가 비러시아인들을 그들의 전통과 역사, 문화, 언어가 살아 있는 곳에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인민으로 통합해 나갔다. 특히 소비에트러시아 영역 밖에 주권과 영토가 있는 국가의 민족들과 동일한 민족들인 소위 ‘디아스포라민족’은 거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집단적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려인들이었다.

결국 러시아혁명 이전부터 레닌이 강조하던 민족정책인 민족자결주의는 혁명 이후 1920년대 연방제 실시와 소수민족 보호정책으로 구현되었지만, 192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30년대 중반에 스탈린에 의한 러시아중심주의적 ‘사회주의조국’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한국 청년혁명가들의 꿈의 상아탑: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배은경 (한국외대)



한국 청년혁명가들의 꿈의 상아탑: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배 은 경 (한국외대 역사학 박사)

시작하는 글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¹⁾은 러시아사 연구자보다는 일제 식민지시기 한국사회주의운동을 연구한 분들에게 더 친근한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모스크바 공산대학>, 짧게는 <공산대학>²⁾으로 잘 알려진 본 대학은 1921년 모스크바에서 설립되어 1938년까지 존속했던 아시아지역 공산주의 운동의 산실이었다. 코민테른의 지휘 통제 하에 있던 <공산대학>은 동방의 식민지 국가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혁명가들과 공산주의 이론가 및 소련 정보원들을 양성했다. 한국 공산주의운동과도 매우 친밀한 인연을 갖고 있다. 조봉암, 김 단야,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 윤자영 등 당대 한국사회주의운동과 조국해방에 투신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필자는 8년 전쯤 연구자들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뽕얀 먼지 속의 문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³⁾)⁴⁾에 소장된 532фонд(фонд)라는 문서들이었다. 이 사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분량의 방대함에 압도되어 쉽게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문서보관소에서 작업하면서 진정 순수한 호기심으로 <공산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열람자가 고작 두세 명에 불과한 연구적 희소가치를 갖는 사료와의 만남에 설레었고, 문서들을 들춰보면서는 한국인에 관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음에 놀랐다. 532фонд는 대량의 문서모음이다. 일반적으로 문서보관소에 신청할 수 있는 복사량은 1년에 500쪽 정도로 제한되어있어, 대부분의 내용들은 노트북에 직접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문서는 보통 손으로 쓰인 것들이라 컴퓨터에 그 내용을 담기란 쉽지 않았고, 약 절반 정도의 문서들

1) 러시아어로는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трудящихся Востока имени Сталина(КУТВ)이다.

2) 향후 본고에서 <스탈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은 <공산대학>으로 약칭한다.

3) РГАСПИ는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의 축약어.

4) 앞으로 본고에서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는 РГАСПИ라는 러시아어 약어로 통일한다.

만 정리한 후 필자는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공산대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고민하던 2006년 국가기록원이 필자가 한때 천착했던 532폰드 문서철을 통째로 입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필자는 원시적 상태로 놓여있던 문서들을 찾기 위해 보냈던 2년여의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일단 기록원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되리라 기대했다. 솔직히 필자의 문서 수집 상태는 1933년 초반까지의 문건들에 그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것도 완결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산대학>을 독립주제로 다룬 연구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본 논제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것을 필자의 알팍한 지적 호기심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작은 의심에서부터 단순히 코민테른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하나의 작은 망루에 불과한 <공산대학>이기에 코민테른이라는 큰 산의 연구가 더 시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고민은 복잡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는 한국 열혈청년들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문서들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

본고는 분명 <공산대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아니다. 단지 그 주제가 갖는 연구적 가치를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하는 겸허한 제출서에 불과하다. 필자의 주제 노출이 다음 연구로의 작은 행보로 이어져 <공산대학>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본 문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것이다. 하나는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РГАСПИ)에 소장된 532폰드에 대한 해제, 두 번째는 <공산대학>에 대한 짧은 소개, 마지막으로 <공산대학>과 한국혁명운동과의 관계를 간략히 해명하면서, 논제가 갖는 학술적 의미를 새롭게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I

러시아를 떠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퀘퀘한 냄새가 나는 어두운 열람실의 풍경은 여전히 구소련적일 것이다. 굵고 짙은 안경테의 돋보기를 쓰고 무표정한 시선으로 조그만 사각방의 어딘가를 응시하는 사서의 친절함이 없다면, 문서찾기를 일

부 포기해야할 정도로 아직은 관료적이며 행정적인 그 곳에서의 필자의 작업성과는 긴 세월을 버티며 자주 찾았다는 것. 그래서인가 문서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감지할 수 있는 체험적 능력을 조금은 갖게 된 것 같다. <공산대학>의 히스토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РГАСПИ의 532폰드에 손길이 닿은 이유도 어찌 보면 그런 감각이 이끈 결과가 아니었을까.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자료검색 및 열람 시스템은 최소한 필자가 작업했던 6년 전만 해도 아날로그적 방식에 의지하고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큰 주제 검색은 가능했다. 그러나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 만들어진 자료검색 책자를 한 장 한 장 읽어보아야 어떤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의 내용을 갖는 문서들의 경우, 문서 작성 시기나 기록 담당 기관 등에 기준해 대충 거두어 모아져 있곤 했다. 그런 경우,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봐야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문서보관소에서 하나의 폰드로 분리 독립된 테마를 만나게 되면 ‘중요한 문서’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산대학>에 관한 문서모음 폰드 532 역시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필자의 짐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공산대학>에 관한 사료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한국학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으로 러시아의 근현대사 연구를 위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자료들이 풍부히 소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서 저장 창고이다. 그래서 저명한 일본학자인 와다 하루키 선생이 소박한 차림으로 문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은 결코 이곳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РГАСПИ는 1999년 3월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및 연구센터(РЦХИДНИ,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와 ‘청년조직문서보관소(ЦХДМО,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молодё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서보관소이다. ‘청년조직문서보관소(ЦХДМО)’는 1992년 구소련 해체 후 ‘전소연방 레닌공산청년동맹 중앙문서보관소(ЦА ВЛКСМ,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ВЛКСМ)’에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및 연구센터(РЦХИДНИ)’ 역시 같은 해 ‘구소련공산당 산하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의 중앙당문서보관소(ЦПА, 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에서 개명되었다. 후자는 한국 연구자들에게 매우 친근한 명소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사료 발굴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은 한국학자들은 주로 이곳에서 작업했고, 필자 역시 한국학자들과의 만남의 장소 중 한 곳으로 РЦХИДНИ를 말할 수 있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는 1617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에 작성된 문서들의 691개 폰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집문서보관철⁵⁾의 수는

18만2천을 상회한다.⁶⁾

<공산대학>에 관한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의 532фонд(фонд)는 15개 오피시(опись)와 12413개 켈로(дело)로 구성되어 있다.⁷⁾ 오피시 1과 2는 1921년에서 1937년까지 공산대학에서 활동했던 정치조직들, 소련공산당, 콤소몰, 그리고 ‘민족주의 및 식민주의 문제 과학연구소’⁸⁾의 회의록 등 관련 문서들과 학교행정 및 사무, 학칙에 관한 다양한 문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피시 7, 8, 11~15에서는 대학 총무과에서 작성한 문서들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상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피시 3과 10은 회계업무에 관한 기록들이며, 오피시 4와 9는 공산대학 도서관과 연구실 업무 관련 문서들이다. 오피시 13은 졸업생들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피시 5와 6에서는 공산대학 교지인 『혁명 동방』 9)의 편집부 활동 문건들과 발행 잡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¹⁰⁾

우리는 фонд532, 오피시1, 켈로2~4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자치 단체의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 결과로 작성된 회의록과 학생 관리를 위해 보고된 문건들 그리고 학생 개인에 대한 학업평가서 등을 모아놓은 이 문서함에는 한국학생 명단과 그들의 학업 관련 평가 및 정치 활동의 행적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켈로 2는 <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한 회의록을 모아놓았는데, 그 자료들에서 필자는 한국학생들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1921년 모스크바에서 설립된 <스탈린 극동노력자공산대학>은 1938년까지 활동하며 아시아권 청년혁명가들의 꿈의 상아탑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본 대학은 세계혁명을 위한 전위적 일꾼을 키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고, 코민테른(Коминтерн)의 관할하에 있던 특수 교육기관이었다.

1921년 2월 10일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같은 해 4월 21일 ‘전러시아중앙 집행위원회¹¹⁾’의 법령이 선포되면서, <공산대학>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¹²⁾ 교육인민위원회¹³⁾의 산하 단체로 출범했고, 1921년

5) 러시아어로 Ед.хр. (Единица хранения)이다.

6) <http://ru.wikipedia.org/wiki/%D0%A0%D0%93%D0%90%D0%A1%D0%9F%D0%98>

7)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ЦХИДНИ. Москва, 1993, 88쪽.

8) НИИНКП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циональных и колон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9) 『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сток』 .

10)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ЦХИДНИ. Москва, 1993, 88쪽.

11) ВЦИК.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10월 21일에는 민족업무담당인민위원회¹⁴⁾ 산하 동방학[東方學] 연구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1923년 드디어 '스탈린'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고 명실상부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¹⁵⁾

<공산대학>은 73개 민족을 아울렀던,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교의 면모를 갖췄던 교육기관이었다. 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분류한다면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한 집단은 구소련 내 아시아지역권 소비에트 공화국 출신의 학생들로 지역 당 및 소비에트 관료로 성장하기 위한 일 단계로 <공산대학>에서 교육받고 배출된 러시아 국민이며, 다른 한 집단은 외국인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조국으로 돌아가 정치활동가나 혁명가, 소련의 첩보원으로 활약할 인물들이었다. 이 두 집단은 <공산대학> 졸업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공산대학>은 타슈켄트, 바쿠, 이르쿠츠크에 지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소련 개국공신이자 1920년대 교육인민위원회 인민위원을 역임했던 루나차르스키(А. В. Луначарски), 소비에트 당 활동가였던 크라신(Л. Б. Красин),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였던 포크롭스키(М. Н. Покровский),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이자 역사학자였던 구베르(А. А. Губер), 인도 및 아프카니스탄을 비롯한 동방학 지역 전문가였던 레이스네르(И. М. Рейснер), 스탈린 집권기 가장 유명했던 외교관 슈먀츠키(Б. З. Шумяцкий) 등 1917년 혁명과 시베리아 내전, 그리고 구소련 국가설립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유력인사들이 교수들로 대거 영입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공산대학>에게 부여된 그 위상과 역할이 적잖이 중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22년 <공산대학>의 초기 학부는 크게 2개의 기준으로 나뉘었다. 우선은 출신 지역별 분류였다. 자카프카즈 지방, 볼가강 유역, 시베리아, 크림지역, 외국, 기타, 이렇게 총 6개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자카프카즈 지방에는 페르시아인, 볼가강 유역에는 리트비아인, 시베리아 지역에는 부랴트인, 크림지역에는 타타르인, 외국지역에는 루마니아인, 한국인, 페르시아인, 힌두인, 투르크인, 이집트인, 기타지역에는 유대인과 러시아인이 편성되어 있었다. 또 다른 기준은 언어였다. 중국과, 영어권역과, 프랑스과, 한국과, 러시아과로 나뉘었으며, 중국과에는 중국인들이, 영어권역과에는 중국인, 힌두인, 유대인이, 프랑스과에는 타타르인, 크림인, 투르크인, 이집트인이, 한국과에는 한국인이, 러시아과에는 부랴트인, 러시아인, 페르시아인, 한국인, 중국인, 투르크인이 소속되었다. 1923년 3년제 대학으로 승인받고

12) РСФСР (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ль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13)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просвещения (Наркомпрос).

14)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КНац или Наркомнац).

15) <http://ru.wikipedia.org/wiki/%D0%9A%D0%A3%D0%A2%D0%92>

진정한 최고학부로 인정받게 된 <공산대학>의 전공별 학부로는 정당 사업 및 정치계몽 학부, 노동조합운동 학부, 경제학부, 행정법학부가 있었다. 이 외에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정이 있었는데, 여름캠프의 군사훈련이 그것이었다.¹⁶⁾

<공산대학>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술연구 사업에도 주력했다. 1927년 ‘소비에트 및 해외 동방지역의 사회·경제 및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제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회’가 만들어졌다. 10여년 후인 1936년 이를 계승하여 ‘민족주의 및 식민주의 문제 과학연구소(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циональных и колониальных проблем)’가 외국분과에 개설되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동방 식민지 국가의 독립과 혁명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분석자료 준비, 아랍, 아프리카, 인도, 터키, 일본 등 해외에 개설된 지역학과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공산대학>은 1927년 “『혁명 동방』 (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сток)”이라는 잡지를 개간했으며, 이 잡지는 1937년 폐간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38년 <공산대학>은 폐교되었다.¹⁷⁾

<공산대학>은 중국의 덩샤오핑, 베트남의 호찌민, 일본의 가타야마 센 등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전설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산대학>의 존재성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이며,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연구의 이유이기도 하다.

III

이제부터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산대학>의 한국인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본고 도입부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거두 조봉암을 비롯하여 김단야,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 등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많은 활동가들이 <공산대학>에서 배출되었다. 필자는 다양한 문서들에서 그들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대학시절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했음에 친근함을 느끼기도 했다.

16) 「사회신분과 민족성에 따른 총괄보고서」 1922. 11. 15,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49об.

17)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ЦХИДНИ. Москва, 1993, 87-88쪽.

<공산대학>의 입학은 주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 러시아공산당, 코민테른 등의 추천으로 가능했으며¹⁸⁾. 입학생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의 중앙위 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조봉암 역시 1921년 4월 13일 코민테른의 추천으로 본 대학에 입학했다.¹⁹⁾ <공산대학> 최초의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들로 최성우, 홍석희, 전봉준, 이지택, 고흥수, 김동명 등이 있었다.²⁰⁾ 한편 학생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가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과 가명을 대조 확인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자의 협조가 절실함을 말하고 싶다.

<공산대학>의 입학은 추천에 앞서 ‘할당’으로 그 입학권이 부여되었다. <공산대학>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코민테른 본부가 각국 공산당에 입학생 인원수를 할당했으며, 그 수에 맞춰 각 나라 공산당은 학생을 선출해 모스크바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²¹⁾ 1922년의 기록을 보면 부친, 평안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공산대학>에 입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 <공산대학> 입학은 이미 조직적인 사업 중 하나였음을, 더 나아가 혁명을 꿈꾸는 한국학생들에겐 간절했던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²²⁾

<공산대학>은 초창기부터 한국학생들을 대거 수용했다. 1922년 11월 15일자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공산대학에 재학했던 한국인은 18명, 전체학생의 33%를 차지했다. 그 중 한국과에 소속된 학생이 12명이었고, 나머지 6인은 러시아과 학생들이었다.²³⁾ 여기서 한국과 학생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온 경우일 것이고, 러시아과 학생들은 고려인으로 짐작된다.

한국학생들은 졸업 전후로 다양한 실습을 위해 견학을 가게 되거나 파견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나약했던 학생들은 주로 노동현장으로 보내져 훈련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

18)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6」 1922. 8. 31,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6.

19)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2」 1922. 8. 1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2: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16」 1922. 9. 2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18об.

20) 「터어키, 페르시아 등 해외의 다른 동방의 나라들로부터 온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학생 명단」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53-54.

21)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2」 1922. 8. 1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2: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16」 1922. 9. 2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18об.

22)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2」 1922. 8. 1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2: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16」 1922. 9. 20,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18об.

23) 「사회신분과 민족성에 따른 총괄보고서」 1922. 11. 15, РГАСПИ. ф.532 оп.1 д.2 л.49об.

다.24) 또한 개인적 재능과 자질에 따라 군사학교나 러시아내 당 및 소비에트 조직들로 파견되거나, 한국으로 보내졌다.25) 그 당시 한국학생들이 주로 연수했던 곳은 레닌그라드 군사학교와 모스크바 시외에 위치한 생산현장들이었다. 견학기간은 대략 1년 반 정도였고, 이수 후 대부분 학교로 복귀되었다.26) 그 밖에도 출신 성분에 따라 실습장소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1927년 소작농 출신 학생 김연우(Ким Ену)는 노동조합 인터내셔널(Профинтерн)이 정해준 농장으로 보내졌고, 어부 출신 박진(Пак Тин)은 선원으로 단기실습을 체험하기도 했다.27)

이처럼 <공산대학> 학생들은 재학 중이나 졸업 후 다양한 지역과 단체로 파견되었다. 1927년에 조선과 간도, 연해주 등으로 차출된 학생명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과연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 없다. 단지 추론해 본다면, 공산당 조직과 산하단체 등으로 실습을 위해 보내졌거나, 해외로 첩보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실제로 사업의 절대 지휘권자는 코민테른이었으므로, 그 조직의 내부문건을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산대학> 문건에서는 그 파견자 명단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으로 파견된 인물들은 고향수(Ко-Хансу), 조준(Чо-Дюн), 김연우(Ким Ену), 한상희(Хансанхи), 김호(Кимхо)였고, 연해주 지역으로는 오가이(Огай)와 유가이(Югай)가28) 차출되었다. 그 밖에도 연해주 출신 한인이며 러시아 공산당 후보당원이었던 박찬오(Пак-Тяно)와 연해주 출신 박아니샤(Пак-Анисья), 간도 출신 노천묵(Но-Чен-Мук)은 연해주로, 연해주 치타 출신 리태연(Литхаен)은 치타로, 간도 출신 최성철(Цай Сентир)과 이준혁(Ли-Дюн-Хек)은 간도로, 전러시아 레닌 공산청년동맹(ВЛКСМ) 당원인 한국학생 오철두(О-Чертю)는 한국으로 파견되었다.29)

코민테른은 <공산대학>의 학생 선발과 파견 업무의 결과가 그 성공률로 볼 때 대략 25-30%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를 학생 선발의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및 러시아 변방지역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ИККИ) 국제관계과 대표자들과 <공산대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28년 8월 28일 <공산대학> 총장이었던 슈마츠키(Б. Шумяцкий)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장 모스크빈

24)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한국학생 감사에 따른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발취문」, РГАСП И. ф.532 оп.1 д.8 л.10.

25) 「1924년 11월 29일 열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РГАСПИ. ф.532 оп.1 д.8 л.29об.

26) 「1924년 11월 29일 열린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자격심사위원회 회의 프로토콜」, РГАСПИ. ф.532 оп.1 д.8 л.30.

27) 「노동조합 인터내셔널 실습학생 명단」 1927. РГАСПИ. ф.532 оп.1 д.45 л.149.

28) 이들은 고려인으로 추측된다.

29) РГАСПИ. ф.532 оп.1 д.45 л.154.

(Москвин)에게 극비 서한을 보냈다. 슈마츠키는 외국학생 중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인물을 선발하여 외국으로 파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될 특별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소비에트당학교의 남만춘을 추천했다.³⁰⁾³¹⁾ 공산대학 총장은 일반적 의미의 대학총장이 아니었다. 동방국가에 파견할 정치요원에 대한 교육 및 차출, 그리고 해외 혁명운동의 조직사업에 이르기까지 해외정치공작사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산대학> 학생의 해외파견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보내졌다. 1928/29학년도³²⁾ 1년 동안 <공산대학>에서 타 조직 및 해외로 파견된 학생 수는 207명이었고, 그 중 10명이 한국인이었다.³³⁾

<공산대학>으로의 한국학생 입학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도 한국학생은 꽤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1926년 3월 1일 기준, 전체 외국인 반 학생 수는 289명이었는데, 그 중 한국인은 48명으로 85명의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당시 일본인 27명, 몽골인 26명, 페르시아인 23명으로 한국청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³⁴⁾

1929년 12월 13일에서 19일까지 개최된 한국반과 일본반의 합동회의 속기록에서 필자는 낯익은 조선혁명가들의 가명들을 발견하며 마치 옛 인물들과 직접 조우하는 듯 가슴이 설레었다. ‘이춘(Ли-Чун)’이라는 박헌영의 유명한 가명을 비롯해 그의 아내 주세죽, 최성우, 임민호, 김치곤 등 한국민족운동사에 이름이 등재된 인물들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 문자들의 행렬에서 그들의 생생한 삶의 행적을 느낄 수 있었다.³⁵⁾

30) 「슈마츠키(Б. Шумяцкий) 공산대학 총장의 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장 모스크빈(Москвин)에게 보낸 서한」 1928. 8. 28. РГАСПИ. ф.532 оп.1 д.51 л.31-31об.

31) 그 당시 <공산대학>의 한국입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스크바로 갈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임시 머물렀다 가는 행로를 취했다. 그래서 남만춘과 같은 사상성이 투철한 지역유력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1927년 6월 2일자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조선으로 파견될 한국인 명단」 1927. 6. 2, РГАСПИ. ф.532 оп.1 д.45 л.27.

32) 러시아 학제는 9월에 1학기가 시작되어 다음해 6월 초 2학기가 끝난다.

33) 「1928/29년도 극동노력자공산대학 특수국 최종 세부 배당 인원」 РГАСПИ. ф.532 оп.1 д.51 л.49.

34) 「1926년 3월 1일 기준 민족과 당성[黨性]여부에 따른 외국인반 구성」 РГАСПИ. ф.532 оп.1 д.44 л.9.

35) 「극동노력자공산대학 조선 및 일본 그룹 합동회의 회의록」 1929. 12. 13-19, РГАСПИ. ф.532 о п.1 д.86 л.1-133.

맺음말: 연구는 계속된다

한 달쯤 전인가 논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 한러관계사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문제제기가 필요한 주제가 없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필자는 바로 <공산대학>을 떠올렸다. 항상 어렵게 느껴져 다가가기 어려웠던 연구과제였으나, 마음에서 놓칠 수 없던 화두였기에 선뜻 본 주제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백 장에 달하는 주로 손으로 쓰인 사료들의 연구 없이 논문을 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의 해제만으로도 책 한권을 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작은 논문 한편을 쓴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본고가 문제 제기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대학>이라는 주제로 독립 연구가 시작되었음에 의미를 주고 싶다. 연구의 첫 출발로 우리는 <공산대학>에서 유학했던 한국학생들의 행적을 찾아 볼 것이며, 그들의 졸업 후 행로가 어땠는지, <공산대학>과의 인연이 그들 운명에, 더 나아가 조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스탈린 극동노력자공산대학>은 혁명을 꿈꾸는 동방 젊은이들의 ‘꿈의 공장’이었다. 그들이 혁명가들의 영원한 멘토인 레닌의 조국이며, 붉은 혁명이 성공한 모스크바의 하얀 눈 쌓인 거리를 걸으며 얼마나 큰 희망을 꿈꿨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들의 주장과 행동의 정당함을 논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실재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한국 근현대사의 작은 한 쪽이라도 설명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본 논문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공산대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졸고를 마무리한다.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스탈린의 한인 숙청과 강제이주
윤상원 (동국대)



스탈린의 한인 숙청과 강제이주

윤 상 원 (동국대)

<목차>

1. 들어가며
2. 소련의 변경정책 변화와 연해주 한인
 - 1) 국제정세의 변화와 소련의 대응 - 변경정책의 변화
 - 2) 극동 연해주에서 일본의 정보활동과 한인
3. 소련의 민족정책 변질과 한인 숙청
 - 1) ‘대러시아 민족주의’
 - 2) 숙청
4. 나가면서 - 꼬리가 흔들린다고 몸통을 베다.

1. 들어가며

1937년 가을 러시아 극동지역 연해주에 거주하던 약 18만 명의 한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구고 가꾸어 온 땅에서 쫓겨나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전혀 낯선 땅으로 떠났다. 자신들이 키워왔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지도자들은 몇 년 전부터 하나 둘씩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다. 그렇게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쳐진 이들은 다시금 살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고향으로부터 수 천리 떨어진 낯선 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그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들은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하고 또 자식을 낳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한 통의 명령서였다. 1937년 8월 21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 의장인 몰로토프와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이 서명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와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중앙위

원회의 결의안 No.1428-326cc」이 그것이다. 러시아 극동 변경주 국경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을 추방하라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실로 엄청났지만, 그 이유는 극도로 간단하고 명료했다.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이었다. 이 얼토당토않은 이유 때문에 18만 명의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이다.

강제이주의 이유가 위 명령서의 내용처럼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한인 강제이주의 원인을 요약하면 첫째, 위 명령서에 나타난 그대로 일본의 첩보활동에 한인들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이유, 둘째, 한인들이 소련 극동지역에서 한인자차구역을 주장할 지도 모른다는 소련당국의 우려, 셋째, 농업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준 한인들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를 개발하려는 의도, 넷째, 농업집단화와 관련된 한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토지문제와 관련된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원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떤 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이상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한인 강제이주로 나타났다는 것이 기존연구의 대략적인 결론이다.

필자는 강제이주의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의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러 원인이 정책으로 작동되는 데는 역사적 과정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여러 원인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원인과 표면적인 원인을 구분하고,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원인의 순서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인들이 일본의 첩보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은 실제 일어났던 일제의 정보활동과 어우러져 연해주를 비롯한 소련의 한인 지도자들을 숙청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즉 1930년대 소련의 한인 숙청과 1937년 강제이주는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스탈린 시기 한인 숙청의 내용과 과정을 밝힘으로써 한인 강제이주의 전모를 밝히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연해주에서 일어난 실제 일본의 첩보활동에 한인들이 이용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빌미로 한인 지도자들이 숙청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소련의 변경정책 변화와 연해주 한인

1) 국제정세의 변화와 소련의 대응 - 변경정책의 변화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모하여 갔다. 1929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는 전 세계를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었다. 대공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세력이 권력을 잡고 군국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며,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침략하여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관동군을 만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유라시아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 전쟁의 기운은 점점 더 무르익고 있었다.

이즈음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었던 소련은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되었다. 소련으로서는 서쪽에서는 독일의 군대와 동쪽에서는 일본의 군대와 대치해야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파시스트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에 대한 유화조치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소련은 1935년 3월 만주를 관통하는 동청철도를 일본에 매각하였다. 1929년에는 동청철도를 두고 중국 군벌정권과 전쟁까지 불사한 소련이었지만, 만주국 설립 이후 점증되는 일본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소련은 동청철도의 경영은 만주국과 함께 하지만 철도 자체는 소련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지만, 동청철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1) 결국 소련은 “賣却交渉은 蘇聯의 平和行動을 가장 端的으로 表明한 것”2) 이라고 하며 일본과 ‘동중철도양도협정(東中鐵道讓渡協定)’을 체결하고 동청철도를 매각하였다.3) 『선봉』에서는 비준된 협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철도의 매각이 “쎄쎄쎄르와 일본 및 만주국 사이에 평화를 보장하려는 쎄쎄쎄르의 진실한 욕망”이라고 평하였다.4)

이와 함께 스탈린을 위시한 소련 지도부는 대내적으로 국경지대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소련은 앞으로 예상되는 적국 또는 그 국가의 동맹국의 민족이 소련에 거주할 경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경 불안정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잠재적 적국의 민족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우선 소련은 서부전선에서부터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강제이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 4월 28일 소비에트 서부지역으로서 폴란드와 접한 국경 800m 지대에서 폴란드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소련 내륙으로 이주되었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 공화국으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불순분자” 3만 5천 820명이 민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것이다. 이 인원은 양 공화국 서부 국경지역 주민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계 민족들도 포함되었다.

국경지역 강화를 위한 국경지대 주민에 대한 강제이주 조치는 소련 남부지역에서도 실시되었다. 소비에트 정부와 당은 1937년 7월 17일 남부 지역에 특별금지지역을 공식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짧은 시일 내에 수천명의 주민들 소거시켰다. 해당 국

1) 「赤衛軍 集結, 露滿國境 緊張. 東中鐵道 沿線 畢竟 八個所 封鎖」, 『朝鮮中央日報』, 1933. 4. 15, 1면; 「東中鐵道問題로 蘇政府 通牒 發表」, 『朝鮮中央日報』, 1933. 4. 27, 1면.
 2) 「北鐵讓渡에 關한 蘇聯 리氏의 言明」, 『동아일보』, 1935. 3. 16, 1면.
 3) 「北鐵讓渡協定 日滿蘇間에 假調印. 正式調印은 廿二日」, 『동아일보』, 1935. 3. 12, 1면
 4) 「중동철도에 대한 협약의 비준 서명의 내용」, 『선봉』, 1935. 3. 17, 4면.

경지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에 걸쳐 있으면서 터키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즉 이들 지역 국가들과 내지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해 당사국과의 갈등에 대비해서 소비에트 정부는 미리 국경주민들을 내륙 후방으로 추방시킨 것이다. 이때 인종청소의 주요 대상이 된 민족이 쿠르드인 1,325명이었다. 이들은 터키와 이란 등에 광범위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여러 국가들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관계로 항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소련 지도부는 이들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떼지 않았으며 결국 강제 추방이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⁵⁾

즉, 소련에서 강제이주는 단지 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작업은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는 소련 지도부의 변경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변경정책의 대상에서 극동 연해주의 한인도 예외일 수 없었다. 소련은 동청철도를 일본에 매각하는 등 유화적 행동을 취하기도 했지만,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일본의 활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속에는 일본의 첩보활동과 이에 이용되는 한인들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2) 극동 연해주에서 일본의 정보활동과 한인

1932년 7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 산하에 극동위원회(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иссия при ЦК РКП(б))를 특별히 설치하였다. 스탈린체제의 핵심인물들인 스탈린, 몰로토프, 까가노비치, 아르쥬니끼제, 보로실로프가 위원으로 선임된 이 극동위원회에서는 극동지역의 국내 민족문제를 침략적인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비한 맥락 속에서 대책들을 거론하였다.⁶⁾ 연해주지역의 한인문제 또한 극동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 위원회는 연해주 한인문제를 당시 국제정세와 긴밀히 연결시켜 판단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판단근거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이 아닌 잠재적 적국인 일본과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의 안전강화였다. 즉 일본의 대소련 첩보전략에 한인들이 이용될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 그리고 당시 일어난 몇몇 사례들은 그들의 염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의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소련 지도부의 염려를 증폭시킬 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일어났다.

1934년에는 만주로부터 잠입한 군사 정탐인 김자연을 ‘괴수’로 하는 러시아 철도운수 관계자들이 ‘비밀재료 수집에 대한 넓은 정탐적 활동’을 전개하고 ‘철도의 전복을 조직’하거나 ‘기관차 수선공장의 설비품을 못쓰게 하는 일로써 철도운수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해독

5) 심현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타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39집 3호, 1999, 210쪽.

6) РГАСПИ, ф.17, оп.162, д.13, л.11.

적 실습을 실행'하여 7월 27일 23인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 중 김자연과 교통인민위원회 기관차관리국의 기사인 쏘라쓰제인 등 8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즉시 처형되었다.⁷⁾ 한인이 관계된 사건은 아니지만 '트로츠키주의적 탐정의 광신자'인 크냐제프는 1935-1936년 동안 13-15번의 철도 전복을 조직하여 사망 63명, 부상 54명의 피해를 낳았다.⁸⁾ 또한 1937년 7월에는 철도파괴, 건축물 폭발, 水源에 독극물 살포 등의 혐의를 받은 '트로츠키주의자-일본정탐-비밀파괴단체 참가자'들이 하바로프스크(35명), 자유시(66명) 그리고 블라디보스톡(18명)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⁹⁾ 이들이 실제로 일본 정탐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전체주의적 권력체제의 특징인 위험분자의 감시와 조사 등이 기존 권력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에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러시아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에 러시아 전역에 7,161개 파의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중 시베리아와 극동의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1,576개 파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일본정탐으로 몰려 국경지역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이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일본 유격대의 국경침범과 한인정탐조직의 발각은 러시아보안당국의 한인들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일본 도쿄 주재 소련 전권위원인 유레네프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항의한 바에 따르면 1935년 5-7월의 두 달 동안에만도 여섯 번에 걸친 국경지역에서의 총격사건과 일본군의 국경침범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 1936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하바로프스크에서는 원동특립군단 군사재판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소비에트 국경을 넘나들며 군대에 대한 재료들을 수집한 열성적 정탐배 또는 유격자인 임성도와 오규현", "1935년 10월 25일 국경을 넘어오다 국경수비대들에게 체포된 유격단의 일원인 김이섭, 박영하", "9월 3일 국경을 넘어온 파시스트 망명자들의 강도단 단장인 쉐메나 게오르기", "정탐배들과 유격대들에게 자택을 제공한 주희순" 등 21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 중 게오르기, 임성도, 김이섭, 박영하, 주희순은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다.¹¹⁾ 1936년 8월에는 30명의 비밀파괴 참가자들, 정탐, 국경침범 무장대원들이 소련군에게 체포되었다.¹²⁾ 1937년 6월 5일에는 소비에트-만주 국경을 넘어오는 무장대가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진 결과 1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주했는데, 죽은 이를 확인해 보니 그는 일본 경찰이었다.¹³⁾

이처럼 국경지대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

7) 「철도운수에서의 군사 해독-정탐 단체」, 『선봉』, 1934. 8. 7, 4면

8) 「일본정탐」, 『선봉』, 1937. 8. 1, 2면.

9) 「잡보」, 『선봉』, 1937. 7. 6, 4면.

10) 「쑤베트 국경의 새 위법사건을 반대하는 동경에 주재하여 있는 쉐셰셰르 전권대표 유레네프 동무의 항의」, 『선봉』, 1935. 7. 6, 4면.

11) 「정탐과 유격자들의 사건」, 『선봉』, 1936. 1. 2, 4면.

12) 「쑤베트 원동변강에서의 외국정탐」, 『선봉』, 1937. 5. 1, 2면.

13) 「일본 경찰들이 쉐셰셰르 국경을 위법」, 『선봉』, 1937. 6. 23, 3면.

크 등 극동의 중심지에서 열린 당과 정부의 각종 회의의 의사록에는 국가에 대한 배반, 반역,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한 고발문과 조사자료가 넘쳐났다. 소련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소련공산당 기관지인 『쁘라브다』(Правда)는 1937년 4월 23일 「소비에트 극동지역의 외국인 첩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인 첩자와 이에 고용된 한인들이 집단 농장, 노동조합, 소년단과 공산 청년 동맹 등의 요원으로 침투하였고, 소련 군대의 집결, 해군의 이동과 철도운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인과 중국인들이 소련 극동지역에서 주민으로 가장하여 첩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에 호응하여 『선봉』은 『쁘라브다』에 연재되는 원동지역의 일본정탐에 관한 기사와 사설들을 연일 번역, 연재하였다. 알 하마딘의 「일본정탐계통」과 「일본정탐」 그리고 「일본정탐부의 파탄적 사업」은 일본정탐기관의 광범한 활동을 부각시키고 특히 트로츠키주의자, 부하린파, 백계러시아인들과 함께 한인과 중국인들을 ‘일본정탐원 인재의 원천’으로 지목하였다.¹⁵⁾

『쁘라우다』와 『선봉』 등에 실린 각종 기사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대소련 정보활동은 분명 존재했다. 일본은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과 조선에 주둔한 조선군을 이용해 정보활동을 벌였다. 관동군과 조선군은 각각 특무기관을 설치하여 소련의 일반 정정과 연중행사의 파악, 군사정보의 입수, 소련 신문의 입수 및 번역, 라디오방송의 청취 등의 정보활동과 소련 스파이적발 등 방첩활동, 국경지대에서의 보안검열, 대외 첩보활동 등을 벌였다.¹⁶⁾ 이로 유추해볼 때 연해주 한인들 중 일부가 일본의 첩보활동에 가담했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즉 연해주의 모든 한인들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듯이, 소수이지만 친일파적인 행위 스파이 활동을 했던 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강제이주의 피해자인 고려인 학자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그런 면에서 솔직하다.

풍문에 따르면 우리는 일본의 충실한 밀정, 스파이, 밀수꾼이었습니다. 이러한 풍문들은 1930년대 후반 극동국방수비대에서 내놓은 발표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본인 밀정을 숨겨준 조선 노인에 관한 단편소설을 읽을 때 나를 바라보던 동급생들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욱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큰아버지는 후사가 없는 백부(내 조부의 큰 형)의 부음을 들은 뒤 친척이 모두 ‘그 곳’에 있던 아내의 고집에 못이겨 1920년대 말-30년대 초에 국경선 어딘가로 넘어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기와집과 땅을 상속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밀수업자를 잡으러 가던

14) И. Володин, Иностраннный шпионаж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авда, 1937. 4. 23, с.5.

15) 「일본정탐계통」, 『선봉』, 1937. 5. 1, 5. 23; 「일본정탐」, 『선봉』, 1937. 7. 12; 「일본정탐부의 파탄적 사업」, 『선봉』, 1937. 8. 6.

16) 이상일, 「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배경과 일본의 對蘇 정보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9집, 2002, 303-308쪽.

총든 부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¹⁷⁾

결국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연해주에 한인들을 일본의 스파이 내지는 적어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여 전면적인 이주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3. 소련의 민족정책 변질과 한인 숙청

1) ‘대러시아 민족주의’

독일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일국사회주의론을 앞세운 스탈린의 ‘사회주의 조국’이라는 레토릭이 등장하면서 소련의 민족정책은 헌법의 이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1920년대 말 소비에트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지면서 더욱 더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은 스탈린은 네프의 폐지를 단행했다. 농민과의 협동은 깨지고, 민족계약도 폐기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부활과 사회 곳곳에 불어 닥친 숙청의 바람이었다.

스탈린에게 민족이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기질의 공동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역사적 범주였다. 민족은 자본주의와 결부된 것이었고, 부르주아적 민족은 자본주의 몰락과 함께 소멸될 운명이었다. 스탈린에게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서 소비에트 연방체도로 육성되는 민족들의 ‘발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들은 사회주의 발전에 따라 소멸할 것이고 또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 스탈린의 기본 생각이었다. 스탈린에게 사회주의는 민족의 상위개념이었으며 지고의 가치였다. 그는 소비에트 민족들에게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집단적으로 복무할 것을 강요했으며 ‘사회주의의 조국’을 배신한 민족을 처벌하기도 했다.¹⁸⁾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가 대러시아 민족주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주의 조국’은 대러시아 민족주의와 결합되었다. 그 결합은 연방 내 민족들 간의 불평등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그리고 연이은 대숙청으로 이어졌다.

소련은 헌법에서 ‘인민의 민족적 발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민족 간 차별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인이 대거 거주하고 있던 연해주에서도 심심찮게 보인다. 우선 연해주 당정과 소비에트의 주요한 간부 구

17) 스펜 김, 「해외한인의 편지-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와 잃어버린 모국어」, 『역사비평』 10, 1990, 130쪽.

18) 서규환, 이완중, 위의 논문, 19쪽.

성에서 소수민족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31년 11월 22일 원동변강집행위원회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정부꼬미시아(위원)의 보고를 살펴보면 연해주의 소수민족들은 소비에트 개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소비에트 개선에 참가한 민족들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인 58%, 러시아인 55%, 중국인 53%, 고려인 52%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기관들의 상무위원부를 살펴보면 농촌소비에트에는 고려인 18.2%, 중국인 0.6%이고, 시소비에트들에는 고려인이 5.8%, 중국인이 6.6%, 북방민족이 1.0%에 불과했다. 또한 원동변강집행위원회 성분을 보면 위원으로 고려인 7명과 중국인 4명이고, 상무위원부에는 고려인이 2명이고 중국인과 북방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꼬미시아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러시아민족주의를 뿌리까지 베어던지자”고 주장하였다.¹⁹⁾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연해주 한인사회의 주요한 신문이었던 『선봉』에는 1920년대 후반 들어 러시아인들에 의한 한인 배척을 다룬 기사와 대러시아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논설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1930년 12월 11일자 사설에서는 스찬(水淸)과 올긴스크 구역에서 공산청년회 간부가 공산청년회에서 소수민족 청년들을 장성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 스찬 구역에서 공산청년회 간부가 그 지역의 노동청년들 및 공산청년회원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중국인 및 고려인 노동자들을 계속 구타하여 왔음을 지적하였다.²⁰⁾ 또한 1930년 11월 7일자 「대러시아 애국주의자와 투쟁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러시아 애국주의와 관료주의의 악습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적시된 대러시아 애국주의적 악습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름 동안 석유를 계속적으로 러시아 농민들에게는 팔면서 고려인 농민들에게는 한 근도 주지 않고”, “러시아 교원들에게는 형짚을 달마다 분배하면서 고려인 교원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으며”, “노어를 모르는 고려인 주민들이 공리사 사무실로 들어가면 너무 짧고 천대스러운 말로 응접하기 때문에 고려인은 사무실 근방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기름이나 씨앗 등을 분배할 때에 부족하여 타지 못한 자가 그 후에 가서 달라고 하면 지난달의 ‘노르마’라는 구실로 주지 않았으며”, “지난 여름에 말로는 교사들의 식료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 돼지를 잡아 고기를 분배하노라고 하나 고려인 교원은 고기를 구경만 하고 사본 적은 없었다” 등등.²¹⁾

또한 토지를 가지지 못한 한인빈농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스찬(水淸)구역의 경우 고려인이 2만 1천명, 러시아인이 2만 명 가량 거주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농촌소비에트 37개소에는 28.9%의 곡물이 배정되었던데 반해, 수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한인농촌소비에트 18개소에는 2배 반이 넘는 71.1%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이러한 대러시아 민족주의는 구역집행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한인에게 소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집단농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며 한인들의 집단농장 참여를 배제하기도 했던 것이다.²²⁾

19) 「원동변강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소수민족들을 넓히 참가시키자」, 『선봉』, 1931. 12. 26, 3면.

20) 「레닌적 민족정책을 실현하자!」, 『선봉』, 1930. 12. 11, 3면.

21) 「대러시아 애국주의자와 투쟁하자」, 『선봉』, 1930. 12. 7, 3면.

『선봉』은 이러한 이른바 대러시아민족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기사와 기고문을 자주 게재하는 한편, 각 기관에 들어가 있는 한인들이 대러시아 민족주의적으로 사업하는 자들과 “절대로 투쟁하며 사업”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봉』에 4회에 걸쳐 「절넘밭이 수청구역」을 연재했던 최호림은 수청구역 일꾼들이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버리고 합동민족주의의 옷을 입을 것”, “소사대주의를 벗어 버리고 민족적 차별이 없이 사회주의적 건설에 함께 나아갈 도리를 강구”하자고 하였다. 또한 ‘고려화’ 정책에 부응하여 각 기관의 책임일꾼이나 기술일꾼으로 고려인을 50% 이상 포함시키고, 대부조합, 인인재판소에 고려인을 임명하고, 탈선적으로 사업한 당원들을 퇴치할 것을 촉구하였다.²²⁾

연해주에서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줄곧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러시아인 공산주의자들 역시 대러시아 민족주의에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은 그 지역에서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대러시아 민족주의적인 경향은 모스크바에도 알려져 제16차 당대회 결의안 가운데 ‘열강의 국수주의’에 대한 구절이 갱신되었고, 1930-31년 겨울에 개최된 원동변강당위원회에서는 소수민족에게 올바른 당정책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²⁴⁾

2) 숙청

스탈린 시기 민족정책의 변화가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결과는 민족엘리트의 대숙청으로 나타났다. 물론 1930년대를 피로 물들인 스탈린의 대숙청이 민족엘리트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숙청은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소련 전체에서 스탈린의 반대자와 잠재적 반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숙청은 러시아인, 비러시아인을 가리지 않았고,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숙청이 소련의 민족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숙청을 통해 ‘인민의 민족적 발전’을 담당할 민족엘리트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련 민족정책의 변화와 숙청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특히 주민의 대다수가 극동 연해주에 거주하며 특유의 사회를 건설해 가고 있던 한인들에게 불어닥친 숙청의 바람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꿀락 및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으로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칼바람은 1934년 12월 1일 레닌그라드 당서기인 키로프가 암살된 이후부터 소련 전체를 휩쓸었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등 스탈린 반대파에 대한 처형을 시작으로 볼셰비키 당원 대부분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당 및 소비에트 통제위원회 위원들,

22) 반병률, 「재로한인 강제이주 이전의 한인사회의 동향(1923-193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 1997, 156쪽.

23) 최호림, 「절넘밭이 수청구역」(1-4), 『선봉』, 1930. 3. 5 - 4. 18. 이상 최호림의 4차에 걸친 기사의 마지막 4호 부제목이 「곡물매수사업에서의 대러시아민족주의의 폭로」이다.

24) 와다 하루키,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1937」,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태암, 1989, 62쪽.

검사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숙청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1934년의 제17차 당대회에 참여했던 1,961명 중에서 1,108명이 총살되거나 강제수용소에서 숨졌다.²⁵⁾

소련에 있던 한인들의 숙청은 모스크바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들은 주로 코민테른에서 활동하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었다. 1933년 김영만, 김규열, 유동식, 강해룡, 장순, 박치학 등이 ‘반역행위’, ‘사보타지’, ‘테러활동 준비’와 ‘반혁명적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 처형당한 것이 한인 공산주의자 숙청의 시작이었다.²⁶⁾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숙청은 공산주의운동 내부에 있던 분과나 혁명운동 경력에 구별이 없었다. 1938년까지 걸쳐 박진순, 김단야, 김만겸, 최성우, 한명세, 남만춘, 조훈, 윤자영, 이원수, 박윤세, 한미하일, 박신규, 이성태, 오양신, 김철산, 이종우, 이중백, 서천민, 유환신, 선우섭, 유우상, 김주왕, 김수길, 황동욱, 김정, 이세, 이순조 등 저명한 한인공산주의자 대부분이 ‘일본의 첩자’라는 혐의를 받고 체포, 처형되었다.

1920년 한인사회당의 대표로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참석하여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대표로 선출되었던 박진순은 1937년 12월 15일에 체포되어 ‘사보타지-테러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으로 1938년 3월 처형되었다.²⁷⁾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주요 지도자 중의 한 명이던 윤자영은 1934년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에 체포되어 1938년 처형당했다.²⁸⁾ 1925년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의 조직에 참가하고 당재건운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단야는 1933년 모스크바로 돌아온 이후 1936년까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조선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일제의 밀정’으로 몰려 그해 11월 5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이듬해인 1938년 2월 13일 소련 최고인민재판소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김단야는 “일제 첩보기관의 밀정이며 반혁명폭동과 반혁명테러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의 지도자로서 1급 범죄자”로 사형판결을 받고 그날 곧바로 처형되었다.²⁹⁾ 이르쿠츠크파의 지도자였으며, 1920년대 연해주에서 한인문제 전권위원이었던 김만겸은 1935년 일본 첩자라는 죄명으로 내무인민위원회에 체포되었다고 1936년에 석방되었으나,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³⁰⁾ 엠엘당의 지도자였던 박윤세, 한미하일 역시 처형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양명, 표도르 일리치 박, 알렉산드라 홍, 김동영, 미하일 바실레비치 김 등 17명의 한인 지식인들이 이들과 연결되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1936년 5월 3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³¹⁾

숙청의 바람은 극동 연해주에도 불어왔다. 1934년 원동변강 당대표자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제17차 당대회에 참석했던 김아파나시와 김미하일 두 사람 모두 처형되었다. 김

25) 김블라지미르 저, 조용환 역,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국학자료원, 1997, 188쪽.

26)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1941, с.35.

27) Там же.

28) Там же.

29) Корейцы-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гг., т.5, 2004, Москва, с.26.

30) Инеса Ким, Кривые небеса, Москва, 2004, с.7.

31) Корейцы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гг., т.4, с.142-145.

미하일은 ‘1934년부터 반혁명단체의 과제를 맡아 일본첩보기관에 비밀자료들을 제공했고 원동에서 공작하는 반소인물들을 지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 1938년 5월 25일 사형을 당했다.³²⁾ 김아파나시 역시 1936년 1월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상해파의 성원이었던 김진, 장도정도 체포되었다. 죄목은 “‘상해파’ 반혁명그룹 위원으로 반당투쟁을 그만두라는 국제공산당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선공산당 창건과 조선에서의 혁명운동 발전에 방해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김아파나시는 김미하일과 같은 날 사형을 당했다.³³⁾

연해주에서의 숙청은 연해주 한인의 지도급 인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내무인민위원회 원동변강의 책임자로서 한인의 강제이주를 책임졌던 뤼쉬코프가 일본에 망명한 후 일본잡지 『계간 로시아』에 기고한 글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합법단체에 관여한 혐의로 9,000명의 당원과 군인들이 체포되었으며, 11,000명의 중국인이 체포되고, 8,000명의 중국인이 추방되었고, 600명의 폴란드인, 수백 명의 독일인, 라트비아인, 리투아니아인과 1,000명의 백계러시아인들이 체포, 처형되었다. 이들과 함께 2,500명의 한인들이 체포, 처형되었다.³⁴⁾ 당시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수가 약 18만 명 정도였으니 2,500명이라는 수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시베리아내전 시기 빨치산 대장으로 유명했던 한창걸도, 1927년 소련으로 망명하여 교육사업과 문필활동을 벌이던 『낙동강』의 작가 조명희도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³⁵⁾ 1930년대의 스탈린 숙청을 벗어난 이인섭은 1935-6년간에 상해파, 국민의회파, 이르쿠츠크파, 엠엘파 등의 모든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출당, 처형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양성되었던 한인 인재들이 “전부 없어지고 말았다”고 회상했다.³⁶⁾

연해주에서 한인 지도자들의 체포와 처형은 강제이주 이전인 1936-37년에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체포와 처형과정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모스크바에서 『Корейцы -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고려인-소련에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이 계속 출간됨으로써 당시 희생당한 한인들의 명단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명단만을 알 수 있을 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직도 한인 숙청과 강제이주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연해주에서 한인 지도자들의 숙청이 강제이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인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강제이주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어림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김블라지미르 저, 조용환 역,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국학자료원, 1997, 160쪽.

33) 김블라지미르 저, 조용환 역,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국학자료원, 1997, 188-189쪽.

34) 부가이 니콜라이 표도르비치 저, 최정운 역, 『재소한인들의 수난사-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1996, 56-58쪽.

35) Корейцы жертвы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1934-1938, т.4, с.69.

36) 이인섭, 『망명자의 수기』, 180쪽.

4. 나가면서 - 교리가 흔들린다고 몸통을 베다.

마침내 1937년 8월 21일 러시아 극동 변경주 국경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 의장인 몰로토프와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이 서명한 1937년 8월 21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와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중앙위원회의 결의안 No.1428-326c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에서 조선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하여³⁷⁾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와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시한다.

1. 전소련공산당(불셰비키) 극동지방 공산당 지방집행위원회, 극동지방 내무인민위원국에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들 : 뽀시예뜨, 몰로토프, 그로제꼬보, 향카이, 하롤, 체르니고프, 스파스크, 슈야꼬보, 뽀스뜨이세프, 비긴, 바쨌스끼, 하바로프스크, 수이푼, 키로프스끼, 깔리닌, 라조, 스바보드느이, 블라고베셴스크, 땀보프까, 미하일로프, 아르하라, 스팔리노, 블루헤르에서 모든 한인 주민들을 내보낸 후 남까자흐스탄주, 아랄해 구역, 발하쉬구역과 우즈벡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이주시킬 것을 지시한다.
이주는 그로제꼬보에 인접해 있는 구역들과 뽀시예뜨부터 실시한다.
2. 빠른 시일 내에 이주작업에 착수하여 1938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
3. 이주시 이주대상 한인들은 소유물, 농기구, 동물 등을 소지할 수 있다.
4. 이주민이 두고 간 동산, 부동산, 파종 종자 등은 가격을 계산하여 보상한다.
5. 이주대상 한인이 원하는 경우 국외로 떠날 수 있게 하고 간청하는 경우 국경 통과규율을 완화한 후 방해하지 않는다.
6.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인민위원회는 이주와 관련하여 한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소요와 난폭행위를 제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7. 까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과 우즈벡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인민위원회는 정주 구역과 지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이주민들이 새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갖는다.
8. 교통인민위원부는 한인 이주민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극동지방에서 까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과 우즈벡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이송하는데 있어 극동지방 집행위원회의 신청서에 따라 제때에 객차를 공급할 의무를 갖는다.

37) Ли У Хе, Ким Ен Ун,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30-40년대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백서), Москва “Интерпракс”, 1992, с.64-65.

9. 전소련공산당(볼셰비키) 극동지방 공산당과 극동지방 집행위원회는 3일 내에 이주대상 가구와 인원의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여 통지할 의무를 갖는다.
10. 이주과정, 출발구역에서 떠난 인원, 이주구역으로 도착한 인원, 국외로 내보낸 인원 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보고한다.
11. 한인을 이주시키는 구역들에 대한 국경수비 강화를 위해 국경수비병력 3천명을 더 증가시킨다.
12.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무인민위원회는 한인들이 떠난 장소에 국경수비대원 들의 배치를 허락한다.

이 한 통의 극비문서가 18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한인들은 이 문서와 이주대상이 국경지대의 일부 한인 주민이 아닌 극동 전지역의 전체 한인으로 확대된 9월 28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인민위원회의 두 번째 명령서³⁸⁾에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중앙아시아로의 고난의 길을 떠나야 했다.

위 8월 21일자 결의안 전문에 명확히 밝혀져 있듯이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의 강제이주의 목적은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일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구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민족정책이 변화와 극단적인 변경정책 수립의 귀결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잠재적 적국인 일본의 정탐활동이 스며들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연해주의 대다수 한인 주민들은 소련의 공민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새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부지런하고 충실했던 한 민족이 예방활동의 정치적 인질”³⁹⁾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 점은 스탈린과 소련 정부가 소수의 스파이 활동을 한 한인들을 통해 모든 한인들을 스파이 취급하고 동일시했다는 데 있다. 앞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고려인 노학자의 다음의 말은 강제이주당한 한인 전체의 울분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전시에 한 민족 전체가 적과 내통하고 그들 편으로 넘어갔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과연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⁴⁰⁾

강아지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불안하다고 그 강아지를 칼로 베어 죽여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하물며 그 많은 사람들이야.....

38) Там же.

39) Там же.

40) 스펜판 김, 「해외한인의 편지-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와 잃어버린 모국어」, 『역사비평』 10, 1990, 130쪽.

암울한 질곡의 역사-
한러관계(스탈린과 강제 이주)

군부속청과 적군(赤軍) 기병

이정하 (서울대)



군부속청과 적군(赤軍) 기병

이 정 하 (서울대)

I. 서론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종종 기술의 역할을 과장하곤 한다. 근대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을 감안한다면, 전쟁수행과 평시의 군대운영에 있어 군사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무기체계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접근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군사기술이나 새로운 무기체계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한 사회(혹은 한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케 하기도 한다. 다른 주요한 요인들을 무시한 채, 모든 변화를 기술의 역할로 치환하는 이러한 태도를 소위 ‘기술결정론’이라 부른다.

아마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병에 대한 기존 역사가들의 주장이 기술결정론적 태도의 가장 명확한 예들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시 전차가 등장하고 항공기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면서 유럽의 전장에서 기병이 존재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 보이는 듯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 군대에 존재하고 있던 기병은 군사기술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병 지휘관들의 보수성과 그들의 군사적 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보였다. 제1차 대전 이후 주요한 군사혁신 중 하나였던 전차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 (mechanization)와 관련해서도, 유럽 각국 군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기병 출신 지휘관들이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에 반대하였고, 이러한 반대가 결국 제2차대전 초기의 폴란드나 프랑스의 충격적인 패배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현재의 역사가들에게는 일종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이러한 ‘상식’은 ‘기계화의 가장 모범적인 예’인 독일군으로 부터 독소전(獨蘇戰) 초반 재

1) 1920-1930년대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여타 유럽의 보수적인 기병지휘관들의 군사적 무지와 그 폐해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독일군이 이러한 보수적인 지휘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요인들과 계기로 인해 군사혁신에 성공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Williamson Murray, "Armored Warfare: The British, French, and German Experience," 6-47, Williamson Murray & Allan R. Millet eds. *Military Innovation in the Interwar Peri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양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던 적군(赤軍)²⁾에게도 가감 없이 적용되었다. 독소전 이전의 적군을 다룬 모든 연구들은 독소전 초반의 군사적 패배의 원인을 스탈린(I.V. Stalin)의 권력욕과 국방인민위원장 보로실로프(K.E. Voroshilov)의 군사혁신에 대한 무지와 보수성에 돌리고 있다. 주코프(Georgii K. Zhukov)나 로코솅스키(Konstantin K. Rokossovskii) 등을 포함하여 독소전에서 활약한 많은 뛰어난 지휘관들이 기병 출신이었음에도, 연구자들은 적군 기병을 새로운 군사기술에 부정적이며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독소전 초반의 군사적 패배의 주된 원인을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기병출신 지휘관들의 군사적 무능과 기계화의 지연에 돌리고 있다.³⁾ 이러한 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적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숙청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존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내전 당시 남부전선 제10군 예하 제1기병군(*Pervaiia konnaia armiia*) 혁명군 사위원이었던 스탈린이 이 부대를 지휘했던 부돈니(S.M. Budennyi)와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기병지휘관들을 권력투쟁 당시 군부지지기반으로 삼았고, 이후 이들을 군부요직에 임명함으로써 적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둘째, 1937년에서 1938년에 발생한 군부숙청의 본질은 러시아내전당시 스탈린과 함께 제1기병군에서 근무했던 이후 군부 엘리트로 성장하였던 기병지휘관들이 군부 내 영향력

2) ‘적군(赤軍)’은 1918년부터 1946년까지 소련군의 정식 명칭인 노농적군(勞農赤軍: *Raboche-krest'ianskaia Krasnaia armiia*)의 약칭이다. 1946년 이후 소련은 적군이라는 용어 대신, 소련군(蘇聯軍: *Sovetskaia armi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글의 시기적 범위가 1920-1930년대이므로, 필자는 흔히 사용하는 소련군이라는 명칭 대신 적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다.

3) 적군 기병에 관한 이런 주장들은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존 에릭슨의 연구서 혹은 회고록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련붕괴이후 출간된 모든 적군 관련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연구들을 보라. John Erickson,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8-1941* (London: Macmillan, 1962); Walter G. Krivitsky, *In Stalin's Secret Service: An Expose of Russia's Secret Policies by the Former Chief of the Soviet Intelligence in Western Europe*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1939); Richard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Mary Habeck, *Storm of Steel: The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David M. Glantz, *Stumbling Colossus: The Red Army on the Eve of World War* (Lawrence, KA: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8); O.S. Elizarov, *Sovetskaia voennaia doktrina nakanue Velikoi Otechestvennoi Voiny* (St. Petersburg: “Nestor”, 2001); R. Savushkin, *Razvitie sovetskikh vooruzhennykh sil i voennogo iskusstva v mezhoennyi period (1921-iun' 1941 gg.)* (Moscow: Voenno-politicheskaia akademiia imeni V.I. Lenina, 1989); Andrei A. Kokoshin, *Armiia i politika: Sovetskaia voenno-politicheskaia i voenno-strategicheskaia mysl' 1918-1991 gody* (Moscow: Mezhdunarodnye otnosheniia, 1995); N.Iu. Kuleshova, “Voенno-doktrinal'nye ustanovskii Stalinskogo rukovodstva i repressi v Krasnoi Armii kontsa 1930-kh godov.” *Otechestvennaia istoriia 2* (2001); Valentin Leskov, *Stalin i zagovor Tukhachevskogo* (Moscow: Veche, 2003).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중서적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재생산되어 왔다. V. Rapport & Yu. Alexeev, *High Treason: Essays on the History of the Red Army 1918-1938*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V. Suvorov, *Ochishchenie: Zachem Stalin obezglavil svoiu armiiu?* (Moscow: AST, 1998).

유지와 자신들의 조직기반인 기병병과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하첵스키 (M.N. Tukhachevskii)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인 지휘관 집단’을 제거했던 것이다.)

셋째, 스탈린에 의해 적군 핵심요직을 차지했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들의 군사혁신에 대한 무지와 보수성 그리고 정적제거를 통해 개인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스탈린으로 인해 적군의 기계화계획은 좌절되었고, 결국 이는 독소전 초반의 처참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논박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표이다. 따라서 필자는 적군 기병 그리고 군부숙청과 관련된 다음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보수적인 기병지휘관들’은 실제로 새로운 군사기술에 적대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었는가?

둘째, 독소전 이전 적군의 기병 운용 개념이 투하첵스키 등이 구상하고 있던 소위 ‘혁신적인 군사사상’과 실제로도 상충하였는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적군 기갑교리속에서 기병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필자는 소련이 독소전 이전에 구상하고 있었고, 대전기간 적군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중심작전 (*glubokaia operatsiia*) 교리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 전격전(*Blitzkrieg*)교리의 모방이거나 혹은 단순한 전차중심의 돌파 및 포위섬멸전술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소련의 독자적인 군사교리교리임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숙청이 보로실로프를 중심으로 한 기병지휘관들과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과연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의 군부 세력기반이었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들은 숙청으로부터 안전했는가? 지휘관들에 관한 분석은 필자가 문서고 자료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자료

4) 현재까지도 1937-1938년에 발생하였던 군부 내 숙청의 주요원인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한 논의는 소연방붕괴로 인한 문서고 개방이후에도 여전히 논쟁중이다. 1990년대 문서고 자료의 열람이 군부 내 숙청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ger R. Reese, Stalin's Reluctant Soldiers: A Social History of the Red Army 1925-1941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132-135. 리즈의 저작이 발간된 이후 군부숙청에 관한 몇몇 의미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Oleg Fedotovitch Suvenirov, Tragediia RKKA, 1937-1938 (Moscow: Terra, 1998); Nikolai Semenovich Cherushev, 1937 god: Elita Krasnoi Armii na Golgofe (Moscow: Veche, 2000). Rapport & Alexeev, High Treason, 186; Cynthia Roberts, "Prelude to Catastrophe: Soviet Security Policy between the Wars," Unpublished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1992), 448-460. 숙청의 규모가 엄청났기에 숙청된 인원의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려우며,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추정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코고노프는 숙청 막바지였던 1938년 말까지 약 40,000명이 적군에서 숙청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수치는 음주나 절도 등의 “비정치적”인 이유로 군대에서 강제예편당한 인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다. D.A. Volkogonov, Triumf i tragediia: Politicheskii tortret I.V. Stalina, 2nd ed.(Moscow: Novosti, 1990), v. 1, 513. 또 다른 추산에 따르면, 1937-1938년동안 육군에서 35,000 명이상, 해군에서 약 3,000명, 공군에서 5,000명 이상의 인원이 숙청되었다고 주장한다. V.V. Karpov, Marshal Zhukov: Ego soratniki i protivniki v dni voiny i mira (Moscow: Voennizdat, 1992), 74. 숙청당시 적군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크리비츠키는 총 숙청인원을 3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W.G. Krivitsky, In Stalin's Secret Servi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9), 232.

들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전시기부터 군부 숙청 때까지 활동했던 연대장급 이상 적군 기병 지휘관 328명⁵⁾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군부숙청시기에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내전이후 적군 기병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를 지휘했던 인물들이 실제로는 328명이며, 이중 제1기병군 출신으로 내전시기뿐만 아니라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연대장급 이상으로 승진했던 인물들을 모두 합치면 113명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시간과 지면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내전시 제1기병군내 연대급 이상 제대를 지휘했던 62명의 인물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⁶⁾

II. 적군 기병

전선의 광대함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력, 특히 중화기로 무장한 잘 훈련된 보병부대의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내전에서 기병은 적군과 백군(白軍) 양측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병과였다.⁷⁾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 전선 1km당 평균 4,000-5,000명의 병력과 약 150대의 야포가 배치되었던 반면, 적군의 경우, 내전이 가장 치열하던 1919년말에조차도 단지 1km당 250명의 병력과 2대의 야포만을 운용할 수 있었다.⁸⁾ 따라서 측면이 노출되지 않아 서로 상대방 정면에 대한 돌파만을 되풀이해야 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는 달리, 측면과 후방의 노출이 빈번했던 러시아내전에서 기동성과 타격력을 동시에 가진 기병, 특히 대규모로 운용되는 전략기병 (*strategicheskaiia kavaleriia*)⁹⁾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5) 러시아내전 시기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142명; 1920년대: 49명; 1930년대: 137명.

6) 또한 희생된 각 지휘관의 숙청이유 및 죄목을 분석해보면, 군부숙청의 원인이 기존 연구에서 중시했던 정치적인 원인보다는 각 지휘관의 자질부족 혹은 군기문란이 숙청의 주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이후의 발표로 미루고자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러시아 내전기 적군 기병 지휘관 142명 전체의 개괄적인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에 대한 분석은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 러시아사학회 주최 2012년 제2차(18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러시아 내전기 적군 기병 지휘관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참조하시오.

7) 러시아내전에서의 기병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조하라. N.N. Azovtsev, P.N. Dmitriev, V.V. Dushenkin, P.M. Kevdin, S.F. Naida, L.M. Spirin (eds.), *Direktivy komandovaniia frontov Krasnoi armii 1917-1922 gg* (Moscow, 1978); Iu.A. Zotov, “Boi 1-i konnoi armii v raione Rovno v iune 1920g.,” *Voina i revoliutsiia* 2 (1929); G.D. Gai, “Nedostatki v organizatsii Krasnoi Konnitsy,” *Voina i revoliutsiia* 6 (1921); A.I.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Voen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Voennizdat, 1984), pp. 3-24; V.V. Dushenkin, *Vtoraia konnaia: Voen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Voennizdat, 1968); K. Monigetti, *Sovmestnye deistviia konnitsy i vozduzhnogo flota* (Moscow: Gosizdat, 1928); M. Ryshman, *Reid Mamontova, avgust-sentiabr 1919g* (Moscow: Voennizdat, 1926); V. Melikov, “Konnye massy v Grazhdanskoi voine,” *Voina i revoliutsiia* 7-8 (1933).

8) M.A. Molodsygin ed., *Iz istorii grazhdanskoi voiny i interventsii 1917-1922 gg. Sbornik statei*. (Moscow: Nauka, 1974), 210.

9) 전통적인 기병돌격을 벗어나, 화기로 무장하여 기마전투(騎馬戰鬪)와 하마전투(下馬戰鬪) 모두 가능하며, 대규모로 운용하여 전술적 임무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전략적 임무까지도

기병이 내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해서, 이들이 당시 유럽의 보수적인 기병운용을 답습했던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제국군 기병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그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했듯이, 적군 기병 또한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둔감한 보수적인 인물들이 아니었다. 내전에 참전한 기병대원들의 회고록과 기병 야전교범 등에 따르면,¹⁰⁾ 러시아 내전에서의 기병전투는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밀집대형의 기병들이 기병도를 들고 돌격하는 형태의 전투가 아니었다.¹¹⁾ 도리어 적군 기병은 화력에 주로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에 반해, 백군 기병은 화기사용을 꺼리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즉 기병도와 기병돌격에 대한 ‘숭배’와 화기에 대한 ‘혐오’는 여러 코사크를 비롯한 백군 기병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¹²⁾ 이에 반해 “타찬카” (*tachanka*) 위에 설치한 중기관총 사격과 적 전면에 대한 포격 그리고 적 후방과 측면에 대한 기마-하마공격은 러시아내전에서 적군 기병이 즐겨 사용하는 전술이었다.¹³⁾

따라서 적군 기병에 대한 백군의 평가는 보수적인 기병대의 그것이었다. 예를 들어, 부돈니는 보로실로프와 함께 기병에 집착하여 기계화를 반대했던 보수적인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내전에서는 부돈니마저 백군 기병들로 부터 기병돌격을 거부하고 화력에 집중하는 ‘비정통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나쁜’ 기병으로 비판받았다. 마흐노(Nestor I. Makhno)와 함께 백군에서 활동하던 파벨 아르쉬노프 (Pavel Arshinov)에게 적군 기병은 “이름뿐인 기병 (*kavalerii tol'ko po nazvaniuu*)”일 뿐이며, “기병도를 사용하여 근접전을 할 능력이 없는, 화포나 기관총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트린 다음에야 전투를 시작”하는 “나쁜 기병”이었다. 이와 반대로, 아르쉬노프가 보기에, 데니킨(Anton I. Denikin)의 백군 기병은 “화포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기병도를 뽑아들고 적들에 돌격하는 전투방법을 기꺼이 택하는 훌륭한 기병이다.”¹⁴⁾

화기사용이 강조된 하마전술 외에도, 대규모 기병운용은 러시아내전의 또 다른 특징이

- 수행할 수 있는 기병을 의미한다. M. Batorskii, *Sluzhba konnitsy* (Moscow: Voenizdat, 1925), 20.
- 10)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V. Novikov, *Konnitsa: Uchebnik po taktike dlia normal'nykh voennykh shkol* (Moscow: Voenizdat, 1924); V. Gatovskii, *Konnitsa: Svoistva i sredstva. Stroi i poriadki* (Moscow: Voenizdat, 1925); Idem, *Konnitsa: Izdanie soglasovannoe s vremenym boevym ustavom konnitsy RKKK* (Moscow: Gosizdat, 1927); S.N. Krasil'nikov, *Organizatsiia konnitsy i legkikh motomekhanizirovannykh soedinenii* (Moscow: Voenizdat, 1931).
- 11) S. Krivoshein, *Skvoz' buri: Vospominaniia* (Moscow: Molodaia gvardiia, 1959), 119.
- 12) Ivan D.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v epokhu grazhdanskoi voiny,”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Moscow: Voenizdat, 1928), v. 1, 162. 이반 코소코프 (1891-1938)는 러시아 내전 당시 제1기병군 제4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였다.
- 13) Ibid. 174.
- 14) Pavel Arshinov, *History of the Makhnovist Movement: 1918-1921* (Detroit: Black & Red, 1974), 138-139. 이외에 다음을 보라. A.V. Golubintsev, *Russkaia vandeia: Ocherki grazhdanskoi voiny na Donu, 1917-1920 gg.* (Moscow: Veshnie vody, 1995); Elbert Farman, “The Polish-Bolshevik Cavalry Campaigns of 1920,” *The Cavalry Journal*, 30 (July 1921). 적군 기병대의 화약무기 선호는 기병대원 상당수가 제국군에서 기병보다는 보병부대에 근무한 배경도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S.M. Budennyi, *Proidennyi put'* (Moscow: Voenizdat, 1958-1973), v. 1, 64.

었다. 특히 스탈린, 보로실로프, 부둔니 등이 군사인민위원회와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제1기병군의 창설은 내전이후 적군의 가장 주요한 군사적 업적이었다. 약 16,000명의 기병과 이를 지원하는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관총으로 이루어진 제1기병군은 전략기병의 전형이었다. 러시아 제국군의 기병운용개념과 러시아내전의 여러 특징들로 인해 적군의 전략기병은 정찰, 돌격, 추격 등의 전술적 운용에서 벗어나 화력에 기반한 독자적인 원거리 기동작전, 방어가 취약한 적의 측면과 후방에 대한 습격 그리고 다른 병과들과의 협동작전을 통해 전술·전략적 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었다.¹⁵⁾

III. 적군 기병과 기계화

적군 기병에 관한 잘못된 신화는 보로실로프와 보수적인 기병지휘관들의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인해 독소전 이전 적군의 군사발전, 특히 기계화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숙청의 피해자였던 이세르손 (G. Isserson) 등의 인물들이 스탈린 격하운동 시기에 쓴 편향된 글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서방은 물론 현재 러시아에서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¹⁶⁾

물론 보로실로프가 적군 기병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는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로실로프의 군사적 무지와 보수적인 성격의 예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소련붕괴이후에 출간된 많은 연구서들에서도 여전히 인용되고 있는 보로실로프의 대표적인 발언을 살펴보자. 1938년 보로실로프는 적군 기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군대에서 기병은 쇠퇴하고 있으며,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용맹한 적군 기병이 여전히 모든 전선에서 중요한 군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한다.”¹⁷⁾ 기계화 계획을 대표하던 투하첵스키 등이 숙청으로 처형된 이후인 1938년에 행한 이 발언은 기계화계획의 좌절과 적군 기병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예로 많은 연구서들에서 인용되고 있다.

15) 당시 전략기병의 규모는 다양했다. 제1기병군의 경우, 1920년 5월 폴란드와의 전쟁에는 약 16,000명, 남부러시아에서 데니킨의 백군(白軍)과의 전투에서는 약 7,000-10,000명의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가이 (Gaia D. Gai)가 지휘하던 제3기병군단과 미로노프 (F. Mironov)와 고로도비코프 (Oka Gorodovikov) 휘하의 제2기병군은 각각 3,000-4,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S.S. Khromov,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iia v SSSR* (Moscow: Sovet entsiklopediia, 1983), 241.

16) G. Isserson, “Razvitie teorii Sovetskogo operativnogo iskusstva v 30-e gody,”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1-3, 1965; A. Ryzhakov, “K voprosu o stroitel'stve bronetankovykh voisk Krasnoi Armii v 30-e gody,”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8, 1968. 또한 다음을 보라. A.G. Khor'kov, *Grozovoi iun': Tragediia i podvig voisk prigranichnykh voennykh okrugov v nachal'nom periode Velikoi Otechestvennoi voiny* (Moscow: Voенizdat, 1991), 41.

17) K.E. Voroshilov, “XX let Raboche-krestianskoi Krasnoi Armii i voенno- morskogo flota,” *Voennaia mysl'* 3 (1938), 13.

하지만, 실제로 연설 전문을 살펴보면, 위의 인용이 전체 연설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계속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로실로프의 발언은 적군 창설 20주년을 기념하여 적군 내 모든 병과들에 대한 ‘의례적인 찬양’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보로실로프는 같은 연설에서 적군 기병을 언급하기 이전에 기갑병과의 발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보로실로프는 여러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투하첵스키와 종종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기계화를 포함한 많은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두 인물간의 논쟁은 기계화의 가치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계화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1928년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는 투하첵스키가 제시한 기계화계획 초안을 비현실적이고 “맑스주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지만, 이는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의 보수성에서 비롯된 기계화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투하첵스키가 제시한 기계화계획에 필요한 자원 및 자원 조달이 당시 소련의 경제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각의 주요 이유였다.¹⁸⁾

기계화 장비 조달상황만을 보더라도, 적군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 획득에 있어 투하첵스키는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부터 거의 무제한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¹⁹⁾ 영국군의 기계화 정책이 제1차 세계대전이후의 군부 예산삭감과 인원감축 조치의 일환²⁰⁾이었던 반면, 소련은 자신들의 기계화 정책에 무한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적군의 기계화가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차를 모아 하나의 거대한 기계화 부대로 편성하느냐 혹은 전차를 보병부대에 편입시켜 보병 공격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했던 반면, 적군은 기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으로 인해 이 두 선택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기병지휘관 보로실로프가 적군의 수장으로 재임했던 15년(1925-1940)동안, 기병의 조직개편과 유지확대뿐만 아니라, 기계화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28년 단지 1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소련은 10년 뒤인 1938년 15,000대의 전차를 가진, 당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18) 이 사건 직후인 1928년 5월 투하첵스키는 적군 참모장직에서 물러난 뒤, 레닌그라드 군관구 지휘관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과 적군 현대화계획으로 인해 투하첵스키는 1929년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된다. 같은 해에 설치된 군비총감 (*nachal'nik vooruzheniia*)에 우보레비치 (I.P. Uborevich), 기계화 및 차량화 집행국 (*Upravlenie mekhanizatsii i motorizatsii*)에 칼렙스키 (I.A. Khalepskii)와 칼리노프스키 (K. Kalinovskii) 등 기계화 계획의 중심인물들이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에 의해 요직에 기용되었다. K.U. Chernenko and N.I. Savinkin eds., *KPSS o vooruzhennykh silakh Sovetskogo Soiuza: Dokumenty 1917-1968* (Moscow: Voenizdat, 1969), 264-266; David R. Stone, "Tukhachevsky in Leningrad: Military Politics and Exile, 1928-31," *Europe-Asia Studies* 48/8, 1996; O.N. Ken, "Moia otsenka byla slishkom rezkoi: I.V. Stalin i rekonstruktsiia RSKA, 1930-1932 gg.," *Istoricheskii arkhiv*, 5-6, 1998; Lennart Samuelson, *Plans for Stalin's War Machine: Tukhachevskii and Military-Economic Planning 1925-1941*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19) Samuelson, *Plans for Stalin's War Machine*, 145.

20) David French, "The Mechanization of the British Cavalry between the World Wars," *War in History* 10/3 (2003).

적군의 기계화계획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 문서고 개방이전까지 소련에서 발간된 몇몇 자료들, 즉 회고록 혹은 근거가 희박한 개별적인 일화 등에 바탕을 두고 저술되었고, 당연히 많은 잘못된 신화와 편견으로 얼룩져 있다. 다른 문서고들에 비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소련붕괴이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국립 군사문서고(*Rossiskii gosudarstvennyi voennyi arkhiv*: RGVA)도 개방되어, 군사계획 수립을 위해 고급지휘관들이 군사회의에서 논의한 문건들을 현재 제한적으로나마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34년까지 적군 주요지휘관들은 혁명군사위원회 (*Revoliutsionnyi voennyi sovet*)에서, 1934년 적군 조직개편이후에는 국방인민위원회 부속 국방회의 (*Sovet oborony*)에 참석하여 주요한 군사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드러난 적군 기계화계획과 적군 기병과의 관계 그리고 기병 지휘관들의 역할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1. 기병 조직개편과 기술수용

문서고 자료에 의거해 판단해보면, 적군 기병은 결코 새로운 군사적 조류와 기술발전에 무감한 반동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기존의 인상과는 달리, 새로운 군사 기술수용과 전술 변화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은 독소전 이전 적군 기병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의제였다.²¹⁾ 러시아 내전이후, 기병은 병과자체의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내외로 받고 있었으며,²²⁾ 1920년대 적군 기병은 하마전투, 화기사용과 사격훈련, 보병과 포병 심지어 기갑차량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요구받았다.²³⁾ 이러한 경향은 장거리 정찰과 하마전투를 강조하였던 1920년대 기병 군사교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²⁴⁾ 따라서 1914년 기

21) 1932년에서 독소전발발까지 기병병과의 군사잡지였던 『붉은기병대 (*Krasnaia konnitsa*)』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라. V. Mikulin, “Sovremennye vzgliady na boevye zadachi konnitsy i osnovy vedeniia boia,” 7 (1932); G. Skosarevskii, “Metodicheskie ukazaniia po vyezadke loshadei,” 1 (1933); L. Fedorenko, “Porjadok speshivaniia (stroii po otdeleniiam),” 4 (1933); Idem, “Kombinirovannye boevye poriadki konnitsy,” 7 (1933); Idem, “Ataka konnitsy na pekhoty s pulemetami,” 1 (1934).

22) 기갑전 주창자들뿐만 아니라, 기병 병과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물들이 많았다. 내전당시 제1기병군에서 보로실로프와 부돈니와 함께 근무하였던 부브노프 (Andrei S. Bubnov) 같은 인물들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와 같이 혼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일 정부가 기병대에 관해 정확한 평가서를 본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왜 기병따위에 돈을 낭비하냐고 물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러시아 국립군사문서고(*Rossiskii gosudarstvennyi voennyi arkhiv*; 이하 RGVA), f. 4, d. 1, op. 756, l. 63.

23) 실제로 많은 기계화 주창자들 또한 기병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하지 않았다. 1929년에 간행된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적군 최고의 군사이론가 트리안다필로프 또한 냉병기(cold steel)와 기병 돌격을 배제하고, 화력을 중심으로 한 기병조직개편을 통해 기병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V. Triandafilov,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trans. William A. Burhans (Portland, OR.: Frank Cass, 1994), 60-61.

24) 다음을 보라. Novikov, *Konnitsa*, 16-24; Gatovskii, *Konnitsa*, 86-89.

병대에 배속되어 있던 소규모 기관총분대는 1925년 중대규모로 증편되었고, 1929년 시작된 차량화 장비의 도입으로 인해 적군 기병의 작전반경은 이전에 비해 10km이상 증가하였다.²⁵⁾

당시 적군의 수장이었으며 보수적인 기병 지휘관의 대표로 평가되고 있는 보로실로프는 이 정도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1929년 적군 기병의 전투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그는 적군 기병의 타 병과와의 협동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기병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보로실로프는 러시아내전 이후 7년 동안의 적군 기병의 변화에 불만족을 표하면서, “여전히 적군 기병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병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격이나 하는 것”²⁶⁾이라고 일갈하였다.

심지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보로실로프와 함께 보수적인 기병지휘관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돈니조차도 기병 병과의 유지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1931년 2월, 부돈니는 보로실로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다 넓은 작전반경과 신속한 기동, 독자적인 작전수행 그리고 적의 기계화 부대에 대한 방어문제와 관련하여 기병 재조직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부돈니는 기존 기병사단을 경기계화 혹은 경차량화 사단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언급하였다. 즉 새롭게 만들어질 사단들은 4개의 기병연대, 1개의 포병연대 그리고 1개의 기갑연대로 이루어지며, 특히 기갑연대는 1개의 기갑차량 및 ‘경장갑 전차(*tanketka*)’²⁷⁾ 대대와 30대의 전차로 이루어진 1개의 경전차 대대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기갑연대는 기병사단의 보조전력으로 적을 포위하거나 혹은 적 측면과 후방에 대한 공격시 기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²⁸⁾ 기병조직 개편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1936년 (즉 숙청직전)에는 보로실로프의 주도하에 기병 사단내에 편성되어 있던 4개의 기병연대들 중 1개 연대를 해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대규모에 불과했던 기관총편성을 기관총연대로 증편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러시아내전 직후의 기병대가 소수의 보병부대와 중화기만을 보유한 채 다수의 기병으로만 구성되었던 반면, 독소전 직전 적군 기병 1개 사단은 총 9,420명으로 34대의 전차, 18대의 장갑차량 그리고 136대의 화포를 보유하게 되었다.²⁹⁾

25) V. Mikulin, “Marsh i ego okhranenie,” *Krasnaia konnitsa* 11 (1932), 36.

26) RGVA, f. 4, op. 1, d.756, l. 3.

27) Tanketka는 1920-30년대에 사용된 약 4톤 중량의 1인승 혹은 2인승으로 설계된 경장갑 장비를 의미한다. 주로 정찰과 기병에 대한 화력지원을 주 임무로 하였다. 영국의 카든 로이드(Carden Loyd)사의 모델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 영어로는 Tankette으로 표기하며, Tanketka도 Tankette의 러시아어 번역표기이다. 카든 로이드사의 디자인에 기반 하여 1930년대에 소련에서 제작되었던 T-27이 적군이 사용하였던 대표적인 모델이다. M. Svirin, *Bronia krepka. Istoriia sovetskogo tanka 1919-1937* (Moscow: Eksmo, 2005), 384; G. L. Kholiavskii, *Entsklopediia tankov* (Minsk: Kharvest, 2006), 576.

28) RGVA, f. 33987, op. 3, d. 320, ll. 2-28.

29) S.A. Tiushkevich, *Sovetskie vooruzhennye sily: Istoriia stroitel'stva* (Moscow: Voenizdat, 1978), 364.

2. 기병과 기갑교리와의 관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로실로프가 적군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적군 기병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적군은 1929년 총 77,000명 병력으로 구성된 12개 기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 6년 뒤인 1935년에는 적군 총규모가 1929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한 반면, 기병사단의 수는 약 2.7배인 총 32개로 증가하였다.³⁰⁾ 하지만,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뷰돈이나 보로실로프 그리고 스탈린이 기갑작전이나 기갑장비의 도입에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투하첵스키 등이 주장하는 기갑교리인 ‘중심전투 (*glubokii boi*)’와 ‘중심작전 (*glubokaia operatsiia*)’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환언하면, 독소전 이전 적군 기병의 조직 확대는 다름 아닌 적군의 기갑교리 때문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 적군 기병이 화기를 이용한 하마전투와 적 항공기나 적 기갑부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술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면, 1930년대 들어 적군 기병은 중심전투와 중심작전 개념에 따라 적 방어선 돌파시 전차와 함께 수행하는 합동작전에 집중하였다. 중심전투개념은 기갑부대, 보병, 포병 그리고 기병의 밀접한 상호공조를 상정한 개념이었다. 첫 번째 단계, 즉 방어선 돌파와 돌파구 형성단계에는 기병이 투입되지 않으나, 이미 획득된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두 번째 단계, 즉 중심작전단계에서는 대규모 전차뿐만 아니라 ‘기계화’ 기병, 즉 전차와 장갑차량을 보유한 기병부대의 기동이 중요하였다.³¹⁾ 당시의 기병운용교리와 기갑부대와의 공조에 관한 교범에 따르면, 기병의 역할은 1) 기갑부대가 만들어놓은 돌파구의 확대와 이를 통한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 2) 기동력이 떨어지는 보병과 포병으로 구성된 아군 주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점령지와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 (기갑부대에 의해 획득된 점령지와 보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원활한 보급으로 기갑부대 공격속도의 ‘모멘텀 (*momenty*)’을 유지하는데 중요), 3) 점령지와 보급로 유지임무를 주력부대에게 맡긴 다음에는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여 조속히 기갑부대와 합류한 후 기갑부대의 작전수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 4) 적의 화력이 약하거나 적의 방비가 약한 주요거점을 발견했을 경우 독자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³²⁾ 따라서 투하첵스키와 같은 인물도 “몇 년전 우리는 기병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병의 역할은 심대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적군] 기계화 발전에 있어 기병의 역할은 괄목하다”³³⁾고 평가하면서 1932년 2개의 기

30) Soshnikov, *Sovetskaia kavaleriia*, 142.

31) M.V. Zakharov, *Generalnyi shtab v predvoennye gody* (Moscow: Voenizdat, 1989), 90-95.

32)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M. Batorskii, *Sluzhba konnitsy* (Moscow: Voenizdat); S.N. Krasil'nikov, *Organizatsiia konnitsy i legkikh motomekhanizirovannykh soedinenii* (Moscow: Voenizdat, 1931); Tukhachevskii, *Izbrannye proizvedeniia*, vol 2, 218-219; Ministerstvo oborony soiuza SSR, *Stroevoi ustav kavalerii Sovetskoi armii* (Moscow: Voenizdat, 1953); Narodnyi komissariat oborony soiuza SSR, *Stroevoi ustav konnitsy RKA 1938 g.* (Moscow: Voenizdat, 1938).

병군단 창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따라서 당시 적군이 구상했던 기계화는 기병을 전차로 대체하여 기갑장비가 기병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갑부대를 새롭게 창설하는 것과 함께, 기갑부대가 효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인 ‘기계화’ 혹은 ‘기갑화’ 기병을 편성하여 기갑부대와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고자 했던 시도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즉 적군 지휘부가 구상한 ‘중심전투’와 ‘중심작전’은 기병과 기갑부대간의 밀접한 협동과 공조가 중시되는 기동개념, 즉 일종의 제병협동 전투 개념이었다.³⁴⁾

보로실로프가 1933년에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은 소련의 기계화계획에 영향을 주었던 적군 수뇌부들의 실제구상, 특히 기병과 기갑부대간의 균형에 대한 강조를 엿볼 수 있다.

“적군 내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다. 즉 차량화-기계화 부대가 미래 군대의 요체이며, 따라서 모든 병과는 이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이론일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이론은 적군에 적절치 못하며, 소련에 적절치 못하며, 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가진 나라에는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도 존재한다. 즉 ‘차량화-기계화계획은 헛소리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좋은 보병, 좋은 화포 그리고 좋은 기관총 부대를 장비한 좋은 기병,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매우 적은 수의 전차를 가지고도 어떠한 적의 차량화-기계화병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며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기술과 군사력의 의미를 폄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두 생각 모두 우리 국가에 적절치 못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보유해야 하며, 기갑장비로 무장한 기병 또한 당연히 보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유할 것이며, 또한 충분히 보유할 능력이 있다.”³⁵⁾

IV. 적군(赤軍) 기병과 군부속청

내전 이후 적군 기병의 변화와 기갑교리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이전의 연구들이 1930대 말 군부속청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기술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로실로프를 비롯한 여러 기병지휘관들이 투하첵스키와 다른 주요 지휘관들의 反혁명 혐

33) RGVA, f. 4, op. 18, d. 39, l. 110. 이미 1930년대 초반에도, 기병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보로실로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투하첵스키는 전차를 보병사단뿐만 아니라 기병사단에 배속시켜, 기병의 전투력을 강화하도록 건의하였다. M.N. Tukhachevskii, *Izbrannye proizvedeniia* (Moscow: Voenizdat, 1964), v. 1, 13.

34) 미육군 무관에 의해 작성된 소련 기계화에 관한 보고서도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Report on Soviet Armored Vehicles and the Mechanization,” *U.S. MID Reports*, Reel 4, # 897-901.

35) RGVA, f. 4, op. 1, d. 799, l. 2.

의를 실제로 믿고 있었는지 혹은 자신들의 군부 내 영향력 유지와 기병의 조직적 안전을 위해 숙청을 주도했는지는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 하나는 숙청이 적군 기병의 감축과 해체 그리고 해체된 기병부대를 기반으로 기계화 부대를 새롭게 창설 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즉 군부숙청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목적이 기병의 조직적 안전과 기계화 계획의 폐기 및 관련 인물들의 군내 축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중심전투와 중심작전의 필요에 의해 1935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당시 적군 기병의 규모는 계속 정체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36년에서 1939년 기간 동안 보병사단의 수가 90개에서 150개로 대폭 증가한 반면, 기병사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채 같은 수를 유지하였다.³⁶⁾ 더 나아가 1937년 32개의 기병사단(7개의 기병군단)은 4년 뒤인 1941년 6월에는 단지 13개 사단(4개의 기병군단)으로 감축되고 만다. 적군의 모든 병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던 1937년에서 1941년 시기에 기병대의 규모는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³⁷⁾ 이 시기는 숙청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더 나아가 기병감축과 기갑부대의 확대 증편이 실제로는 보로실로프와 기병 출신 지휘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이 문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937년 가을, 즉 투하첵스키를 비롯한 많은 지휘관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소집된 국방회의에서 보로실로프의 명령으로 작성된 한 건의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총 32개에 달하던 기병사단 중 7개를 기계화사단 등으로 개편하고, 남아있는 25개 기병사단 중 12개를 1941년 말까지 해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단수의 단순감소 뿐만 아니라, 이 계획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1개 기병사단 병력수를 6,600명에서 5,900명으로 축소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적군 기병에 근무하는 인원수는 57,130명이 감소된 총 138,560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1937년 말, 적군은 25개의 경기갑 여단, 4개의 중기갑 여단 및 3개의 예비기갑여단, 그리고 2개의 차량화 여단과 3개의 기계화 보병여단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1941년 6월이 되면 총 61개의 기갑사단, 31개의 기계화사단과 2개의 기계화보병사단으로 증가하였다.³⁸⁾

숙청이 한창이던 1937년 말, 기계화를 주도하던 많은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체포된 상태에서 개최된 이 국방회의는 숙청에서 ‘살아남은’ 혹은 종종 ‘숙청을 주도’하였다고 비판받는 보로실로프와 기병출신 지휘관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이곳에서 보로실로프가 부돈니와 나눈 토론은 흥미롭다. 보로실로프는 이 회의에서 “현 시기의 전투와 전쟁수행을 위해” 대규모의 전차부대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하며, 적군 내에서 “기병의 규모를 줄이거나 해체해서라도 기계화 부대의 수를 늘려야 한다”³⁹⁾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부돈

36) Erickson, Soviet High Command, 766-777.

37) Glantz, Stumbling Colossus, 146.

38) 이 문건은 러시아 국방부 중앙문서고 (Tsentrāl'nyi arkhiv ministerstva oborony RF; TsAMO), f. 15, op. 2154, d. 4, ll. 1-30.

39) RGVA, f. 4, op. 18a, d. 54, ll. 482-485.

나는 “실제로 적군 내 기병의 수는 매우 적으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병을 달라고 소리칠 것”⁴⁰⁾이라고 응수하였다. 부돈니의 발언에 대한 보로실로프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세몬 미하일로비치 [부돈니!] 지금 당신은 기병대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 기병대원으로서 나 또한 당신의 생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기병대원]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중세의 구닥다리 기병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요.” “세몬 미하일로비치 [부돈니!] 돈키호테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기병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⁴¹⁾

V. 제1기병군 지휘관들의 숙청 여부

제1기병군 지휘관들은 1919년 백군의 공격에 쫓겨 차리친으로 철수하여 방어전투에 참가했던 지휘관중, 제1기병군 즉 제4기병사단, 제6기병사단과 제11기병사단에서 근무했던 총 62명의 인물들이다. 당시 차리친은 백군에 패해 우크라이나와 남부러시아 등지에서 패주하였던 여러 적군 부대들의 주요한 피난처였다. 1918년 6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보로실로프와 쉬차덴코 (Efim A. Shchadenko)가 지휘하던 제3군과 제5군이 차리친으로 패주하여서, 백군으로부터 이 도시를 방어하고 있었다.⁴²⁾ 스탈린은 모스크바로부터 군량획득을 위해 남부러시아에 파견되었으나, 그 역시 백군의 군사적 압력으로 인해 당시 차리친에 머물고 있었다.⁴³⁾

40) Ibid. l. 484.

41) Ibid., l. 484. 보로실로프와 함께 군사혁신에 반대하는 보수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스탈린조차 새로운 기술의 군사적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940년 4월 핀란드와의 전쟁 상황을 논하는 자리에서, 스탈린은 현대전에서 항공기와 전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내전의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전의 관행과 [군사적] 경험을 숭배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많은 지휘관들은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들을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스탈린은 기병대 출신의 지휘관 M.P. 코발료프 (M.P. Kovalev)를 지목하였다. “코발료프 동지의 지휘가 가장 미흡했다. 내전에 참전하여 [기병대지휘관으로] 영웅이 되고 명성을 얻었던 훌륭한 군인으로서, 그는 지금 상황에는 적절치 못한 러시아내전의 경험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전당시의 관행과 경험은 더 이상 적절치 못하며, 이러한 관행과 경험을 신봉하는 자들은 생존치 못할 것이다.” Shukman, Stalin and the Soviet- Finnish War, 269.

42) Leonid Kliuev, Bor'ba za Tsaritsyn 1918-1919 gg. S 7 shemani na otdel'nykh listakh (Moscow: Gosizdat, 1928), 31.

43) 차리친에서 스탈린은 적군 지도부의 군사정책과 지휘관 인선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트로츠키와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I. Kolesnichenko, “K voprosu konflikte v Revvoensovete Iuzhnogo Fronta,”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2 (1962), 39-47; Robert Service, Stalin: A Biography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2005), 163-174.; Timothy J. Colton,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 The Structure of Soviet Military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41-50; G.D. Obichkin, Perepiska Sekretariata

제1기병군의 최초 기반은 부돈니가 이끌던 소규모 빨치산부대였다. 이 소규모 빨치산 부대는 주변의 다른 빨치산 부대들과 합치면서, 부돈니를 지휘관으로 하는 제1기병사단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전투를 거치면서 오카 고로도비코프의 제4기병사단과 티모셴코 (S.K. Timoshenko)의 제6기병사단을 “지휘관들의 동의하에”⁴⁴⁾ 병합하여 “부돈니의 기병군단 (Konnyi korpus Budennogo)”으로 확대 재편되었다.⁴⁵⁾ 물론 제4기병사단과 제6기병사단 역시 남부 러시아의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빨치산 부대들의 합병의 소산이었다.⁴⁶⁾ 차리친에 주둔하고 있던 보로실로프와 예고로프 (A.I.Egorov)가 지휘하던 제10군 예하부대였던 기병군단은 여타 기병부대와 병합하면서 결국 1919년 6월 26일에 제1기병군으로 확대 재편되었다.⁴⁷⁾

62명의 지휘관들 중 군부속청이 시작되는 1936년까지 군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휘관은 총 46명이었다. 즉 총 62명의 지휘관들 중 10명의 지휘관들은 내전기간 중 반란행위로 처형당하거나 전사하였다.

	생몰연대	사망원인
G.M. 예키모프	?-1920	전사
G.G. 콜파코프	?-1920	전사
F.M. 모로조프	1892-1920	전사
S.V. 네고로바	1885-1921	전사
K.A. 트루노프	1866-1920	전사
P.V. 바흐투로프	1889-1920	전사
A.Ia. 파르호멘코	1886-1921	전사
F.M. 리투노프	1886-1920	전사
I.P. 콜레소프	1880-1921	처형
G.S. 마슬라코프	1877-1921	처형

내전에서 살아남은 총 52명의 지휘관중 4명은 내전 이후 적군에서 제대하여 새로운 경력을 쌓아갔다.

Tsk RKP (b) s mestnymi partiinymi organizatsiiami: Sbornik dokumentov (Moscow: Gosizdat, 1957-), vol. 4, 443-445.

44) RGVA, f. 39408, op. 1, d. 1, l. 25; Tiulenev, Pervaia konnaia v izobrazhenii ee boitsov i komandirov (Moscow: Gosizdat, 1930), 86

45) 차리친에서 창설된 제4기병사단은 돈 코사크지역의 이노고로드니에와 빈곤 코사크로 충원되었다. 제6기병사단은 이보다 좀더 남쪽인 쿠반 코사크지역과 스타브로폴 지역 출신들로 충원되었고, 1919년 초 제6기병사단과 같은 시기에 차리친으로 이동하였다. Tiulenev, Pervaia konnaia, 89-93; V.L. Genis, “Pervaia konnaia armii: Za kulisami slavy” Voprosy istorii, no. 12, 1994, 95-96. 티모셴코의 이력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M. Rudenko, “Marshal Sovetskogo Soiuza S.K. Timoshenko (90-letiiu sodnia rozhdeniia),” Voенno-istoricheskii zhurnal, no. 2 (1985), 66-68.

46) 적군의 인력 충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 Movchin, “Komplektovanie krasnoarmii v 1918-1920 gg,” in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vol. 2, 86.

47) RGVA, f. 245, op. 4, d. 70, l. 20. 또한 다음을 보라. Tiulenev, Pervaia konnaia v boiakh, 3-7; Khromov, Grazhdanskaia voina, 279. 제1기병군 혁명군사위원회는 스탈린, 보로실로프, 에뎀 A. 쉬차텐코로 구성되었다. RGVA, f. 191, op. 5, d. 125, l. 29; f. 100, op. 3, d. 1130, l. 453; f. 4, op. 18, d. 2, l. 194.

	생몰연대	내전시 최종계급	
A.M. 벨렌코비치	1897-1937	제11기병사단 지휘관	기술학교 진학후, 항공기 공장 책임자역임
V.V. 코로브코프	1884-1968	제11기병사단 제3기병연대 지휘관	소연방 농업인민위원회에서 근무
Ia.A. 레브다	?-1932	제14기병사단 제22기병연대 지휘관	국영 종마 관리소 책임자
B.M. 포포프-라멘스키	1896-1938	제11기병사단 참모장	식료품 가공공장 책임자

남은 48명중 G.N. 바투린 (1880-1925)이 제9보병사단 사단장으로 근무 중 병사함으로써, 숙청 시기에 적군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1기병군 출신 지휘관의 수는 총 47명이었다. 실제로 이들 47명 지휘관의 숙청직전까지의 경력은 매우 화려했다. 이는 숙청에서 살아남은 지휘관뿐만 아니라 희생된 지휘관들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 숙청에 살아남은 지휘관들 (35명)

	생몰연대	숙청시기 보직
I.M. 마나가로프	1898-1981	제1군 제8기병사단 지휘관
P.G. 마카로프	1898-1943	제6기병사단 지휘관
P.L. 루드추	1893-1969	제1기병연대 지휘관
I.G. 지베로프	1896-1986	적군 기계화 및 기갑군사학교 교관
B.A. 포그레보프	1898-1942	시베리아군관구 공군 책임자
T.T. 샤프킨	1885-1943	제20기병사단 사단장
P.Ia. 스트레푸호프	1889-1945	제116기병사단 사단장
Ia.T. 체레비첸코	1894-1976	서부군관구 제2기병군단 군단장
I.A. 아이제노프	1889-1975	벨로루스군관구 통신책임자
N.K. 셸로코프	1887-1941	프룬제군사학교 기병전술교관
M.G. 하즈킬레비치	1896-1941	키예프군관구 제2기병군단 군단장
V.S. 골루보프스키	1891-1961	제8기병사단 사단장
I.V. 셸리바노프	1886-1942	제19기병사단 사단장
P.M. 다뱌도프	1894-1973	제17기병사단 부사단장
P.L. 로마넨코	1897-1949	제7기갑군단 군단장
L.L. 클루예프	1880-1943	프룬제군사학교 교관
O.I. 고로도비코프	1879-1960	적군 기병총국 총감
V.I. 크니가	1883-1961	소연방 국방인민위원회 군마총국 부총감
Io.I. 호룬	1884-1962	프룬제군사학교 전술교관
S.M. 부돈넢	1888-1973	모스크바군관구 군관구장
P.P. 소벤니코프	1894-1960	제8기병사단 사단장
I.F. 루네프	1896-1962	제4군단 제32기병사단 사단장
Io.R. 아파나센코	1890-1943	중앙아시아군관구 군관구장
M.F. 뤼셴코	1890-1964	제21기병사단 사단장
V.N. 쿠르듀모프	1895-1970	제8군 부지휘관
V.V. 노비코프	1898-1965	제6기갑사단 사단장
I.V. 틀레네프	1892-1978	트렌스카프카스군관구 군관구장

F.R. 발투쉬스-제마티스	1897-1957	프룬제군사학교 교관
S.K. 티모셴코	1885-1970	키예프군관구 군관구장
D.I. 라쉬세프	1894-1985	제1기병군단 군단장
V.Ia. 카찰로프	1890-1941	북카프카스군관구 군관구장
S.A. 조토프	1882-1938	적군 기병총국 부총감
F.A. 파르호멘코	1893-1962	제22기병사단 사단장
L.G. 페트로프스키	1902-1941	모스크바군관구 부군관구장
I.S. 니키티	1897-1942	몽고군과견 군사고문관

● 숙청에 희생된 지휘관들 (12명)

	생몰연대	숙청시기 보직
D.A. 바이네르흐-바이나르흐	1888-1938	제5기병군단 군단장
N.V. 라키틴	1895-1937	제5기계화군단 군단장
B.S. 고르바체프	1892-1937	우랄군관구 군관구장
E.I. 고리아체프	1892-1938	키예프군관구 부군관구장
L.Ia. 바이네르	1897-1937	몽고군과견 군사고문관
D.F. 세르디치	1896-1937	제3기병군단 군단장
V.P. 글라골레프	1883-1938	소연방 국방인민위원회 무기획득국 책임자
Ia.V. 웨코	1893-1938	제4기병군단 군단장
K.I. 스페프노이-스피자르뉘	1898-1938	적군 자동차화 및 기갑화국 책임자
I.D. 코소고프	1891-1938	제4기병군단 군단장
S.M. 사비츠키	1897-1937	트렌스카프카즈군관구 참모장
V.M. 고닌	?-1940	제34보병군단 군단장

일견 이들 지휘관들의 화려한 경력, 스탈린에 의해 요직에 기용되었던 기병지휘관들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기도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군부 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투하첵스키 등의 인물들을 제거하려 하였고, 결국 이것이 독소전 초반의 군사적 패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도 47명 지휘관의 약 26%에 달하는 12명의 인물들이 숙청으로 인해 처형되었다. 또한 숙청시기 지휘관들의 보직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인물들이 기갑병과 및 기갑관련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해석들이 기반하고 있던 기병병과-기갑병과간의 조직 및 인적구성상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설명들이 군부 내 숙청을 설명하는데 전혀 유효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는 1930년대 말 군부숙청뿐만 아니라 독소전 이전 소련의 민군관계 전체에 대한 연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반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VI.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기술결정론적 태도’ 외에도, 소련 군부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은 소련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관료주의와 비밀주의로 인한 자료 부족과 그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소련 붕괴이전까지 군부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 토론이나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기보다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스탈린 시기에 보로실로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군사적 천재로 묘사되었다면, 냉전시기에 출간된 서방의 저작들과 흐루쇼프 등장 이후 출간된 소련의 저작들 또한 ‘별다른 근거 없이’ 투하첵스키와 숙청의 희생자들을 군사적 천재 혹은 독소전 이전 적군의 “실질적인 수장”⁴⁸⁾으로 묘사하곤 하였다. 이는 군사문제 연구가 주로 군인들에 의해 수행되던 소련에서 군부에 관한 역사연구가 관련 지휘관들(종종 정치계의 인물들도 포함하여)의 군 경력과 정치적 생존을 둘러싼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⁴⁹⁾ 다른 한편으로 소련붕괴 직후의 러시아 사회의 혼란과 많은 격변은 소련 군부라는 주제를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되고 논의된 저작들보다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종종 객관성이 의심되는 선정적인 연구들이 넘쳐 날 수 밖에 없었다.⁵⁰⁾

소련의 역사서술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소련붕괴 이후의 역사연구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하면서 여전히 기존의 잘못된 신화들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 붕괴이후 20여 년 동안, 러시아사회의 안정과 문서 고 개방 등을 비롯해 많은 사회적 학문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소련이 존재하는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소련붕괴와 함께 같이 사라져버린 소련군이라는 주제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연구해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닐까라고 필자는 생각해본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군사사에 대한 인식자체가 드물고, 군사사를 정치사나 사회사 등과는 다른 역사학의 특수한 분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사사의 입지가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48) Glantz, *Stumbling Colossus*. 37-38.

49) 예를 들어, 러시아내전 당시 제1기병군이 소속된 제10군 지휘관 알렉산드르 예고로프(Aleksandr I. Egorov)의 *L'vov-Varshava 1920 god.* (1929)와 *Razgrom Denikina 1919* (1931)은 러시아내전 당시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데니킨의 백군과의 전투와 폴란드전에 관한 중요한 저술이기는 하지만, 이들 저작의 저술 의도는 적군의 전술-전략연구목적 외에도, 폴란드전의 군사적 실책의 책임을 투하첵스키에게 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했다. A.I. Egorov, *L'vov-Varshava 1920 god. Vzadimodeistvie frontov* (Moscow: Gosizda., 1929); *Razgrom Denikina 1919* (Moscow: Gos. voenizdat., 1931)

50)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Viktor Suvorov, *Icebreaker: Who Started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Viking, 1990). 수보로프의 주장의 핵심은 소련은 오래전부터 독일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히틀러는 이를 알고 예방전쟁 차원에서 독소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설과 달리 전쟁의 책임을 히틀러와 독일에 두지 않고 스탈린에 돌리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쇄빙선(Ledokol)』이라는 제목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표된 이후인 1993년에 출판되었다.

● 타찬카 (tachanka)

